

당신만을 위한 1:1 맞춤 자산관리

TWO CHAIRS

JULY+August



2025 vol.73

SPECIAL THEME High-end Travel **LIFE &**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가이드
SENIOR & 워치스 앤 원더스 제네바 2025 **WEALTH &** 국내 주식시장 수익률 환골탈태

아시안뱅크誌 선정 ‘2024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수상

WEALTH & SOCIETY 2024

BEST PRIVATE BANK IN SOUTH KOREA



July and August

Wanderlust Summer

〈TWO CHAIRS〉 7+8호에서는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와 그에 맞는 다양한 여행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행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명언들과 하이엔드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여행지, 개인의 취향에 맞춘 여행을 실현해줄 비스포크 여행사를 소개합니다. 여름이면 생각나는 이벤트가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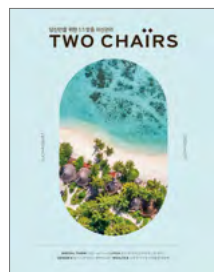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 축제와 호텔에서 즐기는 프리미엄 빙수, 한여름 밤의 무더위를 식혀줄 홈메이드 칵테일 레시피도 담았습니다.

늘 찾아오는 계절이지만, 여름은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 또 다른 설렘을 찾아보기 좋은 때입니다.

여름휴가를 이용해 당신만의 방식으로 색다른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CONTENTS

JULY+AUGUST
2025 vol.73



COVER STORY

여행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자신의 취향에 맞게, 익숙한 곳을 색다르게 여행할 수 있는 하이엔드 여행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잊지 못할 여행의 추억을 선사할 다양한 여행지를 소개한다.



07 Special Theme

08 INTRO

여행의 이유들

10 TREND

여행의 장면들

14 HOW TO

FINAL DESTINATION

26 LIST

평범함을 넘어선 특별한 여정
Tailor-Made Escapes



33 Life &

34 ARCHITECT

장난 같지만 고도로 논리적인 건축물
비야르케 잉겔스 그룹

40 STAY

제주에서 만나는 유럽,
특별한 휴식과 럭셔리리의 결정체
The Siena Primo

42 EXHIBITION

서양미술사 400년을 산책하는 법

46 VIEW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52 WHAT'S HOT

2025 세계 여름 음악 축제 가이드

56 CURATION

일하면서 행복한 위커홀릭 세계

60 CLASSIC SPECIAL INTERVIEW

경계를 넘는 음악가, 파페라 테너
임형주



67 Senior &

68 LOCAL TOUR

공주를 만나는 다섯 가지 방법

72 READING

취미百서

74 WATCH

워치스 앤 원더스 제네바 2025

80 SIGNATURE HOLE

포천힐스 골프 클럽

84 GOLF LESSON

아웃-인을 고치는 다운스윙 공식

88 HOT PLACE

특급 호텔에서 만난 빙수

92 RECIPE

한여름 밤의 칵테일 로맨스
Savor the Flavors of Summer

96 HEALTH

여름 피부 지키는 기술



99 Wealth &

100 INVESTMENT

국내 주식시장 수익률 환골탈태

104 REAL ESTATE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상권의 진화

108 TAX STORY

해외 부동산 관련 세금의 모든 것

112 READERS LETTER

QR코드 아이콘 가이드

유튜브 등을 보면서 쉽게 따라 하고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발행 및 편집인 하영춘

발행처 (주)한경매거진엔북

발행일 2025년 7월 1일

2025년 7-8월호 제10권 제4호(통권 제73호)

디자인·인쇄 (주)한경매거진엔북

등록번호 서울 중 마00097

격월간 <TWO CHAIRS>는
한국경제매거진(주)이 우리은행 PB고객
멤버십 서비스를 위해 제작하는 매거진입니다.
격월간 <TWO CHAIRS>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하며, 이 책에 실린 어떤 내용도
무단 복제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TWO CHAIRS>에 실린 글은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에 따른 기사입니다.

※ 매거진 수신 거부 및 주소 변경을
원하실 경우, 우리은행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500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TWO CHAIRS W 송도

오픈 예정일 2025년 7월 15일

주소 인천시 연수구 하모니로177번길 49

형지글로벌패션복합센터 제1동 15층 15호

수도권 최초 자산관리 특화센터

TWO CHAIRS W 송도 오픈

올 7월 인천 송도에 자산관리 특화센터인 ‘TWO CHAIRS W 송도’를 새롭게 오픈한다.

이는 본점과 서울 강남, 여의도, 부산 해운대에 이어 아홉 번째 특화센터로 수도권 지역에서는 처음 오픈하는 곳이기에 기대가 더욱 크다.

Editor: 지연 Photo: 셔터스톡

이제 우리은행의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인천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됐다. 오는 7월 15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TWO CHAIRS W 송도 오픈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TWO CHAIRS W 송도’는 우리은행이 초고액자산가를 위한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센터인 TWO CHAIRS W를 수도권역 최초로 오픈하는 곳으로, 서울에 집중된 프리미엄 맞춤 서비스와 특별한 금융 경험을 수도권역으로 넓혀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향후 송도를 기점으로 수도권 외 지방 핵심 도시로도 VIP 금융서비스를 확대해나가고자 하는 우리은행의 노력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송도, 수도권 초고액자산가를 위한 금융허브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지식정보산업단지와 대규모 연구소, 고급 주거 단지가 밀집된 인천의 대표적 부촌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인프라 확대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고급 자산관리와 맞춤형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중이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은행은 초고액자산가를 위한 금융허브를 송도에 선보이며, 지역 맞춤형 VIP 금융 전략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송도국제도시의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원하는 고액자산가가 많은 유망 지역입니다. TWO CHAIRS W 송도의 오픈은 이곳 고객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금융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수도권 고객의 고도화된 자산관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결정입니다. 향후에도 고품질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VIP 고객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와 공간

TWO CHAIRS W 송도는 단순히 금융 상담을 제공하는 개념을 넘어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공간 설계와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 내부는 고객이 방문할 때마다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미술품 전시 공간과 대형 미디어 월을 설치해 예술적 감각이 돋보이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또한 대고객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 룸도 배치해 금융 세미나 및 문화 프로그램 등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특히 VIP 고객 전용 상담실은 4·5·6인 등 다양한 형태로 설계되어 상담 목적과 그룹 규모에 따라 맞춤 환경을 제공하며, 자산관리와 상속 및 세무 설계 등 고급 자산관리 솔루션을 차별화된 상담 환경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처럼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최상의 서비스를 통해 TWO CHAIRS W 송도는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차별화된 금융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



- ☑ 우리금융을 한 곳에 모아 **WON MORE**
- ☑ AI 기술로 **WON MORE**
- ☑ 나 중심 서비스로 **WON MORE**

더 새로워진 금융생활을 위해
우리WON은
WON MORE



※ 우리WON뱅킹 앱은 사용자의 AOS/iOS 버전에 따라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우리WON뱅킹 앱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나 일부 타행 사정에 의해 시간에 제약을 받는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588-5000, 평일 09~18시, 주말/공휴일 제외)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074(2025.02.07~2026.02.13)



우리은행

SPECIAL



High-end Travel

여행은 이제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삶에서 의식주만큼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전보다 한층 고급스럽고 자신의 취향에 맞춘 여행이 되길 원합니다.
당신의 욕구를 충족해줄 하이엔드 여행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여행의 이유들

떠나고 싶게 만드는 여행에 관한 문장들.
이제 다시, 여행의 시간이다.

Writer: 유나리 Photo: 게티이미지뱅크, 언스플래시



여행은 편견, 완고함, 편협함에 치명타를 날린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많은 이에게 여행은 몹시
필요하다. 인간과 사물에 대한 광범위하고 건전하며,
너그러운 견해를 일생 지구의 한 작은 구석에서
무기력하게 지내는 것으로는 얻을 수 없다.
- 마크 트웨인, 〈마크 트웨인의 여행기〉



여행은 문과 같다. 우리는 이 문을 통해 현실에서 나와
꿈처럼 보이는 다른 현실, 우리가 아직 탐험하지 않은
다른 현실 속으로 파고드는 것이다.
- 기드모파상

여행을 많이 해서 자신의 생각과 삶의 형태를 여러 번
바꿔본 사람보다 완전한 사람은 없다.
- 알폰스 드 라마르틴

어느 날 아침 눈을 뜨고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어디선가
멀리서 북소리가 들려왔다. 아득히 먼 곳에서, 아득히 먼
시간 속에서 그 북소리가 울려왔다.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 나는 왠지 긴 여행을 떠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먼 곳에서 북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 무라카미 하루키, 〈먼 북소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출발은 예전에 사람들이 지나간 자취를 무효화하며,
불확실한 영역들로 이루어진 자체의 지도를 만들어낸다. 길이란 길은
늘 새롭게 지나가야 하는 공간으로 열려 있으며, 세상의 넘쳐나는
길들을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걸어간다. 여행이 선사하는 다양한
행복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행복의 수도 여행자의 수만큼이나
많다.
- 파스칼 브뤼크네르·알랭 팡키엘크로, 〈길모퉁이에서의 모험〉

배낭을 짊어질 때가 더 즐거운지, 벗어놓을 때가 더 즐거운지는
알 수 없다. 출발의 흥분은 도착의 흥분을 기대하게 한다.
걸음을 옮기는 것은 그 자체가 보상일 뿐 아니라 나중의 추가적인
보상도 약속한다. 그래서 기쁨은 기쁨으로 끝없이 이어진다.
-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게으른 자를 위한 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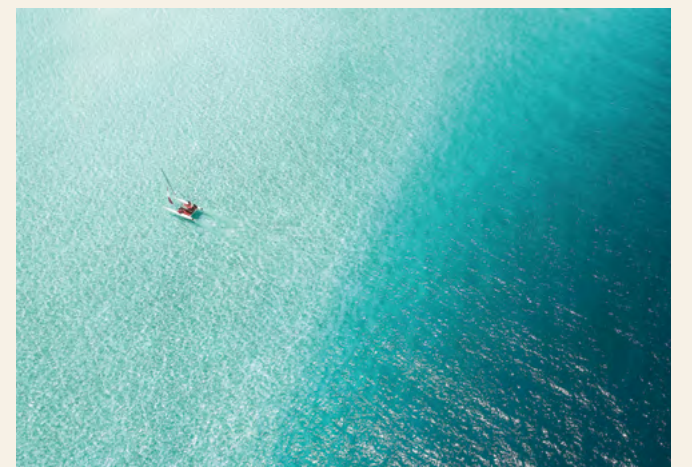


허름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815호로 올라가 말쑥꾸러기
슈트케이스를 벽 쪽에 기대놓고는 샤워도 미룬 채
곧바로 침대에 누웠다. 다음 날 눈을 떴을 때, 나는
서울이 아닌 포즈난에 있었다.
- 조해진, 〈누구나, 이방인〉



독서가 여행이고, 여행이 독서다.
- 빅토르 위고

여행이 매력적인 것은 모든 장소들이
거주할 수 없는 통과와 지점이기
때문이다. 시간은 익명의 휴일에 머물고,
모든 장소의 세부는 새롭게 출현한다.
- 이광호, 〈장소의 연인들〉



우리의 울퉁불퉁한 여행 가방이 다시 인도 위에 쌓였다.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문제 되지 않는다. 길은
삶이니까. ●
- 잭 케루악, 〈길 위에서〉

여행의 장면들

시대의 흐름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잘 드러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여행이다.

요즘 여행은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어떤 경험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할까?

키워드별로 살펴본 2025년 여행 최신 트렌드.

Writer: 유나리 *Photo:* 게티이미지뱅크, 부킹닷컴, 언스플래시, 한경DB, 원앤온리 만다리나 프라이빗 홈즈

Reference: 부킹닷컴 '한국 가족 여행 트렌드',

스카이스캐너 '트래블 트렌드 2025', 트립닷컴 '모멘텀 2025: 차세대 여행 트렌드 보고서', 호텔스닷컴 '언팩 2025'

Keyword 1

웰니스, 더욱 정교함을 결들인

올해 여행의 가장 큰 흐름은 바로 '웰니스^{Wellness}'다. 한국관광공사, 스카이스캐너, 부킹닷컴 등에서 2025년 여행 주요 키워드로 웰니스를 꼽았다. 휴식과 재충전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정화하는 여행을 의미하는 웰니스 여행은 사실 색다른 키워드는 아니다. 1990년대 후반 건강과 개인의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등장한 개념으로, 주로 명상·요가·디톡스 등의 키워드가 함께했다.

올해의 웰니스 여행은 조금 더 효용을 추구한다. 단순히 비싼 곳에서 잘 먹고 잘 쉬거나 산장에서의 가벼운 휴식과 재충전이 아닌, 좀 더 직접적 효과가 내 몸에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성향이 고령화, 평균수명 연장의 기초와 관련 있다고 본다. 그래서 요가 외독 특한 심신 안정 프로그램, 에이징 케어 등 체험의 다각화는 물론, 자연과 유기적 연결을 중시해 짓는 리조트와 호텔 등이 늘고 있다. 이런 큰 흐름에 맞춰 여러 나라가 앞다퉀 관련 여행 상품을 만들고 있다. 인도는 'AYUSH'라는 전통 의학 통합 부서를 만들어 전통 의료 치료와 아유르베다, 자연요법 등을 제공하는 '힐 인 인디아^{Heal in India}'라는 콘텐츠를 만들었다. 호텔·항공사·여행사가 협업해 맞춤형 피트니스 계획, 식단, 웰빙 라이프스타일 코칭 등을 통합해 제공한다. 인도식 의료 관광인 셈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바다와 산·사막·화산 분화구 등 독특한 나라의 지형을 활용해 요가, 하이킹, 명상, 스포츠, 캠핑 등을 즐기는 색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Keyword 2

자연 속으로, 이번엔 주로 야간에

한층 정교해진 웰니스 여행의 인기에 자연 속으로 떠나는 사람도 늘 어날 전망이다. 자연을 경험하는 다양한 여행법 중 특히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바로 '천체 여행'. 개기일식, 오로라, 밤하늘의 별을 보는 여행을 말한다.

스카이스캐너는 한국인 여행자가 가장 좋아하는 유형의 천체 여행으로 밤하늘 촬영(54%), 천문대 방문(37%), 달빛 아래에서 잠자기

(36%) 등을 꼽았다. 특히 올해는 태양 활동이 절정에 이르러 전 세계 곳곳에서 평소보다 더 자주, 더 강렬한 오로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최적의 시기. 이와 함께 달빛 아래 카약을 타거나 밤에 정글을 탐험하고, 야생 동식물을 관찰하는 등 야간에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가 포함된 야간 관광도 인기를 끌 전망이다.

미국 관광청 또한 이런 여행 흐름을 파악해 유타주의 공룡 국립박물관, 밤하늘을 관찰하기 좋은 AMC의 메인 쇼, 야광 플랑크톤을 관찰할 수 있는 플로리다주 베로 비치, 수천 마리의 반딧불이가 불을 밝혀 장관을 연출하는 그레이트스모키산맥 등을 야간 투어 명소로 추천하며 홍보 중이다.

자연과 건축의 연결을 추구하는 바이오필릭^{Biophilic} 콘셉트로 지은 원앤온리 만다리나 프라이빗 홈즈



Keyword3 미디어와 SNS, 여행을 지배하는 큰손

SNS 시대, 여행이라고 다를 리 없다. 업계가 꿈은 다양한 키워드 SNS 픽, 스크린 투어리즘 등을 관통하는 특징은 바로 ‘미디어’. 부킹닷컴은 한국인의 66%가 영화나 TV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아 여행을 계획한다고 발표했다 정도. 특히 <걸어서 세계 속으로>, <봉봉 지구 오락실>, <장사천재 백사장 3> 등 해외를 여행하며 음식을 먹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며 미디어에 나온 지역을 여행해보고자 하는 움직임이 크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심받는 지역은 두바이. 미국 리얼리티 시리즈인 <두바이의 진짜 주부들>의 성공 이후 두바이에 대한 관심이 작년보다 30% 이상 증가했다고. 스카이스캐너가 추천하는 색다른 미디어 여행지는 미국 몬태나 및 와이오밍(드라마 <엘로스톤> 배경지), 스코틀랜드(BBC 리얼리티 시리즈 <반역자들>), 케이프타운(넷플릭스 실사 드라마 <원피스>) 등이 있다.

또 SNS 시대답게 이제는 인플루언서의 여행법을 보고 따라 하려는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주류가 될 전망이다. 컨슈머인사이트가 ‘국내·해외 여행의 만족·불만족 원인 탐색 조사’를 한 결과, 여행자들은 국내 여행지를 결정할 때 공공 상업적 채널은 거의 안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은 지인 추천(41%), 블로그(28%), SNS(22%) 순이었다.



컨슈머인사이트의 조사 결과 국내 여행지를 결정하는 주요인은 지인 추천, 블로그, SNS 등이었다.



크루즈 여행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인기를 끌자 크루즈 여행 상품을 직접 예약할 수 있는 전문 사이트 ‘크루지아’도 오픈했다.

Keyword4 스트레스프리, 올인클루시브로 할게요

여행 갈 때 어디서 자고 먹고 돌아다닐지 결정하는 것도 제법 스트레스다. 이것마저 최소화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올해는 ‘스트레스프리Stress-free’, 스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여행 상품이 인기를 끌 전망이다. 이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된 올인클루시브All-inclusive 여행과 크루즈 여행이 다시 뜨고 있다.

호텔스닷컴은 조사 결과 Z세대의 3분의 1은 올인클루시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고, 42%가 올인클루시브 리조트를 가장 선호하는 호텔 유형으로 꼽았다고 발표했다. 하얏트, 메리어트 같은 주요 체인은 올인클루시브 대열에 합류하는 등 전 세계 호텔·리조트 체인의 올인클루시브 경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크루즈 상품도 더 트렌디하고 다채로워진다. 하나투어는 최근 크루즈 여행이 전 연령층에게 인기를 끌며 루트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올 여름엔 시애틀만 관광하던 기존 상품에 앵커리지 일정까지 추가한 알래스카 크루즈도 선보였다. 하반기엔 몰타를 포함한 지중해 상품, 크루즈 여행과 함께 요즘 한국인의 인기 여행지로 떠오른 시드니 관광도 함께 할 수 있는 상품,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등 이국적인 중동 지역을 여행하는 상품 등을 출시한다.

Keyword5 미식, 이젠 호텔에서 즐겨요

‘먹으러’ 가는 여행이 계속 인기를 끌 전망이다. 트립닷컴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미식·고메 관광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고. 재미있는 것은 홍콩과 싱가포르 여행객은 특히 길거리 음식 투어에 열광하는 반면, 한국과 일본 여행객은 편하고 고급스러운 호텔 다닝에 더 관심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런 흐름에 국내 호텔 업계는 앞다투어 호텔 미식 여행 상품을 내놓고 있다. 콘래드 서울은 지난 5월 피자계의 전설로 불리는 주세페 에리키엘로를 초청해 직접 화덕에서 구운 피자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지로 피자Giro Pizza’를 선보였다. 파라다이스시티는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인 ‘밍글스’의 강민구 오너셰프를 초청해 갈라디너를 열었고, 반얀트리리는 국내 최연소 미쉐린 스타 셰프 이충후를 총괄 셰프로 영입했다. JW 메리어트 제주는 세계 각국의 미식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글로벌 셰프 컬래버레이션-JW 다닝 시리즈’를 진행하기도 했다.

Keyword6 마이크로, 취향맞춰 즐겨요

개인화된 시대에 맞춰 여행도 진화한다. 원하는 것도, 목적지도 한층 다양해진다. 덩치 큰 패키지여행이나 명소 위주의 탐방으로는 소화할 수 없는 수요가 점차 늘어난다. 트립닷컴이 주목한 2025년 여행 트렌드 중 하나인 ‘마이크로트렌드’ 여행은 이런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다. 앞으로의 여행은 좀 더 다양한 가짓수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할 수 있게 맞춤형, 소규모 투어 등으로 세분화될 것이라는 의미다.

이런 흐름에 업계도 빠르게 발맞추고 있다. 하나투어는 배낭여행 향수가 있는 5060 세대를 위한 전용 배낭여행 상품이나 2030 세대를 위한 몽골, 카자흐스탄 등 여행지를 다각화한 연령대별 전용 상품 등을 속속 개발하고 있다. 모두투어도 프라이빗 여행을 선호하는 고객을 위해 소규모 전용 상품 ‘온리우리만’을 내놔고, 노랑풍선도 신규 취향지 또는 신규 숙소에 묵거나, 유튜브와 동반한 여행 등 관심사를 반영한 다양한 신상품을 내놔다. ●



고비사막, 게르 및 승마 체험, 별 감상과 트레킹 등 요즘 유행하는 다양한 키워드의 여행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여행지인 몽골. 하나투어의 2030 세대 전용 상품인 ‘밍글링’ 투어가 판매한 몽골 여행 상품은 3분 만에 완판됐다.

FINAL DESTINATION



세상에 당연하게도 이렇게 좋은 곳이 아직도 많다.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한 번쯤 눈여겨볼 만한 명소들.
여행 트렌드에 맞춰 주목할 곳을 골랐다.

Writer: 유나리 *Photo.* 스발바르제도 관관청(visitsvalbard.com), 스코틀랜드 관관청(visitscotland.org),
식스센스(www.sixsence.com), 스몰 럭셔리 호텔 오브더월드(slh.com), 게티이미지뱅크, 한경DB



1

Stress-free_ All-inclusive Resort

오스트리아-에리로

세상에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의 올인클루시브 숙소가 있다. 오스트리아 에르발트의 티롤 자락 해발 1,550m에 자리한 목가적 분위기의 산장, 에리로Eiro는 클럽메드 이미지와 모든 것이 정반대다. 에너지 있고 활기 넘치는 분위기와 대조되는 정적이고 세련된 풍경과 시설을 자랑한다. 알프스산맥에서 구한 나무와 돌로 장식한 객실은 머무는 내내 자연을 내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도록 한다.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수준 높은 미식과 산맥을 바라보며 스파를 즐기고, 광활한 숲과 산맥을 탐험해보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스키를 즐기거나 하이킹할 수도 있다.



2

1. 숙박, 식사, 주차, 스파, 액티비티 등 모든 것을 즐기며 쉴 수 있는 에리로
2. 지역 자재를 활용해 미니멀하지만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게 꾸민 실내

〈타임〉이 '2025년 전 세계의 멋진 장소 중 하나'로 뽑은 이 유가 있다.

www.eriro.at

미얀마-와에일 리조트

천편일률적인 동남아 휴양도시는 피하고 싶다면 미얀마를 고려하는 것도 좋다. 미에이크 군도Myeik Archipelago에 위치한 와에일 리조트Wa Ale Resort는 울창한 숲, 백사장과 청량한 옥빛 바다가 펼쳐지는 해양 국립공원 내 사유 섬에 자리한다. 나무 위에 있는 빌라 2개와 바다 앞 객실 18개까지, 총 20개 객실만 갖춘 이곳은 문자 그대로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유유자적할 수 있다. 정글 숲 나무 위의 텐트 빌라에 누워 맛있는 삼시 세끼 식사와 적당한 알코올을 즐기고, 패들 보딩이나 카약·스노클링으로 바다를 만끽한 후, 정글을 누비며 생소한 미얀마의 자연에 한 발 깊숙이 들어가는 것 모두 리조트에서 제공하기 때문이다.

waaleresort.com

1. 모든 객실이 바다와 열대우림 숲 사이에 위치한다.
2. 안다만해를 끼고 있는 최적의 위치. 야생의 섬을 편안하게 경험할 수 있다.



1



2

미국-캐슬 핫스프링 리조트

미국 애리조나주의 브래드쇼산맥Bradshaw Mountains과 소노란사막Sonoran Desert이 펼쳐진 장관 아래 위치한 캐슬 핫스프링스 리조트Castle Hot Springs Resort는 온천수가 솟아나 원주민 부족과 전쟁 후 요양이 필요한 군인들이 머무르며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치유하던 곳이다. 이곳이 31개 호화로운 방갈로를 갖춘 21세기 오아시스로 재탄생했다. 레스토랑에서 사막 풍경을 감상하며 푸짐한 아침을 먹은 후, 말을 타거나 선인장 사이를 걷는 하이킹 등으로 몸을 풀고, 야외 온천 풀에 몸을 담근 채 하늘에서 쏟아지는 듯한 별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

www.castlehotsprings.com

1. 아늑한 외부 포치까지 갖춘 리조트 내 스프링 방갈로
2. 협곡에 둘러싸인 야외 온천 풀



1



2

Stress-free_ Wellness Resort



인도네시아-바이스로이 발리

바이스로이Viceroy는 발리 우붓 중심부에서 차로 단 5분 거
리지만, 계곡과 정글로 둘러싸인 사유지 안에 있어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 한적하다. 40개 객실은 모두 빌라 형태
로, 인피니티 풀도 갖추었으며, 요가의 명소답게 다양한
웰니스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장점. 새벽엔 울
창한 정글에서 하는 요가 세션에 참여해 몸과 정신을 깨우
고, 일몰 무렵엔 가이드와 함께 계단식 논을 하이킹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 강이 내려다보이는 마사지실에
서 전통 발리식 마사지로 여독을 풀어도 좋다. 직접 채취
한 허브로 만드는 칵테일 클래스에 참여해 창작의 영감까
지 받아볼 것! 몸과 마음 모두 충전하기 더할 나위 없다.

www.viceroybali.com



1 우붓 왕가의 계곡Valley of the Kings 꼭대기에 위치해 완벽한정글&논 뷰를 자랑한다.
2 우붓 내 위치한 럭셔리 리조트 중 유일하게 온수풀을 갖췄다.

스페인-식스센스 이비사

클럽과 파티, EDM 음악의 성지인 이비사와 고급스럽고
정적인 휴양 시설의 대표 격인 식스센스가 어떻게 어울릴
까? 식스센스 이비사Six Senses Ibiza는 이 둘의 기묘한 접점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활기와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찾는
가속 노화의 섬답게 저속 노화 방법도 아주 급진적이다. 이
곳엔 아예 ‘장수’를 추구하는 스파 프로그램도 있다. 생명
공학 기업 로즈바RoseBar와 협력해 바이오마커, 유전학, 호
르몬, 혈액 등 내 몸의 노화 속도와 건강 나이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그에 맞춰 비타민 주사, 생체리듬 활성화, 영양
계획 등을 짜주는 과학적 방식의 노화 방지 프로그램 ‘The
Age Defying Mix’를 제공한다.

www.sixsenses.com

1 이비사섬 북쪽의 잘 알려지지 않은 보석 같은 해변, 사라카Karraca 베이에 있다.
2 개인에게 맞춰 노화 시계를 과학적으로 돌려주는 고압 산소 치료, 적외선 치료
등을 처방해주는 로즈바. 3~7일 프로그램이 있다.



Yummy_ Enjoy Gourmet Tour



2017년 <미쉐린 가이드>에서 별 하나를 받은 레스토랑 일 피에바노. 저녁에만 운영한다.



모로코 전통 음식과 일식이라는 색다른 미식 경험을 할 수 있는 노부 호텔 마라케시



섬세하게 페어링된 와인과 음식을 먹고 스파를 즐기며 쉴 수 있다.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캐주얼한 뉴올리언스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이탈리아-카스텔로 디 스팔테나 익스클루시브 리조트

한때 수도원이던 18세기 토스카나 지역의 성을 개조한 카스텔로 디 스팔테나 익스클루시브 리조트 *Castello di Spaltenna Exclusive Resort*. 구불구불한 언덕과 삐죽한 나무, 포도밭이 펼쳐진 그림 같은 경치만으로도 눈이 시원해진다. 37개 객실과 잘 가꾼 정원, 너른 포도밭이 보이는 경치는 어느 한적한 이탈리아 고급 별장에서 보내는 주말여행 같은 느낌을 자아낸다.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 ‘일 피에바노 *Il Pievano*’에서 최고급 재료로 만든 세 가지 테이스팅 메뉴와 함께 레스토랑에서 직접 재배한 포도로 만든 칸티나 델 카스텔로 *Cantina del Castello* 와인을 맛볼 수 있다. 호텔은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만 운영한다.

www.spaltenna.it

모로코-노부 호텔 마라케시

레스토랑 안에 숙박까지 겸하는 셰프 호텔의 원조인 노부 호텔에서 마라케시에 오픈한 호텔. 노부 호텔은 1998년 미쉐린 스타를 받으며 일식 세계화를 이끈 노부 레스토랑의 마쓰히사 노부유키 셰프와 배우 로버트 드니로 등이 합작해 만들었다. 그중 북아프리카, 중동, 지중해 등 다양한 문화의 영향을 받아 음식 문화가 발달한 모로코 마라케시에 있는 노부 호텔 마라케시 *Nobu Hotel Marrakech*는 언뜻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모로코 음식과 일식의 신선한 조합을 경험할 수 있는 곳. 마라케시 중심가가 내려다보이는 루프톱 레스토랑에서 로컬 식재료와 어우러진 노부만의 은대구 미소구이, 방어 사시미 등을 맛보는 호사를 누릴 수 있다.

www.nobuhotels.com

아르헨티나-수사나 발보 와인메이커스 하우스

수사나 발보 와인메이커스 하우스 *Susana Balbo Winemakers House*는 와인을 좋아한다면 리스트에 꼭 넣어야 할 곳이다. 아르헨티나 최초의 여성 와인 제조자로 아르헨티나 와인의 세계적 인기에도 영향을 미친 수사나 발보가 고른 와인을 마시며 쉴 수 있다. 멘도사 지역의 와이너리를 투어하고, 호텔 내 테이스팅 룸에서 아르헨티나 제철 유기농 재료로 만든 음식과 페어링된 최상의 와인을 시음하며 와인에 흠뻑 빠져들 수 있다. 와인을 발효할 때 쓰는 탱크 형태의 욕조에서 아로마테라피를 즐기며 쉬기 좋다. 객실은 7개만 있어 마치 대저택에 눌러 온 듯한 기분으로 머물 수 있다.

www.susanabalbohotels.com

미국-코퍼 바인 와인 펍 & 인

뒤에 붙은 ‘인 *Inn*’이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 펍 위에 호텔이 있다. 미식이 주요 여행 키워드가 되면서 이제는 셰프들이 자신의 레스토랑 안에 먹고 쉬다 갈 수 있도록 객실을 추가한다. 코퍼 바인 와인 펍 & 인 *Copper Vine Wine Pub & Inn*도 그런 곳 중 하나. 더 재미있는 점은 현대식 선술집을 표방한다는 것. 영화나 소설에 등장하는 미국식 여관처럼 레스토랑과 호텔의 경계가 모호한 것이 특징이다. 레스토랑을 통해 들어와 체크인하고 객실로 간다. 레스토랑에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겔보나 옥수수와 가재를 곁들인 비스킷, 아망딘 등을 맛본 후 위 객실로 올라가면 된다. 객실은 단 11개다.

www.coppervine.com

Don't Miss Out_ Detour Destination



방콕과 치앙마이 중간, 태국 핏사눌록

방콕과 치앙마이를 기차로 오갈 때 정차하는 거점 도시가 바로 핏사눌록Phitsanulok이다. 아직 관광지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난강을 따라 형성된 도시는 아름다운 강변 풍경과 유적지 등을 갖춘 히든카드 같은 여행지다. 방콕의 번잡함이나 관광지화되어가는 치앙마이 둘 다 내키지 않는 여행객 사이에서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다. 과거 아유타야 왕국의 수도이던 이곳은 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불상으로 꼽히는 프라부다 치나랏Phra Buddha Chinnarat이 있는 왓 프라 시 마하탓 워라마하비한Wat Phra Si Mahathat Woramahaviharn(일명 왓 마하탓), 고대 크메르와 아유타야 건축양식이 혼재된 거대한 중앙탑이 유명한 왓 라차부라나Wat Ratchaburana 등이 있다. 대부분의 사원이 근거리에서 돌아다니며 관람하기 좋

다. 대형 쇼핑몰과 크고 작은 로컬 식당들, 일주일에 두 번 열리는 작은 야시장 등 규모는 크지 않아도 알차게 즐길 거리가 많다. 스쿠터를 빌려 도시 관광을 즐기다 통살랭루앙 국립공원Thung Salaeng Luang National Park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 것도 좋다.

www.tourismthailand.org

- 1_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적인 핏사눌록, 사원의 도시로 불리는 이유가 있다.
- 2_ 핏사눌록 근교의 푸힌롱클라 국립공원Phu Hin Rong Kla national Park



밀라노에서 1시간, 이탈리아 브레시아

둘러볼 곳이 너무 많아 시간에 쫓기는 배낭여행객은 밀라노, 피렌체, 로마 등 주요 대도시만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때 대도시 근교의 소도시를 살짝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밀라노에 간다면 기차로 1시간 거리의 브레시아Brescia에 가보자.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서 가장 큰 로마 유적지가 있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곳은 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광장인 포로 광장Piazza del Foro에 있는 유적지부터 기세가 남다르다. 일단 로마 시대 카피톨리움Capitolium 신전, 원형극장 등이 남아 있다. 그 외에도 11세기에 지은 두오모 등 도시 곳곳에 유적지가 즐비하다. 오래된 도시지만 기차역에서 구시가지까지 도보로 15분이면 닿고, 구시가지 전엔 현대적으로 정비된 신시가지와 지하철 등도 있어 혼자 당일치기로 여행하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다.

www.visitbrescia.it



- 1_ 근교 이세오 호수Isseo Lake에서 제트스키를 타거나 크루즈를 즐길 수도 있다.
- 2_ 중심지부터 유적이 즐비해 구석구석 돌아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Starry Starry Night_ Stargazing Tour



1



2

1. 땅거미가 지는 시간이면 오로라를 관찰할 확률이 더 높다.
2. 맨눈으로도 보이는 오로라와 별들의 향연! 스발바르 제도에서 볼 수 있는 흔한 풍경이다.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

노르웨이와 북극 사이에 있는 5개 섬을 묶은 스발바르 Svalbard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북쪽에 있다. 면적의 85%는 빙하로, 새하얀 산맥과 검은 툰드라지대로 꽉 찬 이곳의 주인은 어슬렁대는 북극곰과 북극여우, 야생 순록 등이다. 그리고 이곳에선 오로라를 볼 수 있다. 최적의 오로라 관찰 시기는 12월부터 2월. 스발바르는 오로라뿐 아니라 극야Polar Night까지 관찰할 수 있어 더욱 유명하다. 12월 중순부터 1월 말 극야 시기엔 해가 사라지는 온전한 밤이 계속 이어진다. 이 시기엔 하루 4시간, 약간의 푸르른 기운만 돈다. 이때 스발바르를 찾는다면 푸른 어스름 가운데 오로라가 춤추는 절경을 볼 수 있다.

visitsvalbard.com

영국 스코틀랜드 갤러웨이 산림 공원

밤하늘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됐다. 그런 시대인 것이다. 스코틀랜드 남부에 있는 갤러웨이 산림 공원Galloway Forest Park은 영국 최초의 '밤하늘 보호 공원Dark Shy Park'으로, 언제든 야생 그대로 보존된 자연 속에서 칠혹 같은 밤하늘을 볼 수 있다. 밤하늘과 야생 보호를 위해 공원의 약 20%는 영구적인 조명 설치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소리, 염소, 붉은사슴 등 생명의 기척 외에는 어떤 방해도 없이 7,000여 개의 별과 수만 개의 별이 만든 은하수 장관을 육안으로 볼 수 있다. 운이 좋은 날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먼 은하인 안드로메다는 물론, 목성의 가장 큰 위성까지도 볼 수 있다.☾

forestryandland.gov.scot/visit/forest-parks/galloway-forest-park

1. 갤러웨이에 간다면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별 풍경



1

국내 별 여행지



강원 화천 조경철천문대

해발 1,010m의 광덕산 정상에서 구경 1m 크기의 대형 망원경으로 강원도 밤하늘의 별 천지를 볼 수 있다. 아폴로 박사 조경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만든 곳.

www.apollostar.kr



충북 증평좌구산천문대

국내 최대인 356mm 규모의 굴절망원경으로 별과 행성을 볼 수 있다. 휴양림을 끼고 있어 숙박도 겸하는 곳이다. 전국 어디에서건 2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도 갖추었다.

jp.go.kr/star.do



경북 영양 별생태체험관영양반딧불이천문대

아시아 최초로 국제밤하늘보호협회로부터 밤하늘 청정 지역으로 인정받은 영양국제 밤하늘보호공원 내에 있다. 이곳에서 반딧불이는 물론 청정한 밤하늘의 쏟아질 듯한 별자리도 함께 관찰할 수 있다.

www.yyg.go.kr/np

영원한 로맨틱 아일랜드 보라보라섬.
세인트레지스 리조트는 푸르른 자연과
파우더 같은 백사장, 투명하게 비치는 라군
덕분에 보라보라섬의 다이아몬드로 불린다.

상위 1% 고객을 위한 하이엔드 여행 ZEUSworld by Hanatour

제우스월드에는 하나투어에서 상위 1% 고객을 타깃으로 만든 하이엔드 여행을 위한 브랜드다. 전 일정 오더 메이드를 통해 고객의 취향에 맞는 차별화된 여행을 제공한다. 30년 이상의 오랜 경험을 지닌 여행 전문 기업인 만큼 전 세계에 구축된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전담 콘시어지 서비스를 통해 여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문적이면서 세심한 서비스를 추구한다. 현지에서 여행 중 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바로 응대가 가능한 버틀러 서비스를 통해 즉각적 대처가 가능하다. 종합 여행사인 만큼 다양한 상품 추천이 가능한 것도 제우스월드만의 강점이다. 유럽이나 미주 여행, 동남아, 남태평양 등을 여행할 경우 비즈니스클래스 탑승과 차별화된 럭셔리 스테이를 기본으로, 니즈에 따라 럭셔리 요트와 프라이빗 제트기를 이용해 보다 편안하게 일정을 소화할 수 있다. 또한 취향에 따라 골프, F1, 월드컵 등 스포츠 이벤트 투어와 위스키·와인·파인다이닝 등의 미식 투어, 아트&컬처 투어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최근에는 휴가 시즌을 맞아 대표적 럭셔리 휴양지인 보라보라섬 투어가 인기다. 에메랄드 빛 라군에 둘러싸인 세인트레지스와 콘래드 리조트에 머물며 단독 라군 사파리 투어가 가능해 꿈꾸던 휴양을 즐길 수 있다.

문의 02-2127-1500, zeus.hanatour.com

평범함을 넘어선 특별한 여정

Tailor-Made Escapes

모든 여행이 같을 필요는 없다. 이제 여행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특별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 당신의 취향에 맞춘 여행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과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자신만의 특별한 여정을 만들어줄 맞춤 여행사 리스트업.

Editor: 지연 Photo: 각사제공

대표 상품

타히티 보라보라섬 세인트레지스 리조트 (6박 8일)

인천공항-나리타-파페에테-보라보라(세인트레지스 숙박)-자유일정(해양 액티비티, 헬기 투어, 라군 사파리 투어 등)-파페에테(자유 일정)-나리타-인천공항

당신을 위한 세상에 하나뿐인
럭셔리 맞춤 여행
Chalet Travel & Life

특정 여행지를 어떻게 여행하면 좋을지 고민된다면 샬레트래블을 방문해보자. 원하는 여행지와 기간, 예산, 여행 스타일 등 기본 정보를 가지고 맞춤 여행 일정을 추천받을 수 있다. 특히 유럽 여행을 계획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다. 샬레트래블은 1996년 스위스 전문 여행사로 출발해 프랑스, 호주, 일본 등 16개 지역을 전문화하며 오늘날에 이르는 만큼 전 세계 클래식 여행부터 오로라, 크루즈, 교육, 스파와 스키, 사파리 등 다양한 테마 여행까지 아우르며 보다 차별화한 상담이 가능하다. 정해진 일정은 없다. 항공사부터 호텔, 식사, 원하는 서비스 예약, 액티비티, 가이드 등 세세한 부분을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맞춰 조율한다. 한 번 이용한 고객의 경우 이전 여행의 히스토리를 고려해 새로운 여행지를 추천하고 일정을 제안한다. 샬레트래블의 재방문율이 높은 이유다. 버추오소^{Virtuoso}, 메리어트 스타즈, 만다린 오리엔탈 팬클럽, 아코르 프리퍼드 등 다수의 럭셔리 여행 서비스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어 호텔 방문 시 작지만 특별한 환대 서비스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문의 02-323-1280, www.chalettravel.kr



1.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라보에서 알프스와 레만 호수를 배경으로 펼쳐진 와이너리를 방문해 하이킹과 스위스 와인 시음이 가능하다.
2. 엥가딘 계곡의 숨은 휴양지 폰트레지나에 있는 럭셔리 스파 호텔인 그랜드 호텔 크로넨호프. 샬레트래블 상품 이용 시 이곳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아로마 마사지를 즐길 수 있다.
3. 몽트뢰 재즈 페스티벌과 스위스의 대표적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는 몽트뢰의 페어몬트 몽트뢰 팰리스 객실. 제네바의 호숫가에 자리해 고풍스러운 객실에서 호수 뷰를 만끽할 수 있다.
- 4, 5. 산악 마을 뷔르겐슈토크 산 정상에 위치한 부티크 호텔 빌라 호네그. 스위스에서 제일 규모가 작은 5스타 슈퍼리어 호텔이다. 루체른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인피니티 풀과 서머 테라스에서 최고의 파노라믹 전망을 즐길 수 있다.

대표 상품

스위스 알프스 스파 단독 가이드 여행(7박 9일)
취리히-루체른-리기-뷔르겐슈토크-아델보덴-몽트뢰-라보 와이너리-그뤼에르-체어마트-생모리츠-폰트레지나-아펜첬-취리히



1



2



3

럭셔리 호텔 예약 특화 플랫폼 TOURVIS SELECT

호텔과 리조트는 더 이상 단순히 머무는 장소가 아니다. 스테이 자체가 여행의 목적이 되고, 그 공간에서의 경험이 추억이 되는 시대다. 투어비스 셀렉트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숙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여행을 제안하는 맞춤형 호텔 예약 플랫폼이다. 2024년 7월부터 선보인 신생 플랫폼이지만 세계 최대 럭셔리&부티크 호텔 네크워크인 버추오소부터 하얏트 프리베, IHG 데스틴드 *Destined*, 상그릴라 더 럭셔리 서클 등 글로벌 럭셔리 체인 공식 인증 에이전트로 등록되어 있어 전 세계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숙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럭셔리 호텔부터 한적하고 특별한 부티크 숙소, 지역의 매력을 담아낸 이색 공간까지 고객의 다양하고 까다로운 취향을 만족시키는 큐레이션을 자랑한다. 투어비스 셀렉트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한 예약을 넘어 숙박객의 사소한 필요까지 배려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같은 비용으로 2인 조식 제공부터 100달러 상당의 크레딧(식음료, 스파 등 이용) 제공, 얼리 체크인·레이트 체크아웃, 룸 업그레이드, 글로벌 호텔 멤버십 포인트 적립 등 전문 콘시어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고객 상황에 맞춰 디테일하게 조정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럭셔리 호텔을 이용할 수 있다.

문의 1833-3032, 카카오톡 투어비스 셀렉트 검색

- 1_ 이탈리아 아말피 해안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레 시레누세
- 2_ 100년 역사를 이어온 팔라스 등급의 더 페닌슐라 파리
- 3_ 발리의 전통적 건축양식과 현대적 편의 시설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발리 아만킬라 프라이빗 객실

주요 혜택

2인 조식, 100달러 상당의 크레딧(식음료, 스파 등 이용) 제공, 얼리 체크인·레이트 체크아웃, 객실 무료 업그레이드, 글로벌 호텔 멤버십 포인트 적립, 체크아웃 시 결제

아트 투어 전문 여행사 LE MUSÉ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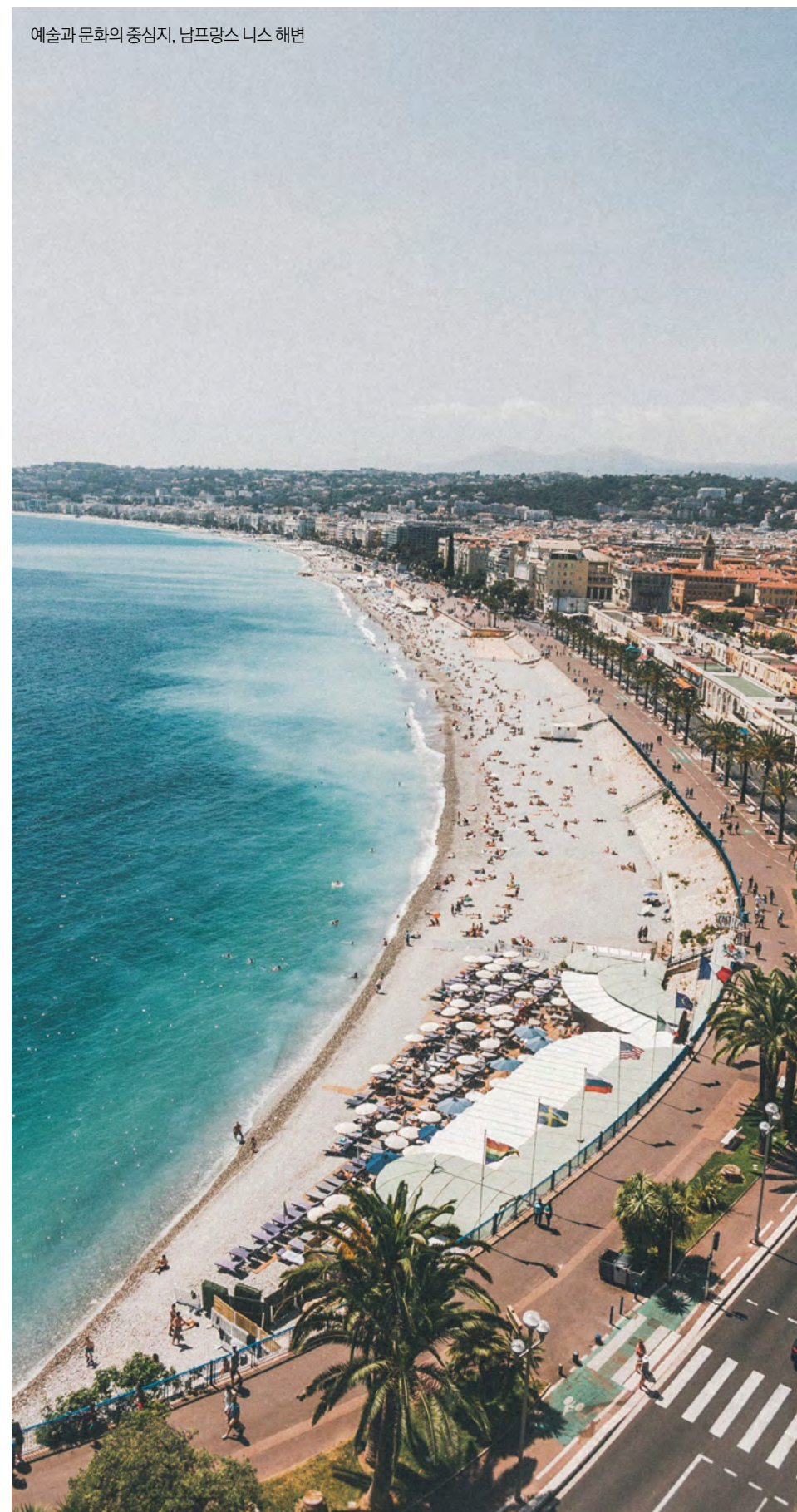
르뮤제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아트에 관심 있는 소수의 사람만을 대상으로 프라이빗하게 운영하기 때문이다. 부산을 기반으로 프랑스와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르뮤제는 아트 투어를 전문으로 진행하는 여행사다. 르뮤제의 베이스는 현대미술 갤러리. 갤러리 고객의 요청에 의해 그들의 취향에 맞는 아트 투어를 기획하면서부터 시작된 까닭이다. 국내외 글로벌 아트 페어뿐 아니라 전 세계 숨어 있는 아트 스폿을 고객의 취향과 니즈에 맞춰 기획하고 방문한다. 가깝게는 일본의 소도시부터 유럽까지 미술 전문가의 깊이 있는 해설과 함께 작품 너머의 숨은 이야기, 작가의 숨결, 시대의 흔적을 따라가며 예술과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지역에 따라 그 지역에서 꼭 맛봐야 할 미쉐린 레스토랑을 방문하거나 여행의 목적에 어울리는 숙소, 아트 컨설턴트를 통해 작품에 대해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르뮤제만의 강점이다. 혼자 가기 어려운 자연 속 미술관, 매 시즌 열리는 특별한 전시, 자신만의 아트 관심사에 따라 구성한 투어 등 미술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르뮤제와 함께 깊이 있는 아트 투어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

문의 051-747-9209, 카카오톡 아트어라운드 검색

대표 상품

남프랑스 아트 투어(9박 10일)

리옹-라 투레트 수도원-아를-뤼마 아를-마르세유-샤토 라 코스트-세잔 아틀리에-엑상프로방스-베르동 협곡-무스티에 생트 마리-마티스 미술관-샤갈 미술관-마그 재단-로스차일드 별장-니스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 남프랑스 니스 해변

WOORI BANK GLOBAL NETWORK



해외 지점

뉴욕지점 TEL 1-212-949-1900 FAX 1-212-490-7146 ADD 245, Park Ave. 43rd Floor, New York, NY 10167, USA	바레인지점 TEL 973-17-223503 FAX 973-17-224429 ADD P.O. Box 1151, 4th Floor, Entrance 1, Manama Centre Building, Manama, Bahrain	시드니지점 TEL 61-2-8222-2200 FAX 61-2-8222-2299 ADD Suite 21.02, 126 Phillip Street, Sydney, NSW, Australia
LA지점 TEL 1-213-620-0747-8 FAX 1-213-627-5438 ADD 3360, West Olympic Blvd. Suite 300, LA, CA90019, USA	다카지점 TEL 88-02-5881-3270-3 FAX 88-02-5881-3241/3274 ADD Suvastu Imam Square (1st & 4th Fl.) 65 Gulshan Avenue, Dhaka-1212, Bangladesh	두바이지점 TEL 971-4-325-8365 TEL 971-4-325-8366 ADD 1102A, Level 11, The Gate Building, East Wing, P.O. Box 506760, DIFC, Dubai, United Arab Emirates
런던지점 TEL 44-207-680-0680 FAX 44-207-481-8044 ADD 9th Floor, 71 Fenchurch Street, London, EC3M 4BR, UK	구르가온지점 TEL 91-12-4304-6700 FAX 91-12-4304-6730 ADD 1st floor, Salcon Platina Building, MG Road, Sector-28, Sikanderpur, Gurgaon-122001, Haryana, India	
동경지점 TEL 81-3-6891-5600 FAX 81-3-6891-2457 ADD Shiodome City Center 10th Floor Higashi-Shimbashi 1-Chome 5-2, Minato-ku, Tokyo	첸나이지점 TEL 91-44-3346-6900 FAX 91-44-3346-6995 ADD Lotte India, 2nd Floor, No.4/169, Rajiv Gandhi Salai(OMR), Kandhanchavadi, Perungudi Taluk, Chennai-600096, Tamil Nadu, India	
홍콩지점 TEL 85-2-2521-8016 FAX 85-2-2526-7458 ADD Suite 1401, Two Pacific Place, 88 Queensway, Hong Kong	몰바이지점 TEL 91-22-6263-8100 FAX 91-22-6263-8198 ADD Unit 601, 6th floor, Birla Centurion, Century Mills Compound, Pandurang Budhkar Marg, Worli, Mumbai, Maharashtra-400030, India	
싱가폴지점 TEL 65-6223-5854-6 FAX 65-6422-2000 ADD 10 Marina Boulevard #13-05 MBFC Tower 2, Singapore 018983 Singapore		

현지 법인

유럽우리은행 TEL +49(0)69 299 254 0 FAX +49(0)69 299 254 099 ADD 29th floor, Messe-Turm, Friedrich-Ebert-Anlage 49, 60308 Frankfurt am Main, Germany	우리파이낸스 미얀마 TEL 95-01-643798 ADD 115/A, Pyay Road, Saw Bwar Gyee Kone Ward (10 miles), Insein Township Yangon, Myanmar	우리웰스뱅크 필리핀 TEL 63-32-415-5265 FAX 63-32-415-5266 ADD Taft Financial Center, Cardinal Rosales Avenue, Cebu Business Park, Cebu City, Cebu
러시아우리은행 TEL 7-495-783-9787 FAX 7-495-783-9788 ADD 8th floor, Lotte Plaza, 8, Novinsky Boulevard, Moscow, 121099, Russia	베트남우리은행 TEL 84-4-7300-6802 FAX 84-4-7300-6806 ADD 34F, Keanganm Landmark 72, E6 Pham Hung Road, Tu Liem Dist, Hanoi Vietnam	중국우리은행 TEL 86-10-8412-3000 FAX 86-10-8440-0698 ADD Floor 11-12, Block A Building 13, District4, Wangjing East Park,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100102
인도네시아우리소다라은행 TEL 62-21-5087-1906 ADD Treasury Tower 26th, 27th FL, District 8 SCBD Lot 28 Jl.Jend. Sudirman Kav. 52-53, Jakarta 12190, Indonesia	브라질우리은행 TEL 55-11-2309-4740 FAX 55-11-3511-3300 ADD Avenida Nacoes Unidas, 14, 171, Crystal Tower, Conj.803, Vila Gertrudes, 04794-000, Sao Paulo-SP, Brasil	우리아메리카은행 TEL 1-212-244-3000 FAX 1-212-736-5929 ADD 330 5th Avenue, 3Floor, New York, NY 10001, USA
캄보디아우리은행 TEL +855 23 963 333 ADD Buliding 398, Preah Monivong Blvd, Sangkat Boeun Keng Kang 1, Khan Chamkarmon, Phnom Penh 12302, Kingdom of Cambodia	홍콩우리투자은행 TEL 852-3763-0888 FAX 852-3763-0808 ADD Rooms 1907-1909, 19/F, Gloucester Tower, The Landmark, 15 Queen's Road Central, Hong Kong	

사무소

팔라툼푸르사무소 TEL 60-3-2163-8288 FAX 60-3-2163-9288 ADD 32F, Menara Prestige, Jalan Pinang, 50450, Kuala Lumpur, Malaysia	양곤사무소 TEL 95-01-646951 ADD No.115(A) First Floor, Pyay Road, 10 Miles, Insein Township, Yangon, Myanmar	폴란드사무소 TEL 48-323-07-6417 ADD Uniwersytecka 13, 40-007, Katowice, Poland
--	--	---

L I F E &



세상은 눈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아트, 음악, 건축을 통해 마음의 눈을 키워보세요.
더욱 풍성한 인생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장난 같지만 고도로 논리적인 건축물 비야르케 잉겔스 그룹 Bjarke Ingels Group

현대건축의 거장 비야르케 잉겔스가 이끄는 건축 회사 비야르케 잉겔스 그룹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건축 회사다. 변독이는 아이디어와 과감한 도전 정신으로 ‘지속 가능성은 희생이 아니라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철학을 실천해나가는 이들의 건축물을 소개한다.

Writer: 두경아 Photo: BIG, 각 장소 표기



- 1. 부탄의 전통 건축양식과 현대적 공법의 결합으로 탄생할 부탄 젤레푸 국제공항
- 2. '레고 블록이 만들어진 구름'을 콘셉트로 건축한 레고 하우스
- 3. 모든 세대에 빛과 바람이 골고루 들어오도록 설계한 VM 하우스. 튀어나온 발코니가 인상적이다.

덴마크 출신 건축가 비야르케 잉겔스 Bjarke Ingels가 이끄는 비야르케 잉겔스 그룹(이하 BIG)은 건축계의 이단아이자 선도자다. 그들의 작품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데 그치지 않는다. 현실의 제약을 발판 삼아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 하며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때로는 경쾌하게 도시와 사회에 질문을 던진다.

BIG의 건축은 ‘지속 가능성은 희생이 아니라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철학에서 출발한다. 코펜하겐의 쓰레기 소각장 위에 만든 스키장 ‘아마게르 바케’는 이 철학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 이야기를 품은 형태다. BIG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고전적 건축 원리를 넘어 “형태는 이야기 Form follows fiction”를 따른다고 말한다. 건축이란 용도 이상의 의미와 맥락을 전달해야 한다는 믿음이다. 실제로 8 하우스, VM 하우스, 비아 57 웨스트 등은 각각의 대지와 도시 상황을 반영하면서도 새로운 거주 방식, 도시 구성에 대한 좀 더 나은 대안을 제안해왔다.

BIG는 또한 하이브리드 건축을 통해 복잡한 도시의 문제점을 창의적으로 해결한다. 주거, 상업, 공공장소가 공존하는 다층적 구조를 지닌 건물은 도시의 축소판과도 같다. 또한 자전거로 옥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경사형 동선, 대지의 바람과 일조를 고려한 대각선형 디자인은 실용성과 즐거움을 모두 놓치지 않는다.

자전거를 타고 오르는 10층 옥상 덴마크 코펜하겐 8 하우스^{8 House}

덴마크 코펜하겐 외곽에 위치한 '8 하우스'는 거대한 '8'자 혹은 리본 형태의 복합 주거 건물이다. 이 건물은 전통 블록 형태가 아닌, 도시의 모든 요소를 한 층씩 쌓아 올려 수직 구조로 옮겨온 실험적 건축으로 꼽힌다. 건물 전체가 8자 형태로 설계되어 내부 순환 동선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동네처럼 연결된다. 자전거를 타고 10층 옥상까지 오를 수 있을 정도로 경사가 완만하며, 상업 시설과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이 공존하는 입체적 공간이 완성됐다. 8자 모양 덕분에 건물 안쪽에는 2개의 아늑한 중정이 형성되었고,

중앙 교차 지점에는 모든 입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500m² 규모의 공동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바로 그 지점에서 9m 너비의 통로가 건물을 관통하며, 서쪽 끝의 공원 지역과 동쪽 끝의 수로가 있는 구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게 했다. 이 건물은 주거와 상업이라는 서로 다른 기능을 별도의 블록으로 분리하지 않고, 수평적으로 자연스럽게 배치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복합 공간을 제안한다. 이 프로젝트는 2011 세계 건축 페스티벌^{World Architecture Festival 2011}에서 주거 부문 최고 상을 수상했다.



© Maria Gonzalez

8 House



2



© Maria Gonzalez

3

1. 자전거를 타고 10층 옥상까지 오를 수 있을 정도로 경사가 완만하다.
2. 건물 전체가 8자 형태로 설계되어 내부 동선이 하나의 거대한 동네처럼 연결된다.
3. 주거와 상업 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배치했다.

강과 녹지를 품은 삼각뿔 아파트 미국 비아 57 웨스트^{VIA 57 West}

맨해튼 허드슨강에 위치한 비아 57 웨스트는 마치 피라미드를 눕힌 듯한 삼각뿔 형태의 고층 공동주택 건물이다. 거의 한 블록을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의 건물은 유럽식 중정(코트야드), 미국식 초고층 구조와 결합해 '코트스크래퍼^{Courtscraper}'라는 새로운 개념을 적용했다. 건물 외관은 대담한 형태로 도시 풍경을 장식하고, 내부는 햇빛과 조망이 골고루 분배된 중정을 품고 있다. 비아의 형태는 보는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 서쪽에서 보면 쌍곡선 포물면 또는 휘어진 피라미드 같고, 동쪽에서 보면 가느다란 첨탑 같다. 북동쪽 모서리 높이는 약 136m로, 세대수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바로 옆 헬레나 아파트 건물의 강 전망을 해치지 않도록 디자인되었다. 중정에 위치한 공용 녹지 공간은 코펜하겐의 고전적인 '도시 오아시스' 개념에서 착안했다. 이 중정은 '미국 조경 건축의 아버지' 옴스테드^{Olmsted}가 설계한 공원을 1만3,000배 축적해 정확히 같은 비율로 조성했다. 동쪽에는 그늘진 숲 분위기를, 서쪽에는 햇살 가득한 초원 풍경이 펼쳐지도록 설계했다. 조경 디자인은 스타 화이트하우스^{Star Whitehouse}에서 맡았다. 중정에는 80그루 나무와 잔디, 47종의 자생식물이 공원을 채우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16년 세계 초고층 도시 건축 대상^{International Highrise Award}을 수상했다.



© Iwan Baan

2



© Iwan Ba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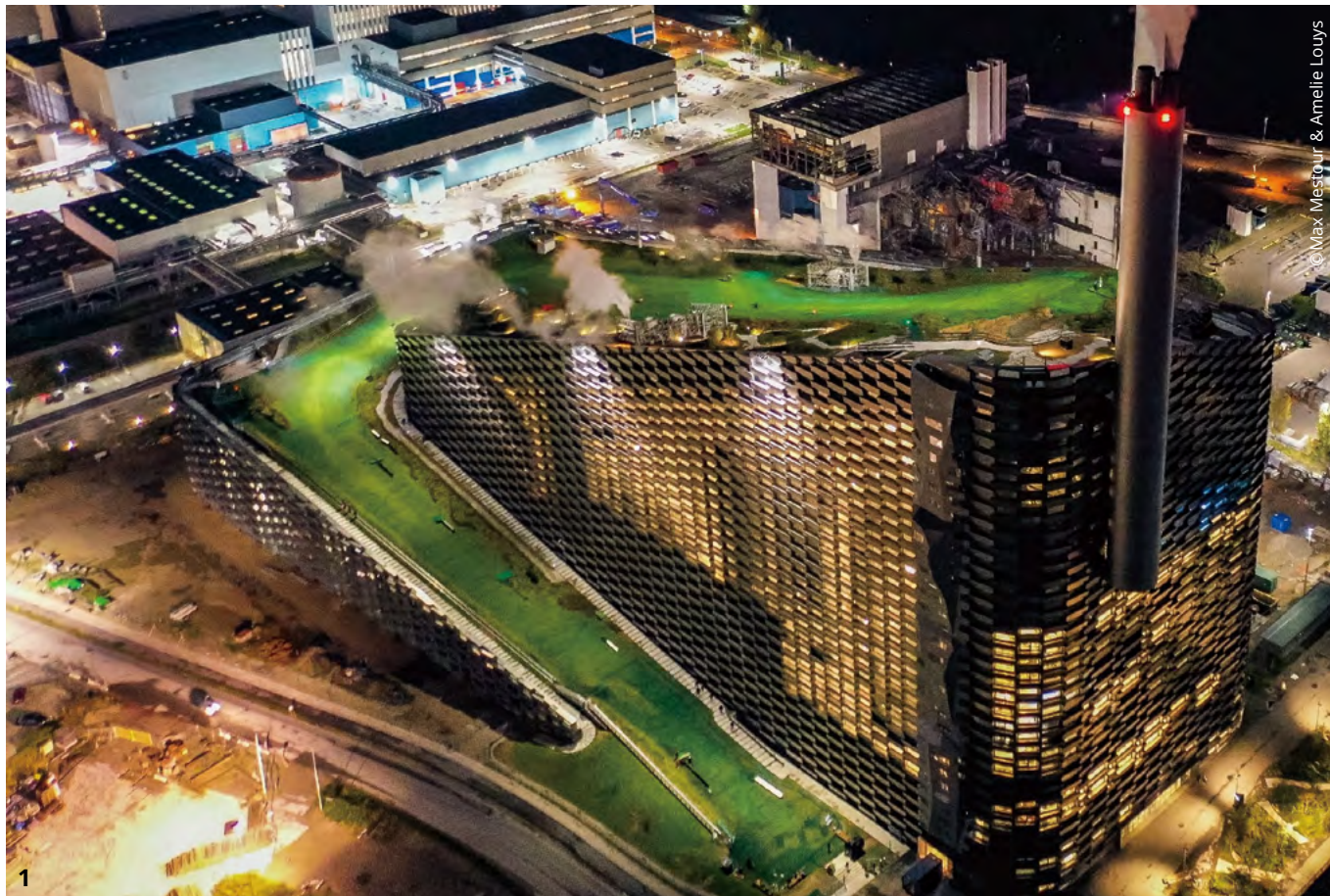
3



© Iwan Baan

VIA 57 West

1. 유럽식 중정과 미국식 초고층 건물 구조를 결합한 신개념 아파트
2. 허드슨강 변 피라미드를 눕힌 듯한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
3. 중정 녹지 공간은 유명 공원을 줄여 그대로 옮겨놓았다.



세계 최고의 발전소 겸 스키장 덴마크 코펜하겐 아마게르 바케

쓰레기 처리장 위에 스키 슬로프, 하이킹 트레일, 인공 암벽등반장을 얹은 하이브리드 건축물이다. BIG는 '지속 가능성'을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즐길 수 있는 도시 경험으로 구현했다. 코펜 힐(Copenhill)이라 일컫는 이 건물은 매년 44만 톤의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도록 설계된 폐기물 에너지 발전소와 야외 레저 시설이 결합된 건물이다. 에너지 생성 과정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은 필터와 촉매제를 통해 정화한 뒤 배출된다. 발전소는 당초 건물 옥상 공간을 자연 친화적 시설로 만들어 공공에게 돌려줄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높이 85m의 뾰족기 모양 건축물은 도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이며, 건물 옥상에는 무려 1만6,000m² 규모의 공원이 자리 잡고 있다. 조정 회사 SLA가 디자인한 옥상 액티비티 파크에서는 하이킹 트레일, 놀이터, 피트니스 시설, 트레일 러닝 코스, 암벽등반 코스 등 여러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도시를 조망하는 전망대 역할도 한다. 겨울에는 BIG가 설계한 500m의 스

키 슬로프가 조성되어 또 다른 즐거움을 제공한다. 모두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이 건물은 2021년 세계 건축 페스티벌에서 최고의 건물로 선정되었다.

- 1_쓰레기 처리장 옥상에 야외 레저 시설이 들어선 아마게르 바케
- 2_BIG는 아마게르 바케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즐길 수 있는 도시 경험으로 구현해냈다.



Amager Bakke

강 위에 설치된 비틀린 미술관 노르웨이 크바드라투르 더 트위스트

노르웨이의 숲속 미술관 단지 키스테포스 미술관(Kistefos Museum)에는 신비롭게 비틀린 다리 하나가 눈길을 끈다. 단순한 다리가 아닌, 갤러리 공간이다. BIG가 설계한 더 트위스트는 90도로 비틀리며 강 양쪽을 연결한다. 자연 환경과 연결된 경로 속에서 관람객은 '통과하면서 감상하는 전시'를 경험하게 된다.

구조물은 얼핏 곡선처럼 보이지만, 모두 직선으로만 구성됐다. 긴 알루미늄과 목재 패널이 마치 비틀리듯 회전하며 부채꼴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곡선이 가득한 듯한 착시 효과를 만들어낸다. 유리로 된 계단이 강 북쪽 독아래에 위치한 박물관 지하층으로 이어져 전면 유리 벽은 강을 바로 눈앞에 끌어들이듯 확장된 시야를 제공한다. 이 갤러리는 3개 전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 남쪽 입구에서는 '클로즈드 갤러리'로 들어설 수 있는데, 건물 전체를 가로질러 북쪽 출입구까지 시야가 탁 트여 공간의 깊이를 한눈에 느낄 수 있다. 중간에 위치한 '트위스트 갤러리'에서는 벽이 천장이 되고, 천장이 벽이 되는 등 건물 구조가 90도 비틀어지며 독특한 시각적 경험을 선사한다. 이어지는 '파노라마 갤러리'에서는 넓은 창을 통해 강과 주변 풍경을 파노라마처럼 감상할 수 있어 마치 자연과 예술이 하나로 연결된 듯한 인상을 준다. ●



The Twist



- 1_갤러리 중반부에서는 벽이 천장이 되고, 천장이 벽이 되는 독특한 시각적 경험을 선사한다.
- 2_BIG가 설계한 더 트위스트는 90도로 비틀리며 강 양쪽을 연결한다.
- 3_넓은 창을 통해 강과 주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제주에서 만나는 유럽, 특별한 휴식과 럭셔리의 결정체

The Siena Primo

제주 서귀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첫발을 내디뎠다. 유럽 감성의 컨템퍼러리 헤리티지 호텔, 더 시에나 프리모가 그 주인공. 특별한 섬과 품격 있는 여유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단순한 휴식을 넘어선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자 한다.

Editor: 지연 Photo: 더 시에나 프리모

제주 서귀포의 푸른 자연과 한라산의 웅장함 속에 유럽 감성의 컨템퍼러리 헤리티지 호텔 '더 시에나 프리모(The Siena Primo)'가 문을 열었다. 7월에 그랜드 오픈한 따끈따끈한 신상 호텔이다. 찬란한 문화유산을 품은 예술의 도시 이탈리아

리아 피렌체와 메디치 가문의 헤리티지를 재해석해 탄생한 곳으로, 유럽 귀족 문화의 기품 있는 낭만과 건축미를 호텔 곳곳에 고스란히 담아냈다. 이국적 호텔 외관 덕분에 이곳에서 만나는 매혹적인 한라산 풍경과 잔잔히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는 마치 유럽의 어느 산자락에 머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첫 순간, 가장 럭셔리한 최고의 환대

프리모Primo는 이탈리아어로 '최고', '첫 번째'를 의미하며, 호텔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머무는 모든 순간까지 잊을 수 없는 최고의 환대로 채우고자 한다. 더 시에나 프리모는 더 시에나 그룹의 첫 번째 호텔인(구)토스카나 호텔이 재탄생한 곳으로, 프리모라는 이름 그대로 모든 고객의 기억 속에 단 하나뿐인 '첫 번째 호텔'로 남기 위해 최상급 부대시설과 서비스로 채웠다. 각기 다른 테마와 뷰를 품은 품격 있는 객실,

셰프의 미식 감각이 깃든 양식과 한식 다이닝, 이국적 풍광을 즐길 수 있도록 사계절 운영하는 야외 온수풀과 아이들을 위한 키즈 카페까지 기존에 키즈 프렌들리 호텔로 유명하던 토스카나의 섬세하고 배려 깊은 서비스를 더욱 강화했다. 특히 제주에서 가장 큰 초호화 독채 풀 빌라는 명품 브랜드와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화려하게 꾸며 온 가족이 함께 진정한 럭셔리 호캉스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다. 감각적 디자인과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 어메니티부터 프로그램까지 세부적 요소 하나하나에 더 시에나 프리모만의 특별함과 섬세함이 담겨 있다. 올여름, 도심의 소음과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쉼을 누릴 수 있는 이곳에서 호캉스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

1



1. 유럽풍 헤리티지를 담은 더 시에나 프리모
2. 파스텔블루 컬러로 꾸민 키즈 펜트하우스인 티파니 객실. VIP 클래스의 초호화 키즈 룸은 아이 동반 가족여행객에게 주목받고 있다.
3. 명품 브랜드의 홈 컬렉션으로 꾸민 단독 온수 풀 빌라

주소
제주도 서귀포시
용흥로66번길 158-7
예약 및 문의
064-735-7000
www.thesiena.co.kr



1



2



3



4

요하네스버그 미술관 Johannesburg Art Gallery은 전통 아프리카 예술부터 현대미술까지 다양한 컬렉션을 보유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립미술관이다. 서양미술사에 한하면 17세기 네덜란드 황금기부터 18~19세기 영국과 유럽 거장들 작품, 현대 팝아트에 이르기까지 3만 점이 넘는 작품을 보유하고 있다. 이 미술관의 주요 소장품 143점을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장이 지금 서울에서 펼쳐진다.

오는 8월 31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진행되는 이 대규모 기획전의 이름은 '모네에서 앤디 워홀까지'. 모네와 앤디 워홀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으로 상징되는 400년 서양미술사를 발견할 수 있는 자리다. 이번 전시에는 미술사에 정통하지 않은 관람객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화가 이름이 나열된다. 89명의 화가 명단에는 클로드 모네, 빈센트 반 고흐, 폴 고갱, 폴 세잔, 에드가르 드가, 파블로 피카소, 앙리 마티스 등 세계적 거장들 이름이 발견된다. 반면 작품 이름은 낯선 것이 대다수다. 거장의 대표작으로 유명한 작품들은 아니기 때문. 그런데 웬일인지 작품명으로만 치면 무명에 가까운 작품들 사이사이에서 관람객은 의외로 오랜 시간을 보낸다. 한 작품에서 다른 작품으로 넘어가는 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이 전시에서 관람객은 작품 자체만 아니라 미술사의 흐름, 작품 사이에 있는 행간을 즐기기 시작한다. 눈앞에 있는

작품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바로 앞서 본 작품들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 흐름을 발견하는 재미가 쉬이 발견을 떼기 어려울 만큼 흥미롭다.

전시를 총괄한 큐레이터 시모나 바르톨레나 Simona Bartolena는 19세기와 20세기 유럽 미술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학자다. 그는 400년에 걸친 서양미술사의 주요 흐름을 시대별로 9개 섹션으로 나누어 구성했는데, 작품을 단순히 시간순으로 배열했다기보다 각 시대가 지닌 철학적 질문과 미학적 실험의 맥락을 짚어내는 데 집중했다고 한다.

17세기, 화려한 정물에 존재하는 철학적 의미

9개 섹션 중 첫 섹션은 정물화로 대표되는 네덜란드 황금기를 보여준다. 17세기 유럽의 풍요를 상징하는 정물화를 단지 꽃과 과일을 그린 그림으로 보면 심심하기 이를 데 없다. 당시 유행하던 정물화는 철학적 사유가 담긴 상징적 회화였다. '생명은 유한하고, 찬란한 순간은 짧을 수밖에 없으며, 짧기 때문에 찬란하다'는, 시대를 불문한 삶의 메시지가 담긴 것이다.

다니엘 세헤르스의 꽃 정물화는 어두운 배경에 화려한 꽃들이 대조를 이룬다. 꽃의 가장 화려한 순간에 눈을 떼지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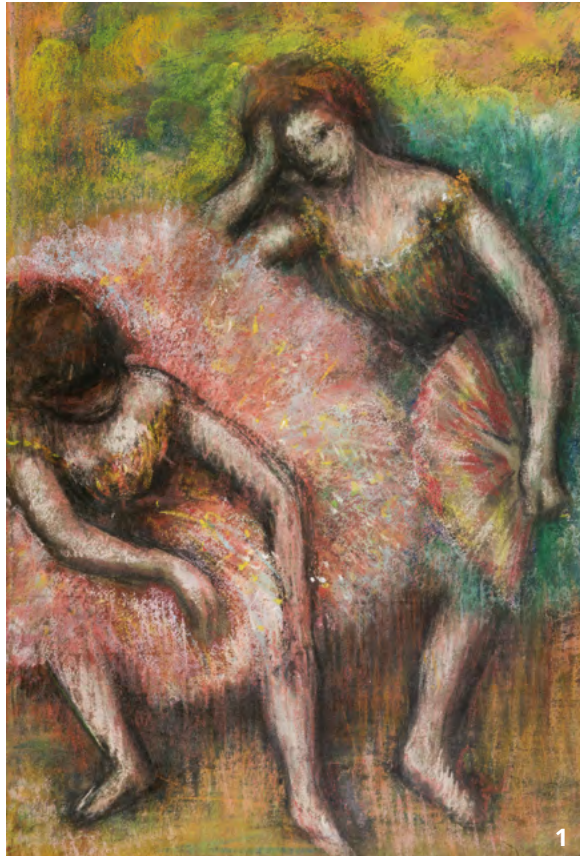
서양미술사 400년을 산책하는 법

‘인상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인상파 화가 클로드 모네, ‘탈인상주의’로 평가받는 빈센트 반 고흐, 20세기 현대미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 팝아트의 선두 주자 앤디 워홀이 한자리에 모인다면 어떤 이야기가 생겨날까?

세기가 뒤섞이는 즐거운 상상을 가능케 하는 전시가 찾아왔다.

Writer: 한소영 Photo: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요하네스버그 미술관

- 1_ 전시 전경
- 2_ 다니엘 세헤르스, '꽃병에 꽂힌 꽃', 패널에 유채, 1661 이전
- 3_ 단테 게이브리엘 로세티, '레지나 코르디움', 패널에 유채, 1860
- 4_ 귀스타브 쿠르베, '에트르타 백악 절벽', 캔버스에 유채, 1869
- 5_ 클로드 모네, '봄', 캔버스에 유채, 1875



1_ 에드가르 드가, '두 명의 무희들', 종이에 파스텔, 1898
2_ 안토니오 만치니, '필립스 부인', 캔버스에 유채, 1909

못하는 것은 극강의 아름다움조차 시들어버리고 마는 생명의 유한성을 알기 때문이다. 결국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붙잡아두고 싶어 하는 인간의 마음 때문이 아니겠는가? 물론 우리를 현혹하는 화려함 앞에서 삶의 덧없음을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저 황홀경을 무한대로 즐기는 정반대 해석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미술이란 재미있는 것이기도 하다.

인상주의 탄생부터 혼란과 해체의 20세기까지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인상주의를 다룬다. 클로드 모네와 알프레드 시슬리는 대표적 인상파 화가다. 인상주의는 전통적 구상 회화의 규칙을 깨고 찰나의 빛과 공기를 화폭에 담아낸다. 인상주의를 '빛을 그리는 예술'이라고 일컫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담거나 그림 기법을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인상 자체를 그리려 시도했다. 이 시기 작품을 통해 작가마다 미묘하게 다른 빛의 표현을 발견하는 것은 이번 전시의 즐거움 중 하나다.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섹션까지는 후기 인상주의와 나비파에 관해 다룬다. 인상주의에 염증을 느낀 젊고 반항적인 화가들이 후기 인상주의와 나비파를 구성했다. 피에르 보나르와 에두아르 뷔야르가 대표적이다. 이들에겐 그림이 더 이상 보이는 것을 옮기는 도구가 아니다. 빛의 표현조차 시각적 감각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이들은 거부한다. 후기 인상주의는 기억, 감정 같은 주관적 감각을 색과 구도로 화폭에 표현한다. 그 결과 회화는 현실 또는 감각과 아슬아슬하게 연결될 뿐인 감정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여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섹션까지는 그야말로 혼란과 해체의 시대였다. 기존의 미술은 갈기갈기 찢기고, 예술가들은 한없이 방황했다. 그리고 예술은 그 찢김과 방황까지 작품에 담아낸다. 파블로 피카소를 보라. 그의 작품은 현실과 환상이 뒤섞이고, 왜곡되며, 분절의 연속이다. 이 시기부터 미술은 정돈된 답을 내기보다 불친절한 질문을



3_ 모리스 위트릴로, '육군 병원', 캔버스에 유채, 1914경
4_ 모리스 드 블라맹크, '홍수', 캔버스에 유채, 1935



던지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이해 불가하기 때문에, 혹은 모두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20세기 작품은 필연적으로 질문일 수밖에 없다. 마지막 섹션은 팝아트의 아이콘 앤디 워홀이 대미를 장식한다. 앤디 워홀의 작품 역시 정의(定義)가 아닌 질문이다. 같은 이미지가 반복되는 그의 작품은 반복되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새로움'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현대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누구나 쉽게 인문학적 미술 산책

이번 전시는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에게 거장의 작품을 감상하는 즐거움뿐 아니라, 미술을 통해 시대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한다.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찬용, 심성아 등 스타 도슨트가 진행하는 무료 오디오 가이드, 전시 작품 목록을 담은 자료집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서양미술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단순히 명화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서양미술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기획전은 경주에서 시작해 부산, 제주를 거쳐 서울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전시 프로젝트다. 이전 도시들을

거치며 20만 명 관람객이 서양미술사의 흐름을 읽는 이번 전시에 호응했다. 거장의 원작을 사조별로 직접 감상할 수 있는 기회이자, 예술이 어떻게 시대를 반영해왔으며, 그것이 또 어떻게 그다음 시대를 바꾸어왔는지 엿볼 수 있는 뜻깊은 여정이다. 이 전시는 예술이 단지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수단이 아니라, 시대 감각을 반영하는 언어임을 보여준다. 400년 서양미술사의 각 사조에 관한 자신만의 관점과 기호를 만들어보는 것 역시 전시를 보는 큰 즐거움이 될 것이다. ●

관람 안내

전시 기간 2025년 5월 16일~8월 31일

전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1/2관

관람 시간 10:00~19:00(입장 마감 18:00)

관람 요금 성인 2만원, 청소년 1만6,000원, 어린이 1만2,000원



인류 문제 해결할 미래 디자인을 만나다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지난 4월에 개막한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가 오는 10월까지 총 184일 동안 이어진다.

158개국이 참여한 이번 엑스포는 ‘생명이 빛나는 미래 사회 디자인’을 주제로, 각국의 첨단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한자리에 모였다. 과연 과학기술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각국이 제시한 해법이 무엇인지 직접 살펴봤다.

Writer: 두경아 Photo: 두경아, 2025 엑스포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를
영상으로 미리 만나보세요.



© Colderly & Carlo Ratti Associati

지난 2025년 4월 13일 오사카 유메시마에서 개막한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가 어느덧 중반을 지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생명이 빛나는 미래 사회 디자인’^{Designing Future Society for Our Lives}이라는 주제 아래 전 세계 158개국과 7개 국제기구가 참가해 각국의 첨단 기술과 고유한 문화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행사는 개막 전부터 환경문제, 비용 문제에 이어 안전 문제까지 불거졌지만, 이를 보완하며 순항 중이다. 하루 평균 약 12만2,000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6월 14일 기준 누적 관람객 수는 781만 명에 달한다. 초기에 디자인 논란이 있었던 공식 마스코트 ‘마쿠마쿠’^{MYAKU-MYAKU}도 어느새 인기 캐릭터로 자리 잡았다. 독특한 외형과 함께 엑스포 주제인 ‘생명’을 효과적으로 담아냈다는 평가다.

세계 최대 목조건축, 그랜드 링

지름 2km, 높이 12m(외측은 20m), 내경 615m의 거대한 원형 구조물 ‘그랜드 링’^{Grand Ring}은 이번 엑스포의 상징이다. 일본 건축가 후지모토 소우가 설계한 이 구조물은 현대건축 공법과 함께 일본 신사와 사찰 건축에 사용하는 전통 공법 ‘누키’가 적용됐다. 누키는 못이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기둥과 보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 구조물은 단순한 동선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관람객은 링 위 산책로를 걸으며 오사카만의 바람과 햇빛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고, 링 아래 공간은 자연 환기와 휴식을 동시에 제공하는 쉼터로 구성돼 있다. 각국의 파빌리온은 링 안쪽에 배치되어 링 위를 한 바퀴 돌며 전체 구조를 조망할 수 있는 것도 매력 포인트다. 잘 정비된 조경 또한 관람의 즐거움을 더한다.

1. 엑스포 행사장을 감싸고 있는 ‘그랜드 링’은 산책로이자 쉼터로도 이용된다.

2. ‘그랜드 링’은 일본 신사와 사찰 건축에 사용하는 누키 공법으로 지었다.



183관 중 꼭 돌아봐야 할 파빌리온

전시관은 크게 158개 해외관과 일본관(일본관·일본 기업관 등), 시그너처관 등으로 나뉜다. 그랜드 링 중심부에 모여 있는 시그너처관은 이번 박람회 주제인 ‘생명이 빛나는 미래 사회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 8명의 프로듀서가 참여한 기획 전시 공간이다. 그중 미디어 아티스트 오치아이 요이치가 선보인 ‘null’은 거대한 거울 큐브로 이루어진 공간에서 ‘모든 것은 무에서 태어나 무로 돌아간다’는 철학적 메시지를 구현한다. 관람객은 반사와 왜곡 및 움직임 속에서 스스로와 마주하는 독특한 체험을 하게 된다. ‘Better Co-Being’은 미야타 히로아키가 선보인 숲과 하나 된 열린 건축이다. 지붕도 벽도 없이 금속 그리드 캐노피로 구성된 건축물은 기후 위기와 공존의 메시지를 건넨다.

올해 한국관은 ‘마음을 모아’를 주제로, 미래 세대에 전하고 싶은 가치를 인공지능(AI) 기술과 K-팝으로 풀어냈다. 파빌리온 한 면을 활용한 대형 미디어 파사드가 가장 먼저 반기며, 관람객이 녹음한 목소리가 AI 기술로 즉석에서 음악으로 변환되고, 파이프에 숨을 불어넣으면 그 숨이 수소 연료와 반응해 전기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체험형 장치도 선보였다. 미국관은 미 항공우주국 NASA의 로켓 발사 시뮬레이션과 ‘달의 둘’ 전시로 눈길을 끌고 있으며, 프랑스관은 루이 비통 모에 헤네시 LVMH 산하 브랜드들의 작품으로 꾸몄다. 루이 비통 트렁크 84개로 가득 찬 공간이나 400벌 이상의 디올 의상이 설치된 공간을 통해 장인 정신과 예술성을 동시에 전한다.

개최국인 일본은 17개 파빌리온을 선보였다. 이 중 일본관은 박람회장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바이오 가스 발전과 탄소를 재활용하는 첨단 기술을 선보여 관람객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행동하도록 영감을 전한다.

1. 미야타 히로아키가 선보인 숲과 하나 된 열린 건축 ‘Better Co-Being’
2. 한국관은 미래 세대에 우리가 전하고 싶은 가치를 AI 기술, K-팝으로 풀어냈다.
3. 중국관은 죽간^{竹間}에서 영감을 받은 파빌리온을 선보였다.
4. 루이 비통 모에 헤네시 LVMH 산하 브랜드들의 작품으로 꾸민 프랑스관
5. 거대한 거울 큐브로 이루어진 공간을 통해 철학적 메시지를 전한 ‘null’
6. 이탈리아관은 모듈형 목재 구조와 저탄소 기술을 활용해 만들었다. 옥상 위 녹지 공간이 인상적이다.



오사카 여행 필수 코스, 도톤보리부터 오사카성까지

엑스포를 관람했다면, 이제 오사카 필수 관광지를 돌아볼 차례다. 가장 먼저 추천할 곳은 오사카 여행의 상징, 도톤보리다. 강을 따라 늘어선 화려한 간판과 네온사인, 줄지은 포장마차와 식당 등이 낮보다 밤에 더 생생하게 살아나는 거리다. 특히 글리코상 앞은 인증샷 명소로 유명하다. 도톤보리와 연결된 구로몬 시장은 ‘오사카의 부엌’이라 일컫는 전통시장으로, 싱싱한 해산물과 다코야키 같은 다양한 길거리 음식이 즐비해 눈과 입이 즐거운 곳이다. 오사카의 레트로 감성을 느끼고 싶다면 쓰텐카쿠와 신세카이 거리를 추천한다. 쇼와 시대 정취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이 지역은 복고풍 간판과 노포들이 늘어서 있어 색다른 재미를 준다. 일본 최고층 빌딩인 하루카스 300도 오사카 필수 여행 코스다. 투명한 전망대에 서면 오사카 시내와 멀리 교토, 고베까지 시원하게 펼쳐지는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USJ}도 오사카 대표 관광지다. 닌텐도 월드, 해리 포터 존 등 다양한 테마 구역이 조성되어 하루만으로는 시간이 부족하다. 오사카의 상징 오사카성도 빼놓을 수 없다. 성 주변은 넓은 공원으로 구성되어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천수각에 오르면 도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1 오사카의 인증샷 명소 도톤보리 글리코상
2 오사카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오사카 성. 성 주변으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산책이나 휴식을 즐기기에 좋다.
3 목조 선박 가옥 후나야로 유명한 이네



오사카 인근 독특한 소도시, 아마노하시다테·이네

오사카 주변에는 고베·나라·교토 등 이름난 소도시가 즐비하지만, 조금 더 새로운 경험을 원한다면 오사카에서 2시간 거리인 어촌 마을로 가보자. 교토부 아마노하시다테는 일본 3대 절경 중 하나로 꼽히는 아마노하시다테 소나무 길로 유명하다. 이곳은 ‘하늘로 가는 다리’라는 뜻으로, 인근 산에서 내려다보면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길이 마치 천국과 지상을 연결하는 것처럼 보인다. 길이 약 3.6km, 약 800그루 소나무가 늘어선 이 길을 산책해보자. 양쪽이 바다라 마치 물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아마노하시다테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는 어촌 마을 이네는 목조 선박 가옥인 ‘후나야^{舟屋}’로 유명하다. 후나야는 바다와 접한 층은 선박과 낚시 도구를 보관하는 공간(배 주차장)으로, 2층은 거주 공간으로 사용하는 전통 가옥이다. 230채 정도 되는 이네의 후나야 일부는 카페나 레스토랑 및 숙박 시설로 리모델링됐지만, 지금도 많은 주민이 삶의 터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네의 필수 관광 코스는 이네 순회 유람선 탑승이다. 약 25분에 걸쳐 이네만을 돌아보는 유람선으로, 후나야 풍경을 바다 위에서 바라볼 수 있어 인기가 높다. ●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관람 팁

- 1 사전 예약 필수**
인기 파빌리온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해 미리 앱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 특히 일본관, 프랑스관, 여성관은 예약 필수다.
- 2 야간 개장의 매력**
한낮의 더위를 피하고 싶다면 야간 개장 시간에 맞춰 들어가는 것도 좋다. 엑스포는 오후 4시 이후 입장할 수 있는 야간 티켓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해가 진 뒤의 루프와 야경, 라이트 업된 국가관은 또 다른 매력을 자아낸다.
- 3 나만의 가이드, 모바일 앱**
엄청나게 넓은 박람회장을 누비려면 지도는 필수! 그러나 실물 지도는 2,000원가량에 판매 중이며, 구입하려는 줄도 긴 편이다. 공식 앱을 설치해 사용하면 박람회장 지도, 전시관 위치, 실시간 대기 시간, 예약, 추천 코스 등 다양한 정보를 스마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여름 밤의 꿈 2025 세계 여름 음악 축제 가이드

여름은 그야말로 축제의 계절이다. 세계 곳곳에서는 여름의 열기만큼이나 뜨거운 감동을 선사해줄 음악 축제가 펼쳐진다. 여행과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올여름 주목할 만한 세계 음악 축제를 소개한다.

Writer. 두경아 Photo. 각 축제 제공



스위스 루체른 페스티벌
Lucerne Festival

루체른 페스티벌은 베를린 필하모니, 빈 필하모니,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등 세계적 연주 단체의 공연이 이어지는 유럽의 대표 음악 축제다. 축제 무대인 루체른 문화 컨벤션 센터^{KKL}는 프랑스 유명 건축가 장 누벨이 설계한 공연장으로, 도시의 상징이기도 하다.

올해는 슈베르트, 브루크너, 말러의 미완성 교향곡을 중심으로, 완결되지 않은 음악을 집중적으로 선보인다. 특히 피에르 볼레즈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그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고, 건축가 이소자키 아라타와 조각가 아니시 카푸어가 제작한 세계 최초의 이동식 콘서트홀도 설치돼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기가 높은 축제인 만큼 티켓 예매는 어렵지만, 야외 라이브 공연이나 무료 리허설 이벤트도 마련하므로 축제 기간이면 루체른 어디서든 음악을 즐길 수 있다.

기간 2025년 8월 12일~9월 14일



스위스 몽트뢰 재즈 페스티벌
Montreux Jazz Festival

몬트리올 재즈 페스티벌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재즈 페스티벌이다. 1967년 시작된 이래 마일스 데이비스, 퀸시 존스, 프린스, 라디오헤드 등이 거쳐가며 음악의 스펙트럼이 가장 넓은 축제 중 하나로 꼽힌다.

올해 축제에도 전설적 아티스트들과 현역 최고 뮤지션들이 참여해 세대를 잇고, 장르를 넘나드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호수 위에 설치한 낭만적인 야외무대 '레이크 스테이지'와 실내 무대 '카지노스테이지'에서 열리며, 올해는 컨벤션 센터 리노베이션으로 야외무대의 비중이 더욱 높다. 개막 공연은 핑크의 여왕인 샤카 칸^{Chaka Khan}이 장식한다. 칸은 데뷔 50주년과 함께 '재즈계의 대부' 퀸시 존스^{Quincy Jones}를 기리는 특별한 무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콘서트, DJ 세트, 잼 세션, 사일런트 디스코, 영화 상영, 워크숍까지 600개가 넘는 무료 프로그램도 축제의 의미를 더한다.

기간 2025년 7월 4~19일



©SF_Monika Rittershaus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Salzburger Festspiele

모차르트의 고향 잘츠부르크에서 열리는 유럽 최고의 종합 예술 축제. 1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이 축제는 오페라, 연극, 클래식 공연을 아우른다. 무려 50일 이상의 기간 동안 15개 공연장에서 총 170회 이상의 공연이 펼쳐진다. 거리 곳곳의 야외 중계나 연습 공연으로 참여할 수 있어 티켓을 구하지 못해도 축제를 즐길 수 있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관계자는 올해 프로그램에 대해 “우리의 질문, 의심, 외로움, 공포, 희망을 마치 돋보기로 들여다보듯 정밀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축제 고정 프로그램인 호프만슈탈의 연극 〈예데르만Jedermann〉을 비롯해 페테르 외트비시Péter Eötvös의 오페라 〈세 자매Three Sisters〉, 베르디 오페라 〈맥베스Macbeth〉 등이며, 쇤베르크-말러의 작품을 연결한 ‘어느 아침이 영원으로 바뀌다One Morning Turns into an Eternity’도 연주될 예정이다.

기간 2025년 7월 18일~8월 31일



독일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Bayreuther Festspiele

독일 바이에른주의 작은 도시 바이로이트에서 열리는 오직 바그너만을 위한 축제다. 1876년 리하르트 바그너가 자신의 작품만을 위한 극장을 짓고 직접 시작한 이 축제는 지금도 오직 바그너의 오페라만 무대에 올린다. 공연장 페스트슈필하우스Festspielhaus는 오케스트라 피트가 관객에게 보이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독특한 음향 설계로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한다. 티켓은 사전 온라인 신청을 통해 추첨제로 배정되며, 수년을 기다려야 할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관객은 정장을 갖추어 입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전통을 지키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니벨룽의 반지〉전곡을 두 차례 공연하고, 〈로엔그린〉, 〈트리스탄과 이졸데〉 등 대표작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2023년 선보인 증강현실AR을 결합한 오페라 〈파르지팔〉역시 관람할 수 있다.

기간 2025년 7월 24일~8월 27일

미국 탕글우드 음악제 Tanglewood Music Festival

미국 동부의 한적한 숲속 마을 버크셔 힐스에서 보스턴 심포니가 주관하는 여름 음악제로, 클래식부터 재즈와 영화음악까지 폭넓은 장르를 아우른다. 공연장은 자연이다. 청중은 잔디밭에 담요를 깔고 앉아 요요 마, 존 윌리엄스, 제임스 테일러 같은 거장의 무대를 관람한다. 젊은 음악가 양성 프로그램도 활발해 예비 스타들의 무대를 볼 기회도 많다. 올해는 톰 크루즈 주연 영화 〈탐 건 매버릭〉 OST를 라이브로 연주하는 〈탐건 매버릭 인 콘서트〉로 시작하며 해롤드 팔터마이어, 레이디 가가, 한스 짐머의 음악이 연주될 예정이다. 특히 페스티벌의 음악적 폭을 넓혀줄 ‘과거, 현재, 미래: 음악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는 첼리스트 요요 마Yo-Yo Ma가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4회의 강연과 4회의 음악 공연이 펼쳐진다. 각 분야의 학자와 연주자가 참여해 인문학적 관점에서 음악의 의미를 탐구하는 시간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기간 2025년 6월 20일~8월 말

미국 선밸리 뮤직 페스티벌 Sun Valley Music Festival

1985년 시작해 올해로 41회를 맞이하는 선밸리 음악 페스티벌은 BBC가 ‘미국 최고의 클래식 페스티벌’ 중 하나로 선정한 축제다. 무엇보다 모든 공연이 무료이고, 모두 야외무대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나들이를 하듯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미국 주요 오케스트라의 전현직 단원들로 구성된 ‘페스티벌 오케스트라Festival Orchestra’를 중심으로, 세계적 피아니스트 가브리엘라 마르티네즈Gabriela Martinez, 첼리스트 고티에 카뮈송Gautier Capuçon, 피아니스트 올가 케른Olga Kern, 크로스오버 그룹 타임 포 스리Time for Three 등 아티스트들이 참여한다. 클래식 정통 레퍼토리뿐 아니라, 메이슨 베이츠Mason Bates의 신작 ‘실리콘 힘날Silicon Hymnal’ 등 현대음악도 소개된다. 특히, 피아니스트 유자 왕Yuja Wang이 참여하는 2025 갈라 콘서트가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기간 2025년 7월 28일~8월 21일



©Tanglewood Music Festival



일하면서 행복한 워커홀릭 세계

‘워라밸’을 외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옛사람 취급받던 워커홀릭들이 기세등등하게 뭉치고 있다. “일 더 잘하고 싶다!” 일과 사랑에 빠진 이들을 위해 각종 모임, 플랫폼, 출판, 유튜브 시장이 크게 움직인다.

Writer: 한소영 Photo: 게티이미지뱅크, 언스플래시

한국에는 자의든 타의든 기본적으로 워커홀릭이 많다. 이는 객관적 수치로도 증명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장시간 노동 국가에 속한다. 2023년 기준 OECD 회원국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752시간, 한국은 무려 1,872시간에 달한다. 한국 사람들은 OECD 국가 중 여섯 번째로 장시간 일한다. 일벌레로 소문난 일본은 1,611시간으로 순위가 우리보다 한참 아래에 있다. 이는 믿기 어렵지만 현실이고, 미국조차 1,799시간으로 9위다. 유럽연합^{EU}의 평균은 1,500시간대다. 주 4.5일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저성장 시대, 바쁜 것이 미덕이다?

꼰대라는 소리 들을까 봐 퇴근하면 일 얘기를 쉬쉬하던 때도 있었다. 그런데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워라밸 Work-life Balance’을 외치는 목소리가 줄어드는 듯하다. 오히려 자나 깨나 일에 관해 이야기하는 워커홀릭이 지금은 더 주목받는다. 이들은 바쁨을 자랑하고, 일 중독자의 삶을 계속해서 추구한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우리 사회가 저성장 시대로 진입한 현실이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일본의 버블 붕괴 이후처럼 장

기 침체에 빠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니 양질의 일자리도 점점 구하기 어려워진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시대가 도래하니 일하는 것이 곧 행복이다. 너도 나도 워커홀릭을 자처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경쟁력을 키우기 바쁜 상황에서 워라밸을 고수하기는 힘들다.

일과 행복은 양립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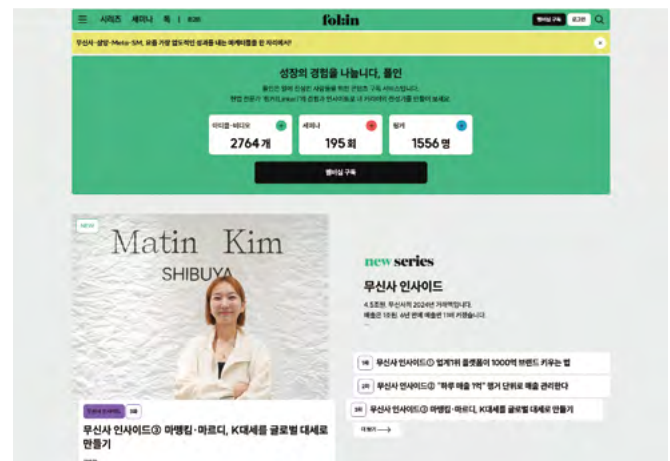
물론 일만 할 수 있다면 다 좋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일에 대한 조건은 더욱 까다로워졌다. 장시간 일하는 것은 지양한다. 이는 체력만 있다면 누구라도 가능하니까. 그러나 일을 잘하는 것은 다르다. 지금 워커홀릭이 추구하는 것은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것이다.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 대체되기 어려울 정도로 일을 ‘잘하는’ 것에 방점이 찍힌다. 평균만 넘으면, 입사만 하면 만사형통인 시대는 지났다. 상한선 없는 경쟁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워라밸이라는 말로 일과 행복을 분리하지 않고, 일을 통해 성공하면서도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이 시대 워커홀릭의 목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누군가는 자기 계발서를 통해 성공한 사람들의 노하우를 배우고, 누군가는 OTT 드라마를 보는 대신 자기 계발에 도움이 될 만한 유튜브를 본다. 또 누군가는 퇴근 후에 다른 워커홀릭들과 의기투합해 함께 세미나를 듣는다. 일 중독자를 위한 콘텐츠 세계도 가지각색,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1_콘텐츠 구독 서비스

‘폴인Fol.in’은 커리어 전성기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콘텐츠 구독 서비스다. 폴인 홈페이지는 대중을 열광하게 한 콘텐츠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로 꽉꽉 채워져 있다. 무대 뒷면에 있어 잘 몰랐던 숨은 능력자들이다. 홈페이지에 맞보기 형식으로 올라온 기사나 영상은 무려 2,700여 개, 그동안 개최된 세미나는 190여 회에 달한다. 지금

까지 폴인을 통해 마케팅, 기획, 디자인, 커리어, 콘텐츠, F&B, 공간, 테크와 관련한 자신만의 노하우를 전달한 전문가는 1,500명이 넘는다. 일 잘하는 사람이라면 분야를 막론하고 폴인에 모인다. 이 모든 콘텐츠는 무료로 공개된 것이 없다. 모두 멤버십 구독을 해야 볼 수 있다. 저속 노화 열풍의 주인공 정희원 교수와 CJ 햇반이 협업 제품을 출시한 비하인드라든가, ‘은둔의 증권사’라는 오명을 쓴 한양증권의 영업이익을 6년 동안 10배로 불린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가 말하는 팀을 살리는 방법 등이 최근 인기를 끄는 기사다. 제목만 봐도 클릭하고 싶은 콘텐츠들이다. 폴인에서 지난해 ‘장르가 된 여자들: 토크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진행한 세미나는 기획부터 연사까지 화제를 모았다. 걸 그룹 뉴진스의 신화를 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영화 <아가씨>와 <헤어질 결심> 등 마니아층을 형성한 독특한 작품의 시나리오를 쓴 정서경 작가, 뷰티 유튜버로 시작해 뷰티 브랜드까지 론칭한 이사배 투슬래시포 대표, 출판업계에서 출판사 유튜브 신드롬을 만든 조아란 민음사 마케터 등 자신의 분야에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한 여성 9인의 토크 콘서트였다. 이들은 대중적으로 알려진 워커홀릭이기도 하다. 이 자리를 통해 여성 멘토와 수많은 멘티가 만나 기존의 틀을 깨는 커리어에 대한 영감을 나누었다.





2_커뮤니티

영상이나 기사로 보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커뮤니티도 활발하다. ‘HFK’는 좋은 리더로 성장하고 싶은 실무 리더들이 소규모 팀 단위로 만나 함께 성장을 도모하는 커뮤니티다. HFK는 2013년 글로벌 비즈니스 매거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를 읽고 토론하는 커뮤니티로 시작했다. 지금은 전략, 기획, 마케팅, 리더십 등 실무 리더에게 필요한 주제를 다루는 세미나와 북 토크 등을 팀 단위로 운영하는 멤버십 커뮤니티로 발전했다. 많은 인원이 듣는 대형 강연이 아니니 더욱 주제적으로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 HFK 운영진이 가장 중시하는 것이 바로 토론 문화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토론이 좋은 리더를 만들고, 직장 생활을 더 행복하게 변화시킨다고 믿는다.

3_유튜브

유튜브 역시 워커홀릭의 훌륭한 자기 계발 도구다. 일단 가성비가 좋다. 오고 가는 시간을 쓰지 않고도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 원하면 전문가들의 강연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 유튜브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 분야도 다양해 보다 실용적이고 즉각적인 학습이 가능해졌다. 직장·취업·업무 등 실무에 도움 되는 공부는 물론, 자신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문학, 시사 트렌드 공부까지 유튜브를 통해 충족하는 사람이 많다. 유튜브에서 영어 선생님한테 영어를 배울 수도 있고, 트레



이너의 영상을 참고해 운동을 시작할 수도 있다. 유튜브는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의 관심사에 맞춰 영상을 추천해주는 때문에 자기 계발을 복돋우는 역할까지 유튜브가 하는 셈이다. 어찌 됐든 요즘 일 잘하는 사람이라면 유튜브와 멀어져서는 곤란하다.



요즘사

‘요즘 것들의 사생활’의 줄임말이다. 흔히 이야기하는 정답 말고 마케터, 작가, 사업가 등 분야별 일잘러(일 잘하는 사람)를 연사로 초대해 각자 삶의 방식에 대해 말한다. 사생활 이라고는 하지만 먹고 노는 이야기가 아닌 일, 트렌드, 자기 계발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24시간을 나에게 최적화하는 법’, ‘나에게 잘 맞는 일이 따로 있는 이유’, ‘가짜 경험에 속지 말아야 하는 이유’ 등 일하는 이들이 궁금해할 만한 요즘 사람들의 경험담을 듣고 싶다면 참고해볼 것.



지식인사이드

건강, 의학, 과학,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인에게 전문 견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다. 자기 계발, 인간관계, 노후·은퇴 설계에 관한 전문가들의 조언과 글로벌 시사 이슈를 다룬다. 그뿐만 아니라 요리, 운동, 심지어 양치질 잘하는 방법까지 작고 소중한 정보를 대가들에게서 얻을 수 있다. 자신의 업무와 직결된 관련성은 없어 보여도 상식과 지식, 자기 능력의 토양을 넓히는 수단으로 참고해볼 적하다.

4_뉴스레터

하루 한 번 꾸준히 하는 자기 계발

롱블랙



매일 메일을 열어보는 것만으로 자기 계발을 도모할 수 있다. ‘롱블랙’은 커리어 성장에 도움 되는 각종 뉴스를 하루 한 번 보내주는 뉴스레터 서비스다. 이 서비스의 특이한 점은 오늘이 지나면 메일을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커리어를 성장시키고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태도

가 중요하다. 꾸준히 하지 않으면 값비싼 정보도 무용하다는 메시지가 롱블랙의 서비스 방식에 담겨 있다. 또한 하루에 콘텐츠 하나만 보내주기 때문에 그만큼 콘텐츠 밀도에 집중한다. 특히 자신의 분야에서 명성을 얻은 사람들이 전하는 일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가 분야를 막론하고 귀한 영감을 준다.

책상에서 혁명을 시작한다

디퍼

가구 브랜드 데스커에서 만든 뉴스레터다. 가구 신제품 소식을 전하는 건 물론 아니다. ‘디퍼’는 책상 앞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일하고, 만들고, 성장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레터다. 각 분야에서 성공적 커리어를 보여주고 있는 명사가 나와 자신이 책상 앞에서 하는 업무는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에 관해 이야기한다. 책상이라는 가구와 연결점이 있는 자기 계발 콘텐츠인 셈이다. 유명 인사가 책상 앞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 따라 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이 뉴스레터를 보고 워커홀릭이 점점 늘어날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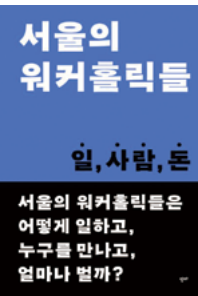


5_책

<일의 감각>

조수용 지음, REFERENCE BY B 펴냄

조수용은 네이버의 일명 ‘초록 검색창’을 디자인한 사람이다. 이 책은 카카오 공동대표를 지냈고, 매거진 발행인이자 광화문 D타워, 복합문화 공간 사운드스 한남의 공간 기획자이던 그가 쓴 첫 에세이다. 32년간 크리에이티브 영역에서 창조적이고 과감한 시도로 신뢰할 만한 결과를 보여준 그가 생각하는 일, 감각, 브랜드 등에 대한 고찰을 담았다.



<서울의 워커홀릭들>

홍정미 외 11인 지음, 인다 펴냄

일, 사람, 돈을 주제로 다소 노골적으로 워커홀릭 세계를 들여다본다. 서울에서 일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고, 누구를 만나고, 얼마나 벌까? 이 책은 확고한 취향과 신념으로 브랜드의 성공을 이끈 워커홀릭 12명의 목소리를 전한다. 결국 일은 늘 어려움의 연속이다. 저자들의 진솔한 경험담을 통해 위로를 얻고, 일을 보는 다양한 견해를 살펴볼 수 있다.



<린치핀>

세스 고딘 지음, 필름 펴냄

SI가 모든 산업을 잠식할 듯한 시대에서 오히려 S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그동안 순응하며 적응하는 인재를 원했다면, 지금부터는 일을 예술로 만드는 신인류가 필요하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린치핀’이란 맞물려가는 톱니바퀴를 고정하는 작은 핀처럼 조직의 핵심을 지탱하는 존재를 일컫는 말이다. 모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차이를 만드는 린치핀적 인간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한다. ●

경계를 넘는 음악가, 팝페라 테너 임형주

누군가에게는 이제 막 시작해도 좋을 나이,
그는 “That’s enough”라고 말했다. 음악만으로 빼곡히 채워진 삶,
그래서 더 깊어진 이야기. 천재 팝페라 테너 임형주다.

Writer: 강은진 Photo: 박충렬, 서울팝페라하우스

시대를 위로한 목소리

여전했다. 맑고 곧은 음색, 흐트러짐 없는 태도, 누구에게나 친절한 언어까지... 그는 여전히 무대에서 막 내려온 사람처럼 빛났다. 데뷔 30년을 눈앞에 둔 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그의 존재는 무르익은 대신 단단해져 있었다. 노래하는 사람 특유의 우아한 기품이 몸짓마다 배어 있었지만, 그마저도 그에겐 태어난 듯 자연스러웠다. 그 순간 알 수 있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팝페라테너 임형주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견뎌왔는지를.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의 영화가 아니었다. 팝페라라는 장르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고, 한국 음악 사 위에 올려놓은 시간이었다. 한국이라는 팝페라의 종주국에서 그 장르의 태동과 함께 스스로 기준이 되어야 했던 그는 늘 ‘처음’이고 ‘최고’여야 했다. 그 지난한 여정은 남들보다 훨씬 이른 열두 살부터 시작되었다.

“이제 3년만 더 지나면 데뷔 30년이 됩니다. 아직 마흔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웃음) 물론 아쉬움이 전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그래도 내일 당장 무대를 떠난다고

해도 미련은 없어요. 제 기준으로 최소한 90% 이상은 해낸 것 같거든요. 시간을 되돌린다 해도 그보다 더 잘해낼 자신은 없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That’s enough. 저는... 정말 충분히 했습니다.”

중후한 저음에서 맑고 청아한 고음까지 폭넓은 음역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임형주의 목소리는 클래식 기반의 성악 테크닉 위에서 있다. 정확한 벨칸토 호흡, 탄탄한 디션, 고음의 안정감은 그가 팝페라라는 장르를 단순한 퓨전이 아닌 하나의 독립된 음악 세계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이유였다. 그래서 그의 음색은 종종 ‘천상의 소리’라는 수식어로 불리며, 성악적 기준에서도 높은 완성도를 인정받았다.

기교보다 마음, 장르를 넘어선 울림

하지만 성악을 잘 몰라도 사람들은 그의 노래를 듣고 “예쁘다”고 말한다. 처음 듣는 이도 쉽게 빠져드는 소리. 단지 기술이나 타고난 음색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울림이 있다. 그의 노래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건 그 안에 배어 있는 아련함 때문이다. 어린 시절부터 감당해온 무게와 시간



하우스 콘서트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른 서울팍페라하우스 전경

“서울팍페라하우스는 국내 최초 팍페라 전용 공연장으로, 팍페라라는 장르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부터 무명의 아티스트까지 무대 경험을 충분히 제공해 세계 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싶습니다.”

이 음표 사이사이에 스며 있기 때문일 터.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노래를 들을 때 음악이라기보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기분이 된다.

“줄리아드 음대 예비학교 입학시험을 앞두고 만난 음악 관계자분에게서 오페라틱을 추천받았어요. 미국에서는 팍페라를 오페라틱 팝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크로스오버 장르에 가면 포스트 안드레아 보첼리가 될 수 있다고, 그런 과찬을 들으면서 시작하게 됐죠. 대중과 교감하고 호흡할 수 있는 클래식 아티스트가 꿈이었기에 이 장르를 과감하게 선택했습니다.”

임형주는 무엇보다 ‘대중과의 교감’이라는 가치를 높이 산다. 음악은 결국 사람에게 닿아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통을 따지는 이들로부터의 날 선 시선과 비판도 있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음악이 머물 곳이 대중의 마음이라면, 스스로의 클래식 커리어보다 그 선택이 더 옳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 믿음은 운명처럼 한 곡을 만나게 했다. 바로 ‘천 개의 바람이 되어’다.

이 곡은 그에게 단순한 레퍼토리를 넘어선 존재였다. 시대의 슬픔과 개인의 이별, 말문이 막히는 상실의 순간마다 이 노래는 조용한 위로가 되어주었다. 누군가는 “그건 임형주만이 부를 수 있는 곡”이라고 말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지 슬픔을 표현하는 기술이 아니라, 진짜 상실을 품은 사람만이 지닌 깊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이 곡은 한 사람을 넘어, 시간을 넘어 누구에게나 닿는 보편적 위로의 언어가 되었다.

문화 예술 CEO로 제2전성기

임형주는 단연 기록의 아이콘이다. 만 12세에 삼성뮤직에서 첫 독집 앨범을 발매하며 데뷔한 이후, 예원학교와 줄리아드 음대 예비학교 성악과 심사위원 만장일치 합격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정통 성악가로서 차근차근 커리어를 쌓아왔다. 2003년 팍페라 정규 1집으로 세계 무대에 존재감을 알렸고, 2005년에는 한국 클래식 음악가 최초로 일본 NHK 〈홍백가합전〉에서 트로피를 수상했다.



서울팍페라하우스 메인 공연장 '임형주홀' 전경. 무대 뒤로 북악산 전경이 펼쳐진다.

2010년에는 뉴욕 카네기홀 전 홀을 단독으로 채운 최연소 한국인 아티스트라는 기록도 세웠다. 무엇보다 2003년 고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식에서 헌정 사상 최연소로 애국가를 부르며 전 국민 앞에 이름을 각인시켰고, 2010년에는 UN 평화 메달을 받은 첫 한국인 음악가로 역사에 남았다. 데뷔 이후 그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최초’와 ‘최연소’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공연장이나 국가 행사장에 서만 만나던 그가 이번엔 인터뷰를 위해 TWO CHAIRS W 압구정을 방문했다. 광고 출연에도 신중한 그가 사기업 공간에서 인터뷰에 응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제 인생 첫 통장이 우리은행이었어요. 열두 살 때 삼성뮤직에서 첫 앨범을 내면서 만들었는데, 그 계좌로 방송 출연료부터 지금까지 모든 정산을 받고 있죠. 지금도 여전히 그 통장을 쓰고 있어요. 신용카드도 우리카드예요. 당시 이순우 행장님과의 인연으로 직접 발급해주셨는데, 그 기억이 참 특별하게 남아 있습니다.”

인터뷰 초반, 임형주는 그렇게 우리은행과의 인연을 조용히 꺼내놓았다. 격식 없이 담담한 말투였지만, 그 안엔 한결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의 진심이 배어 있었다. 그 순간 팍페라 테너를 넘어 기획하고 이끄는 사람, ‘문화 예술 CEO’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의 다음 행보는 서울팍페라하우스 개관과 맞닿아 있었다.

무대를 헌정하는 일

임형주는 로마 시립 예술대학 성악과 석좌교수이자 미국 그레미 어워즈 투표인단 겸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칼럼니스트와 라디오 DJ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예술과 대중을 연결하는 다채로운 행보를 이어왔다. 이력 자체가 하나의 ‘크로스오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제는 서울팍페라하우스 관장이자 예술 감독으로서 자신이 받은 것을 다시 사회



“오페라의 역사성과 클래식한 발성이 깃든 깊이 있는 힐링 음악이 바로 팝페라예요.”

에 건네는 예술적 환원의 길을 선택했다.

“6월 25일 방영된 EBS <이웃집 백만장자>를 통해 서울팝페라하우스가 처음 세상에 공개되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국내 최초의 팝페라 전용 공연장으로, 팝페라라는 장르를 넘어 하우스 콘서트의 새로운 레벨을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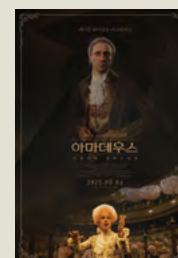
서울 종로구 세검정로에 자리한 서울팝페라하우스는 국내 최초이자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팝페라 전용 콘서트홀이다. 124석 규모의 메인 공연장 ‘임형주홀’과 문화 클래스, 세미나, 프라이빗 공연이 가능한 다목적 홀 ‘샬리가든 시어터’로 구성되어 있다. 임형주는 이 공간을 통해 단순한 공연장을 넘어 팝페라 장르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플랫폼으로 키워갈 계획이다. 개인 활동과는 별개로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무명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었으며, 신인 음악회와 콩쿠르 및 합창 클래스 등 교육과 기획이 함께하는 다층적 운영을 구상 중이다. 제2의 클래식 붐 속에서 장르

를 넘나드는 목소리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베이스캠프를 만들겠다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팝페라라는 장르는요, 오페라의 역사성과 헤리티지를 그대로 품고 있어요. 클래식한 발성과 표현이 베이스에 깔려 있기 때문에 깊이 있고, 듣는 분이 충분히 힐링할 수 있는 음악이에요. 조금 재미있게 말하자면, 팝페라는 정통 오페라나 클래식으로 들어가기 위한 교두보 같은 존재예요. 진입로죠. 클래식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엔트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팝페라의 매력을 이야기하는 임형주. 무대에서 노래하던 그는 이제 무대를 열어주며 노래의 이유를 다시 묻는다. 팝페라의 선구자, 크로스오버의 아이콘, 그리고 예술을 사회로 확장시키는 사람. 그의 목소리와 행보는 그렇게 또 하나의 크로스오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장르를 넘어, 역할을 넘어, 경계를 넘어온 임형주. 그는 앞으로 어디까지 갈까, 또 무엇을 해낼까? 그의 노래는 계속되고 있다. ●

임형주가 추천하는 한여름 밤의 영화 음악



<아마데우스 Amadeus>(1984)

‘신의 언어를 들은 자’ 모차르트를 둘러싼 질투와 경외의 심리극이다. 빈 왕실의 궁정 음악가 살리에리의 시선으로 그린 천재의 삶은 ‘피아노협주곡 20번 2악장’의 처연한 선율처럼 아름답고 또 비극적이다. 22번 협주곡, 하프와 플루트를 위한 협주곡, 대미사와 레퀴엠까지... 이 영화 한 편에 담긴 음악만으로도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충분히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마리아 Maria>(2025)

2025년 작 <마리아>는 마리아 칼라스의 마지막 일주일을 마치 한 편의 오페라처럼 4막으로 그려낸다. <일 트로바토레>의 ‘대장간의 합창’, <잔니 스키키>의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노르마>의 ‘정결한 여신’ 등 그녀의 삶을 관통한 아리아들이 조용히 흐른다. 무대가 존재의 이유였고, 음악이 삶의 전부였던 불멸의 소프라노. “준비가 끝나면 언제든지 다시 노래할 거예요” 그녀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원스 Once>(2007)

음악영화의 정석처럼 회자되는 전설적 작품. 무명의 음악가와 이민자 여성이 만나 우연히 함께 만든 단 한 곡의 노래. 특별한 장치 없이 대화하듯 이어지는 노래들이 두 사람의 마음을 대신한다. 특히 메인 테마곡 ‘Falling Slowly’는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 관객의 가슴을 적셨다. 화려한 사건도 무대도 없지만, 이 영화는 끝까지 음악만으로 관객을 붙잡는다.

우리은행 TWO CHAIRS × 가연결혼정보

결혼? 나의 가치 있는 선택
답은 가연



- **제휴서비스**: 「우리은행 × 가연 프레스티지 서비스」주1)
1년 이용 바우처 제공
- **제휴기간**: 24년 9월부터 26년 8월까지
(단, 선착순 100명 마감 시 조기 종료)
- **대상자**: 우리은행 TCE주2) 고객 중 희망고객
(단, 가연결혼정보 남녀 연령조건주3) 충족 限)
- **바우처 신청방법**: 우리은행 영업점 전담 PB/FA 통한
제휴서비스 이용 바우처 신청
- **서비스 가입 절차**: 바우처 수령 후 가연결혼정보 표준약관 및
회원가입절차에 따라 제휴서비스 제공
- **유의사항**: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주4) 및 외국 국적자
서비스 제공 불가, 바우처 양도 및 판매 불가

주1) 프레스티지 서비스: 담당 매니저 2대 1 전담관리, 결혼전제 만남추천, 정회원 전용 파티 초대 등

주2) TCE: 우리은행 고객분류 기준으로 순수개인 금융수신 6개월 평잔 10억이상 고객
(금융수신: 수신+신탁+수익증권(해외펀드포함)+방카슈랑스+청약저축+통장식CD+퇴직연금(DC)가입자적립금)

주3) 연령조건: (24년도 기준) 남성 94년생(30세)~59년생(65세), 여성 99년생(25세)~63년생(61세)

주4) 청탁금지법 대상자: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교사/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공무수행사인 및 그 배우자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칭 만족도 91.6% 23년 3월 1일~24년 5월 12일에 프로필 추천 완료한 회원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
[매칭 서비스 만족도 평가] 결과, 총 4개 평가등급 중 상위 2개 등급[매우만족, 만족]을 선택한 비율

가연결혼정보 전담상담센터 | 1666-5314

SENIOR &



삶에서 경험은 가장 큰 스승이며, 해안의 원천입니다.
지금껏 겪어온 다양한 경험과 앞으로 마주할
새로운 경험 속에서
현재 삶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해봅니다.

공주를 만나는 다섯 가지 방법

밤이면 금강 미르섬 너머로 금색 불을 밝힌 공산성의 자태가 드러난다.

박물관에는 무령왕릉의 신비가, 제민천이 흐르는 원도심에는
시인이 사랑한 마을이.... 공주를 아름답게 만드는 5곳을 소개한다.

Editor: 정상미 Photo: <SRT 매거진>, 환경DB

공주 메타세쿼이아길

높게 뻗은 메타세쿼이아가 바람을 가두어 싱그러운 길을 만든다. 정안천생태공원은 버려진 농경지를 시민과 공주시가 합심해 가꾼 곳으로, 지난 2011년에는 메타세쿼이아길이 새롭게 조성되었다. 약 500m 구간에 걸쳐 192그루의 메타세쿼이아를 만날 수 있는 이 길에는 보라색 맥문둥

꽃도 피어나 아름다운 계절을 장식한다. 정안천생태공원은 금강신관공원, 금강쌍신공원과도 연결되며, 백제쌍쌍공공 자전거를 이용해 하이킹에 나서기도 좋다. 공공 자전거는 전용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금강신관공원을 비롯해 주요 관광지 20개소에서 대여 및 반납이 가능하며, 1회 60분 무료, 그 이상 사용 시 반납 후 재사용할 수 있다.

📍충남공주시의당면 청룡리 905-1



마곡사

비취색 물빛 드리우는 백범교를 건너 마곡사 경내로 향한다. 5층석탑 앞에는 대광보전과 대웅보전이 차례로 자태를 드러낸다. 중심 법당인 대광보전은 부처의 진리를 상징하는 법신불과 비로자나불을 모신 건물로, 정확한 건립일은 알 수 없으나 불에 타버린 것을 조선 순조 13년(1813)에 다시 지었다.

대광보전 위쪽에는 석가모니불, 약사여래불, 아미타불을 모신 2층 목조건물의 대웅보전이 자리하고 있다. 2층에 있는 현판은 신라 시대 명필 김생의 글씨라는 설이 전해지기도 한다. 마곡사는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7개 사찰 중

하나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으며, 매월당 김시습 및 백범 김구 선생과도 인연이 깊다. 김시습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인 <금오신화>를 썼는데, 마곡사에 머물며 비운의 왕인 단종(조선 제6대 왕)의 님을 달래고자 했다. 세조는 김시습을 만나러 마곡사에 왔으나 이미 소식을 듣고 그가 몸을 피하자, 영산전에 친필 편액을 남기고 돌아섰다.

일제에 항거하며 마곡사에 잠시 은신한 백범 김구 선생은 광복 후 마곡사를 다시 찾아 그때를 회상하며 향나무를 심었고, 현재 백범당에서 선생의 발자취를 만날 수 있다.

📍충남공주시사곡면마곡사로 966

☎041-841-6221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표고 약 120m에 달하는 송산 남쪽 경사면에 백제 웅진 도읍기(475~538, 지금의 공주)에 조성된 고분 7기가 자리한다. 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이 일대는 ‘공주 송산리 고분군’으로, 1963년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무덤의 주인을 정확히 알 수 없어 1호분, 4호분 등 번호로 부르던 고분군의 주인이 마침내 밝혀진 것은 지난 1971년의 일이다. 6호분 무덤의 배수로를 파던 인부의 삽에 무령왕릉의 벽돌이 닿은 것이다. 도굴의 흔적 없이 1,500년을 잠자고 있던 무령왕릉에서는 백제 유물 총 108종 2,906점이 발견되었다. 특히 무령왕의 생전 이름인 사마왕과 승하한 연대가 적힌 묘지석은 무덤의 주인을 찾는 데 결정적 자료가 됐다. 삼국시대 왕의 무덤 중 그 주인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무덤으로, 국가유산청은 지난 2021년 사적 명칭을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으로 변경했다.

₩ 성인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000원

충남 공주시 왕릉로 37

☎ 041-856-3151



제민천

지방 2급 하천인 제민천은 총연장 4.21km로, 공주 시가지를 관통해 종착역인 금강으로 이어진다. 시가지 한복판을 흐르는 하천 연변에는 자연스레 주택과 상가가 들어서며 마을을 형성했는데, 담벼락에 새긴 영롱한 시와 레트로 감성 가득한 공주하숙마을까지 매력적이다. 제민천을 건너는 다리는 17개인데, 하숙마을을 기점으로 북쪽으로는 대통·반죽교가 나타나고, 걸어서 8분 거리에는 맛집들이 즐비한 공주산성시장으로 이어진다. 다시 남쪽으로는 중동·제민천·봉황교를 지나는데, 다리 아래로 공주를 상징하는 조형물과 쉼터가 자리해 낮과 밤 이색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풀꽃 시인으로 널리 알려진 나태주 시인은 공주를 ‘마음의 땅’이라 불렀다. 하숙마을에서 8분 거리에는 풀꽃 문학관이 자리해 또 다른 공주 여행의 묘미를 느낄 수 있다. 주말에만 운영하는 창작 플랫폼으로, 선생의 문학 세계를 엿볼 수 있다.

충남 공주시 당간지주길 21 공주하숙마을 일대



공산성

공주 여행의 포문을 여는 상징적인 곳. 지난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공산성은 백제의 웅진 시기(475~538)를 대표하는 산성이다. 고구려에 한성(서울)을 빼앗긴 백제는 웅진(공주)으로 도읍을 옮겨 혼란한 정국을 수습했으며, 무령왕 대에 이르러 왕권이 강화되고 백성의 생활도 풍요로워졌다. 이 시기를 가리켜 백제 웅진 시기라 일컫는다.

공산성은 동서로 약 800m, 남북으로 400m 정도의 장방

형 형태로 남문 진남루와 북문 공북루가 남아 있고, 1993년 터만 남아 있던 동문 영동루, 서문 금서루를 복원했다. 성벽에는 무령왕릉과 왕릉원 6호분에 남은 사신도를 재현한 깃발이 나부껴 공산성의 위엄을 더한다. 무령왕릉 발굴 50주년과 갱위강국(更爲強國) 선포 1,500주년을 맞아 지난 2021년 9월 금서루 앞 회전교차로에 무령왕 동상을 건립했다. 🌤

₩ 성인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000원

충남 공주시 금성동 53-51

☎ 041-856-7700



취미百서

[뜨개질]



〈산뜻한 계절의 감성을 담은 봄여름 뜨개〉
박옥민 지음 | 책밥 펴냄

가볍고 시원한 뜨개 옷과 액세서리 뜨는 방법을 알려준다. 지금 배워서 뜨기 시작하면 여름 다 지나서 완성되지 않겠느냐고? 올 여름은 더 길고 무덥다고 한다. 한낮의 더위를 피해 뜨개의 안온함에 빠져보자. 시원한 뜨개 옷은 덤.



〈아무튼, 뜨개〉
서라미 지음 | 제철소 펴냄

번역가의 뜨개 일지. 번역 원고 1매의 가치를 뜨개에 필요한 실이나 도구 가격으로 환산해 일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는 못 말리는 번역가의 뜨개 사랑이 담겨 있다. 번역 일과 겹쳐지는 뜨개의 세계에 관한 통찰이 새롭다.



〈뜨개하는 날들〉
박은영 지음 | 시공사 펴냄

뜨개를 직업으로 삼은 열 명의 이야기를 담았다. 뜨개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무궁무진하다. 이들의 뜨개는 가벼운 취미가 아닌 직업에 가깝지만, 즐겁게 그리고 진심을 다해 뜨개질하는 이들을 보면 취미도 일처럼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달리기]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무라카미 하루키 지음 | 문학사상 펴냄

무라카미 하루키를 만나면 그가 달리기 마니아라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그는 만약 달리를 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소설도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말한다. 이 책을 읽고 달리기 입문한 이가 적지 않은 만큼 건강관리를 하고 싶다면 한 번쯤 읽어볼 만하다.



〈30일 5분 달리기〉
김성우 지음 | 에이치비 프레스 펴냄

올림픽 챔피언 네 명을 배출한 명문 육상 캠프에서는 운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물론, 처음인 사람도 함께 배우고 달린다. 이 책은 달리기가 어려운 운동이라는 오해를 풀고, 일상의 좋은 습관으로서 달리를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한다.



〈마흔, 오늘부터 달리기〉
안병택 지음 | 틈새의시간 펴냄

재활 전문 물리치료가 쓴 건강 달리기 안내서. 저자는 어린 시절 귀신의 집에서 부리나케 도망친 것을 달리의 첫 기억으로 꼽는다. 그렇다. 인생 어느 시점에서나 달리는 '생존'에 꼭 필요하다. 이 책은 중년 러너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연초에 새로운 취미를 계획했으나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면 다시 심기일전해보자. 시작은 늘 어려운 법. 여전히 무언가를 배우기 전 관련 책부터 사는 이들을 위해 소개한다.

Writer. 한소영

[가드닝]



〈정원 가꾸기의 즐거움〉
헤르만 헤세 지음 | 반니 펴냄

“지금까지 내 정원을 가져본 적이 없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 책은 대문호 헤르만 헤세가 정원을 가꾸면서 세세히 기록한 글이다. 자신만의 정원을 갖고 싶거나 가꿀 계획이 있는 이에게 유용한 책이다.



〈정원의 쓸모〉
수 스튜어트 스미스 지음 | 월북 펴냄

정신과 의사인 저자가 정원이 인간의 마음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과학적으로 밝혀낸다. 저자는 정원이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정신을 치유하는 공간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내 맘대로 베란다 원예〉
이토 세이코 지음 | 플레이타임 펴냄

좁디좁은 베란다에서 정원을 가꾸는, 가드너가 아닌 자칭 '베란더'의 원예 일지다. 소설가인 저자가 매일 좁은 베란다에서 공공대며 식물을 돌본다. '베란더'라면 공감할 만한 이야기가 수두룩하다.

[빵]



〈빵-취급설명서〉
이케다 히로아키, 아마모토 유리코 지음 | 그린북 펴냄

빵 만드는 것이 취미가 될 수 있나? 물론이다. 이 책은 빵을 어떻게 굽고, 어떻게 자르며, 무엇과 곁들여 먹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알려준다. 빵 보관법을 비롯해 빵에 관한 모든 상식을 흥미롭게 펼쳐 보인다.



〈빵과 강아지〉
구와하라 나쓰코 지음 | 디자인이음 펴냄

요리 연구가인 저자는 매일 빵을 곁들인 아침 식사와 식사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반려견을 사진 찍고, 빵 정보와 빵 레시피 및 빵에 어울리는 음료와 잼 등을 기록했다. 당장 시도해보고 싶은 빵에 관한 아이디어가 가득하다.



〈과일 케이크 레시피〉
혼마 세츠코 지음 | 시원북스 펴냄

기념일에 내 손으로 특별한 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을 목표로 해보자. 일본 디저트 공방 아틀리에에이치Atelier H의 혼마 세츠코가 가게 노하우가 가득 담긴 과일 케이크 레시피 53가지를 책에 담았다. 🍰

시계,그이상의세계 워치스 앤 원더스 제네바 2025

전 세계 시계 업계의 가장 큰 축제로 꼽히는 ‘워치스 앤 원더스 제네바(Watches & Wonders Geneva)’가 올해도 어김없이 스위스 제네바 팔렉스포에서 열렸다. 시계 업계를 주도하는 세계 최고 시계 제조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그곳에서 마주한, 새롭고 강력한 시계를 소개한다.

Writer: 양정원(스위스 제네바) Photo: 각 사 제공

A. LANGE & SÖHNE

투명한 소리의 울림, 미닛 리피터 퍼페추얼

랑에 운트 직네는 극도로 복잡한 하이 컴플리케이션의 아름다움을 우아하게 피워냈다. 눈치챌겠지만, 미닛 리피터 Minute Repeater와 퍼페추얼 캘린더 Perpetual Calendar를 결합한 시계다. 케이스 측면의 통합된 슬라이드를 작동하면 시간은 낮은 톤, 15분 단위는 이종 톤, 나머지 분 단위는 높은 톤의 독특한 음향이 울려 퍼진다. 서로 다른 음조로 매력적인 듀엣을 이루는 2개 공은 12시간 주기로 매분 하나씩, 총 720가지의 각기 다른 시퀀스를 구현한다. 미닛 리피터의 작동 및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스트라이킹 메커니즘에는 시간과 분 간격 스트라이크 사이의 공백을 없애는 일시 중지 제거 기능을 비롯한 정교한 장치를 추가로 적용했다. 화이트 골드에 블랙 에나멜을 채워 완성한 다이얼은 글로시하게 마감해 깊이감 있는 광택이 돋보인다. 12시 방향에는 상징적 아웃사이드 날짜 창이 자리한다. 9시 방향에서 요일과 24시간을, 3시 방향에서 월과 윤년을, 6시 방향에서 스몰 세컨즈와 문페이즈를 표시한다. 문페이즈의 2개 달은 모두 화이트 골드로 제작하고, 수작업으로 새긴 100개 별이 아름답게 빛나며, 지름 40.5mm 케이스는 진귀한 플래티늄을 사용했다. 50점 한정 생산.



BVLGARI

울트라 썬의 새로운 기록, 옥토 피니씨모 울트라 투르비용

올해 워치스 앤 원더스에 처음 참가한 불가리가 세계에서 가장 얇은 투르비용 시계라는 타이틀을 다시금 탈환했다. 2014년 1.95mm 두께의 매뉴얼 무브먼트를 선보인 후 10년 만에 출시한 세계에서 가장 얇은 투르비용 시계로, 열 번째 울트라 썬 기록이다. 불과 1.85mm 두께의 옥토 피니씨모 울트라 투르비용 Octo Finissimo Ultra Tourbillon은 단순히 ‘초박형 구조’의 기록을 경신한 것을 넘어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메종은 이 경이로운 두께를 만들기 위해 무브먼트를 일체형으로 통합했다. 텅스텐 카바이드 소재의 메인 플레이트는 케이스 역할을 하며 무브먼트를 품고 있다. 여기에 더욱 정교한 스켈레톤 가공 처리해 무브먼트 전체에 빛의 확산을 극대화했다. 팔각형 케이스와 러그, 브레이슬릿은 마이크로비드-프로스티드 티타늄 Microbead-frosted Titanium으로 제작했다. 케이스 측면의 8시 방향 크라운은 와인딩을, 3시 방향 크라운은 시간 조정을 담당한다. 크라운과 10시 방향의 동력을 측정하는 기하학적 문양의 래칫은 스틸로 완성했다. 브레이슬릿 역시 얇게 매만졌는데, 폴딩 버클을 포함한 총두께가 단 1.5mm다. 시계의 심장은 42시간 파워 리저브를 지원하는 수동 칼리버 BVF 900이다. 20점 한정 생산.



시간을 읽는 새로운 방식, 까르띠에 프리베 탱크 아 기쉐

까르띠에는 매년 역사적 모델 중 하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극적으로 부활시키는 까르띠에 프리베(Cartier Privé) 컬렉션을 선보인다. 이 컬렉션은 각각의 시계에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생산량을 극소량으로 제한해 시계 애호가들이 가장 기대하는 컬렉션이기도 하다. 올해 주인공은 1928년 처음 등장한 탱크 아 기쉐(Tank à Guichets). 핸즈 없이 오직 2개 창(‘기쉐’는 프랑스어로 창을 의미한다)을 통해 시와 분을 표시하는 탱크 아 기쉐는 탱크 컬렉션의 유구한 역사를 돌이켜볼 때 가장 특이하고 독보적인 컬트 시계로 꼽힌다. 2025년 탱크 아 기쉐는 두 가지 새로운 라인업으로 선보인다. 하나는 12시 방향에 시간 표시 창, 6시 방향에는 분을 나타내는 드래깅 미닛 창을 배치한 모델로 최초의 탱크 아 기쉐를 꼭 닮았다. 옐로 골드, 핑크 골드, 플래티넘 세 가지 소재로 출시하며, 각 케이스와 어울리는 컬러를 디스크와 스트랩에 반영했다. 또 다른 하나는 플래티넘 소재에 고유 번호를 부여한 200점 한정 생산 모델로 10시와 11시 사이에 시간, 4시와 5시 사이에 드래깅 미닛 창이 마주 보며 각을 이룬다. 2개 창이 사선으로 배치된 이 디자인은 풍부한 창의성과 미학적 혁신이 절정을 이룬 1930년대를 기념한다. 오리지널 모델과 마찬가지로 다이얼 플레이트는 러그까지 하나로 매끈하게 통합하고, 크라운은 12시 방향에 자리한다. 공통적으로 케이스는 가로세로 24.8×37.6mm, 두께는 6mm. 시계의 심장은 새로운 탱크 아 기쉐를 위해 완전히 새롭게 개발한 매뉴얼 와인딩 방식의 무브먼트 9755MC다. 참고로, 방수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

CARTIER

© Cartier © Valentin Abad



CHOPARD

기술적 정교함과 미학적 아름다움의 조화, 디아망트 문페이스

디아망트 컬렉션 최초로 문페이스가 등장했다. 지름 35.75mm의 디아망트 문페이스 L'Heure du Diamant Moonphase는 공정 채굴 방식으로 생산한 윤리적 화이트 골드 소재로 제작하고, 탑재한 칼리버 09.02-C의 지름은 20.4mm, 두께는 4.6mm다. 9시에서 12시 사이 블루 어벤추린 디스크는 달의 궤도를 정밀하게 표시하는데, 쇼파드 장인들이 직접 조정해 천문학적 정확도를 자랑한다. 장인들은 문페이스를 더욱 아름답게 구현하기 위해 우주의 빛에서 영감을 받은 장식을 더했다. 이 시계가 더욱 신비롭게 느껴지는 것은 블루 어벤추린 다이얼 덕분이다. 별이 반짝이는 듯 은은한 빛은 은하의 광활함과 경이로운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다이얼을 둘러싼 다이아몬드는 슈펠레 가족의 고유한 주얼리 위치 제작 기술인 크라운 세팅 기법을 적용해 빛을 극대화했다. 이 세팅 기법은 칼 슈펠레가 개발한 V자형 프롱 방식으로 다이아몬드를 지탱해 최대한 빛

을 통과시키며, 금속의 불투명성 없이 다이아몬드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형태의 유희, 식스티

피아제는 ‘형태의 유희(Play of Shapes)’라는 키워드로 메종의 개성 넘치는 시계를 재조명했다. 워치스 앤 원더스에서 베일을 벗은 여성 컬렉션 식스티Sixtie는 예술성과 대담함의 여정을 상징하는 트라페즈Trapezoid 디자인을 새롭게 해석했다. 부드러운 관능미가 돋보이는 기하학 형태는 1969년 21세기 컬렉션을 장식한 스윙잉 쏘뜨와Swinging Sautoirs를 떠올리게 한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1960년대를 풍미한 화려하고 자유분방한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전위적이고 과감하면서도 고상하고 우아한, 상반된 매력을 동시에 보여준다. 트라

페즈 형태의 케이스에 정교하게 두른 거드룬Gadron 장식은 오늘날 디자인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앤디 워홀 위치를 연상시키며, 1970년대 이브 피아제의 인맥을 중심으로 형성된 피아제 소사이어티, 당대 젯셋족이 매료된 피아제의 대담한 현대 미학을 상징한다. 은은하게 새틴 마감한 다이얼은 큼지막한 로마숫자 인덱스, 로고, 핸드로 마무리했다. 사각형 링크와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은 곡선형 링크를 유연하게 조합한 브레이슬릿은 1960년대를 수놓은 피아제의 커프Cuff 시계를 연상시킨다. 케이스는 가로세로 29×25.3mm로, 스틸과 핑크 골드, 다이아몬드 세팅 등 다양한 버전으로 선보인다.

VACHERON CONSTANTIN

가장 복잡한 손목시계, 캐비노티에 솔라리아 울트라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라 프리미에르

시계 역사상 가장 복잡한 기계식 손목시계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올해 창립 270주년을 맞아 총 13건의 특허를 출원한 캐비노티에 솔라리아 울트라 그랜드 컴플리케이션-라 프리미에르 Les Cabinotiers Solaria Ultra Grand Complication-La Première로 기염을 토해냈다. 1,521개 부품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칼리버 3655는 두께가 단 14.99mm에 불과한 지름 45mm의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탑재돼 진정한 소형화의 기술적 위업을 달성했다. 총 41가지 기능을 품은 이 걸작은 세계 최초의 컴플리케이션을 포함한 다섯 가지 천문학적 기능을 갖추고, 웨스트민스터 차임 메커니즘을 장착한 미닛 리피터로 일곱 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메종은 이를 위해 8년간 연구 개발에 매달렸다. 각각에 특화된 기어 트레인을 사용해 상용시(앞면 다이얼의 중앙 핸즈), 태양시(앞면 다이얼 6시 방향의 카운터), 항성시(백케이스)를 동시에 표시하며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앞뒤 양면 더블 사이드 구조로 41가지 기능을 우아하고 가독성 있게 통합한 탁월한 디자인은 메종만의 공력이다. 앞면 다이얼에는 각각 최대 5개 컴플리케이션을 표시하는 2개 카운터를 포함한 총 4개 카운터를 배치하고, 백케이스에는 스카임 맵과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결합했다. 칼리버 3655 전체에 대해 극단적 수준으로 소형화 작업을 진행한 만큼 작은 디테일까지 세심하게 매진한 것도 특징이다. 매혹적인 무브먼트 구조가 더욱 돋보이도록, 부품 장식에는 서클링부터 새틴 폴리싱까지 아홉 가지 유형의 마감 기법을 적용했다. ●

포천힐스골프클럽

산악형 코스의 묘미를 담은 야간골프의 성지

수도권에서 1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포천힐스 CC는 파워만으로 정복할 수 없는 전략적 조형으로 다채로운 코스 공략이 가능한 곳이다. 덕분에 KLPGA 투어를 치르며 다양한 코스에서 수많은 명장면을 남겼다.

Writer: 조수영 한국경제신문 기자 Photo: 포천힐스골프클럽

위터해저드로 둘러싸인 그린으로 날카로운
웨이 샷이 필요한 가든 코스 4번 홀

커다란 위터해저드에 자리 잡은 5개 바위섬. 서울 잠실에서 구리~포천고속도로를 타고 40분 정도 달리면 닿을 수 있는 경기도 포천의 포천힐스 CC에는 ‘작은 하롱베이’가 있다. 팰리스 코스 6번 홀(파 4). 에메랄드빛 바다에 1,600여 개 기암괴석이 수놓여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된 베트남의 하롱베이와 꼭 닮았기에 이 홀에도 ‘하롱베이 홀’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티 구역에 들어서면 물과 바위가 어우러진 모습에 라운드의 피로를 잠시 잊게 된다. 화이트 티 기준 홀까지 전장 314m. 위터해저드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어 바위를 훌쩍 넘겨야 한다는 부담도 적지 않다. 레드 티는 위터해저드 측면에 자리 잡고 있어 이 절

경을 온전히 즐길 수 없는 아쉬움이 있기에 동반자들이 티 샷을 하는 동안 명품 뷰를 감상한 뒤 티 구역으로 옮겼다.

한국 산악 지형의 묘미를 담은 코스

포천힐스 CC는 가든, 캐슬, 팰리스 코스로 구성된 27홀짜리 대중형 골프장이다. 정원을 거쳐 성을 지나 궁전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 중 가든과 팰리스 코스는 2019년부터 한국여자프로골프 KLPGA 투어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이 열리는 대회 코스다. 전략적 코스 공략과 정확한 샷을 요구하는 코스이기에 KLPGA 투어에서도 수많은 명장면과 스타를 만들어내는 대회로 꼽힌다. 지난해부터는 총상금을 14억원으로 크게 올리며 메이저급 대회로 도약했다.

이 골프장의 최대 장점은 접근성이다. 구리~포천고속도로 포천 나들목^{IC}에서 차로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고, 수도권에서 1시간 안팎이면 닿을 수 있다. 덕분에 30~40대 골퍼들이 사랑하는 야간골프의 성지 중 하나이자, 산악형 코스의 묘미를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오르막과 내리막으로 언듈레이션이 꽤 있고, 일자로 쭉 뻗은 레이아웃보다 좌우 도그레그 코스가 많아 전략적으로 코스 공략을 해야 한다. 특히 고지대에 자리 잡은 캐슬 코스는 숲속에서 라운드를 하는 매력을 느낄 수 있다. 홀 레이아웃도 개성 있어 다채로운 코스 공략이 필요하다.

페어웨이와 로프에는 중지(한국 잔디)를, 그린에는 벤프그라스를 깔았다. 힘 좋고 잎이 넓은 중지 페어웨이여서 공을 탄탄하게 잘 잡아준다. 여성 골퍼라면 세컨드 샷에서 우드로 좋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코스다.

티샷 정확도가 스코어를 결정한다

하롱베이 홀은 이런 포천힐스에서 ‘얼굴’로 꼽힌다. 특별히 난도가 높지는 않다. 티샷 때 넓은 호수와 바위를 넘겨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페어웨이가 넓찍하고 살짝 왼쪽으로 흰 홀을 잘 공략하면 중수 이상의 아마추어 골퍼가

대한민국 시그너처 홀

대한민국에는 540개가 넘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골프장에는 오너와 설계자가 가장 공들여 조성한 골프장의 ‘얼굴’이라 할 만한 홀이 있습니다. 적개는 18홀, 많게는 81홀 가운데 가장 멋진 딱 한 홀, 바로 ‘시그너처 홀’입니다. 명문 골프장의 명품 홀을 소개합니다.



1,2 포천힐스 CC의 '얼굴'인 팰리스 코스 6번 홀. 커다란 호수에 5개 암석이 떠 있어 '하룻배이 홀'로 불린다.
3 포천힐스 CC 클럽 하우스 전경
4 세컨드 샷에서 호수 위 그린을 공략해야 하는 가든 코스 7번 홀

파를 잡기 어렵지 않은 홀이다. 지난해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에서도 출전 선수들의 이 홀 평균 타수는 4.06타였다. 이글은 없었지만 버디는 29개, 보기는 52개가 나왔고, 더블보기 이하를 친 선수는 없었다. 그래도 아마추어 골퍼는 방심하면 안 된다. 일단 심리적 부담을 넘어서서 티샷으로 캐리 거리를 어느 정도 내야 하는 데다 왼쪽으로 휘도그레그 홀이기에 티샷이 왼쪽으로 감기면 세컨드 샷 지점에서 그린에 보이지 않아 부담이 커진다. 오른쪽으로 밀리면 그만큼 그린에서 멀어진다.

작년 이 대회에서 박현경과 치열한 혈투를 벌이며 KLPGA 투어 스타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한 윤이나가 발목을 잡힌 곳이 이 홀이었다. 최종 라운드에서 직전 13번 홀까지 버디 8개를 몰아치며 내달린 그는 이 홀에서 티샷이 페어웨이 왼쪽 벙커에 빠졌다. 벙커에서 투온을 노렸지만 그린에 미치지 못했고, 결국 스리온 투퍼트, 보기를 기록했다. 이 홀 보기 이후 버디 행진이 끊긴 그는 17번 홀에서도 보기를 더하면서 연장으로 끌려갔고, 네 차례의 연장전 끝에 박현경에게 트로피를 내줘야 했다.

화이트 티에서 동반자들의 티샷을 응원하며 '작은 하룻배이'를 충분히 감상한 뒤 레드 티로 왔다. 티샷이 오른쪽으로 살짝 빠지면서 페어웨이 끝 러프에 걸렸다. 핀까지 거리는 120m. 7번 아이언으로 그린을 노렸지만 살짝 짧았고, 어프로치 뒤에 투퍼트, 보기로 돌아왔다.

KLPGA 투어 역대 최고 시청률 만든 코스

5년간 KLPGA 투어 대회를 치른 코스이기에 명장면을 남긴 홀도 많다. 대회에서 12번 홀로 진행되는 팰리스 코스 3번 홀(파 4)은 이 골프장에서 가장 어려운 홀이다. 화이트 티 기준 341m, 레드 티에서는 319m의 긴 파 4 홀로, 티에서 그린까지 왼편으로 커다란 워터해저드가 자리 잡고 있어 웅장함과 시원함을 준다. 하지만 그만큼 수많은 선수들이 이 홀에서 타수를 잃었다. 지난해 대회에서 네 번의 라운드 동안 이글 이상은 단 한 명도 기록하지 못했고, 버디도 32개에 그쳤다. 대신 보기는 95개, 더블보기 6개에 트리



플보기로 무너진 선수도 1명 있었다. 이 홀은 페어웨이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왼쪽에는 워터해저드가 입을 벌리고 있다. 러프 공간이 많지 않아 샷이 조금만 감겨도 공이 내리막을 타고 물속으로 사라진다. 오른쪽으로 밀리면 긴 풀에 공이 잠긴다.

페어웨이 폭은 고작 15m. 그렇다고 우드를 잡을 수도 없다. 전장이 긴 데다 그린에 땅에서부터 사람 키만큼 높이 있다. 일단 멀리 때려놓고 세컨드 샷을 아이언으로 공략해야 그린에 공을 세울 기회가 생긴다. 페어웨이에 공을 보내도 그린에 공을 세우는 것이 만만치 않다. 그린에 높은 경사면에 자리 잡은 데다 앞에는 실개천이 흐르기 때문.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 박현경은 오히려 이 홀에서 버디를 잡으며 우승을 위한 결정적 기회를 잡았다. 전반에 1타를 줄이는 데 그치며 답답한 흐름을 보였던 그는 이 홀에서 티샷을 안전하게 페어웨이 왼쪽으로 보내고, 세컨드 샷에서 아이언을 잡고 그린 한가운데로 공을 보냈다. 그리고 10m 버디를 잡아내며 윤이나와의 격차를 줄였다. 이후 남은 홀을 파로 풀어간 그에게 이 홀의 버디는 천금 같은 가치였던 셈이다. 18번 홀(파 5)은 지난해 KLPGA 투어 최고의 명승부가 펼쳐진 무대다. 오른쪽으로 살짝 흰 이 홀은 화이트 티 기준 445m, 레드 티 기준 405m로 길지 않은 파 5다. 특히 대회 최종 라운드에는 조직위원회가 선수들의 도전적 플레이를 끌어내기 위해 티 구역을 바짝 앞으로 당겨 투온



을 유도했다. 하지만 이글이 쉽지는 않다. 작년 대회에서 이 홀에서 이글이 단 한 개도 나오지 않았다. KLPGA 투어 최고 스타인 박현경, 윤이나, 박지영이 이 홀에서 펼친 연장전은 지난해 KLPGA 투어 최고의 명승부로 꼽힌다. 'SBS 골프'에 따르면 이 대회 시청률은 2.683%로 치솟았고, 박현경과 윤이나의 최종 대결로 압축된 순간에는 3.405%까지 찍었다. 박현경과 윤이나는 4차 연장전까지 혈투를 펼쳤다. 둘의 경쟁으로 압축된 3차 연장에서는 나란히 버디를 잡았고, 이어진 5차 연장에서 박현경이 우드로 친 두 번째 샷을 그린에 올려 버디를 잡으면서 '행운의 언덕' 여왕을 차지했다. 올해는 8월 넷째 주로 대회 시기를 옮겼다. 21일부터 나흘간 총상금 14억원을 걸고 최고의 스타를 가린다. ●



Information

규모 27홀 150만㎡(7,200야드)
주소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반월산성로375번길 34
그린 피 주중, 주말, 계절에 따라 상이
(15만~20만원 전후)
문의 031-538-7000
홈페이지 www.fortunehills.co.kr



순서가 만든 파워 아웃-인을 고치는 다운스윙 공식

스윙할 때 힘을 주면 헤드 스피드는 빨라지지만 잘못된 순서에서 나온 힘은 공에 제대로 실리지 않는다. 다운스윙 시 시작 순서만 바뀌도 스윙 에너지의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다.

Writer. 오진동 Photo. 오진동, 프리픽

많은 아마추어 골퍼가 흔히 범하기 쉬운 스윙 궤도 중 하나는 바로 아웃-인^{Out-to-In}이다. 아웃-인 스윙이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비거리 측면에서는 치명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공을 정확히 맞히는 것 같은데도 비거리가 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단순한 힘의 부족이 아니라 스윙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방향, 즉 스윙 궤도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스윙은 공이 잘 맞아 정확한 방향으로 진행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동작이다. 축을 중심으로 한 회전운동인 만큼 축이 흔들리지 않아야 원심력과 구심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올바른 스윙은 공의 파워와 스피드를 극대화하고, 일관성 있는 볼 콘택트와 방향성까지 높일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올바른 스윙 궤도를 그리도록 하는 것은 골프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아웃-인 궤도를 구사하는 골퍼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다운스윙 시작을 어깨 회전이나 과도한 허리 회전 등 상체의 움직임으로만 한다는 것이다. 또 스윙 과정에서 상체를 너무 빨리 돌려도 아웃-인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클럽을 자연스럽게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경로로 유도하며, 결국 아웃-인 궤도를 고착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 결과 임팩트 시 스윙 에너지의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비거리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이다.

해결의 열쇠는 다운스윙 순서에 있다

인-아웃 궤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윙 자체를 역지로 고치기보다 다운스윙의 시작 순서만 바꿔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핵심은 하체부터 순차적으로 리드하는 움직임이다. 대부분의 아웃-인 골퍼의 경우 상체의 과도한 사용이 그 원인이 되는 까닭이다. 다운스윙 시 하체, 정확히는 왼쪽 골반과 무릎의 리드로 시작하면 교정이 가능하다. 왼쪽 무릎이 타깃 방향으로 살짝 선행되며 골반이 자연스럽게 회전하기 시작하면 몸의 회전 공간도 확보되고, 그에 따라 클럽은 자연스럽게 몸 안쪽 경로로 떨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상체는 급하게 따라가지 않고 한박자 늦게 따라오는 듯한 리듬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 리듬이 만들어지면 결과적으로 인-아웃 스윙 궤도가 형성되고 드로 구질, 비거리 향상, 일관된 임팩트라는 세 가지 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다운스윙 순서를 바꿔 비거리를 늘리는 연습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Training 1 야구 스윙처럼 왼쪽으로 체중 이동

백스윙 톱을 만든 후 마치 야구 경기의 타자처럼 왼발을 지면에서 살짝 들어준다. 이때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되므로 흔들리지 않을 만큼만 가볍게 들어준다. 그리고 왼발을 디디듯이 지면에 내리면서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누르는 듯한 느낌을 준다. 감이 잘 오지 않는다면 왼발 엄지발가락에 힘을 준다는 생각으로 동작을 진행해보자. 이러한 동작은 체중을 왼쪽, 즉 타깃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시킬 수 있게 만든다.

Training 2 손은 수직으로 떨어뜨린다

트레이닝 1의 동작을 실행하는 것과 동시에 손도 움직인다. 손을 먼저 던지거나 휘두르기보다 왼발을 디디는 타이밍에 맞춰 손도 위에서 아래로 툭 떨어지는 동작이 나와야 한다. 마치 망치질하듯 수직으로 내려준다는 느낌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손과 몸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체 리드 → 상체 회전 → 손 낙하 순서가 만들어진다.

Training 3 수평 포지션에서 복부 회전

이전 단계에서 왼발의 디딤과 함께 체중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손이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다운스윙의 시작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클럽이 허리 높이에서 지면과 수평을 이루는 시점이다. 이 타이밍이 바로 회전의 전환점이다. 이 시점에서 하체는 이미 리드 역할을 마친 상태이며, 이제는 골반과 복부를 중심으로 상체를 끌고 나가는 회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골퍼가 이 동작을 ‘허리 회전’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복부 회전’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효과적이다. 복부 회전은 단순히 허리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몸통 전체, 특히 코어 중심을 회전축 삼아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면 회전 시 척추각이 유지되고, 스윙의 안정성이 생기는 동시에 파워가 살아난다.

Training 4 구분 동작 → 슬로모션 연결

앞의 트레이닝 방법들을 구분 동작으로 체크하면서 천천히 자연스럽게 연결해본다. 백스윙 톱에서 왼발을 살짝 들며 중심 이동을 느껴본다. 그다음 왼발을 디디는 동시에 손을 수직 낙하하고, 클럽이 허리 높이에 오면 복부 회전을 시작한다. 각 단계별 동작마다 잠시 멈추고 정확하게 되도록 반복 연습한다. 구분 동작 연습 시 빈 스윙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 이렇게 멈추고 다시 시작하는 동작 전부를 1회로 보고 총 10회씩 3세트 연습한다.

연습을 했다면 이제 슬로모션으로 각 동작을 연결시킬 차례다. 이때 공을 절대 빠르게 치려 하지 말고 리듬과 순서에 집중하면서 클럽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하는 연습을 한다. 구분 동작을 기억하면서 천천히 공을 맞추고 폴로스루 지점에서 정지한다. 이러한 슬로모션 동작을 1시간 이상 혹은 하루 60개 이상의 공을 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 같은 연습은 스윙 메커니즘을 몸에 새기는 데 필수 동작들이고, 프로도 반복해서 하는 기본 훈련이다. ●



요약 Point

1. 다운스윙 시작은 왼쪽으로의 체중 이동이 가장 먼저다.
2. 체중의 이동과 동시에 손과 팔을 수직으로 떨어뜨린다.
3. 허리 높이쯤 샤프트가 수평이 되는 지점에서 복부를 회전시킨다.



여름의 달콤한 유혹 특급 호텔에서 만난 빙수

이젠 빙수도 호텔에서 즐기는 시대다. 주변에서도 쉽게 맛볼 수 있지만 분위기와 서비스까지 더한 프리미엄 빙수를 맛보기 위해서다. 전통 팔빙수부터 샴페인 빙수까지 각 호텔만의 개성이 담긴 빙수를 모았다.

Editor: 지연 Photo: 각 호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비라운지 & 바, ‘벨 에포크 샴페인 빙수’

호텔 빙수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스몰 럭셔리가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부터다. 진정한 스몰 럭셔리를 즐기길 원한다면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를 방문해보자. 기존 빙수에 샴페인의 독특함을 더한 이색 빙수를 만날 수 있다. 프랑스 샴페인 브랜드 페리에 주와 협업해 ‘벨 에포크 샴페인 빙수’를 선보인 것. 샴페인을 활용한 분자 요리 기법과 오브제 수준의 비주얼을 완성한 벨 에포크 샴페인 빙수는 샴페인을 열려 만든 샴페인 그라니타와 입안에서 상큼하게 터지는 샴페인 스피어를 더해 벨 에포크 특유의 플로럴 향과 청량감을 입체적으로 표현했다. 눈처럼 고운 우유 얼음 위에는 실크처럼 부드러운 식감의 아보카도 코코넛 아이스크림과 꽃처럼 정교하게 조각한 테트드 무안 치즈, 크림미한 아보카도 슬라이스가 어우러지며, 브리 치즈 케이크와 장미·복숭아·배를 블렌딩한 프루티 인서트와 풍미를 완성한다. 빙수와 함께 제공되는 아보카도 크림 소스, 코코넛 콘디먼트도 맛의 깊이를 더해준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는 샴페인 빙수 외에도 제주 애플망고 빙수, 시그너처 썬 빙수, 아사이베리 빙수까지 다양한 종류의 빙수를 맛볼 수 있다.

가격 15만원 문의 02-559-7603

포시즌스 호텔 서울 마루, ‘마루 빙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여름, 도심 속 여유와 품격을 느끼고 싶다면 포시즌스 호텔 서울을 방문해보자. 여름이면 호텔의 시그너처 디저트로 자리 잡은 빙수를 만날 수 있다. 한국 전통 디저트인 팔빙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마루 빙수’는 부드럽게 간 우유 얼음을 베이스로, 층층이 쌓인 수제 통팔 페이스 트가 깊은 단맛을 선사한다. 그 위에 얹힌 바닐라 상티 크림과 말차 크림은 달콤함과 은은한 씹쓸함 사이의 세련된 조화를 완성하며, 여기에 마루의 전통 한옥 창살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화이트 초콜릿 장식으로 시각적 즐거움을 더했다. 함께 제공하는 연유와 수제 팔 페이스트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바닐라와 말차, 팔이 어우러진 달콤하면서도 씹새로운 맛의 궁합은 이미 어느 정도 상상이 될 것이다. 빙수로도 그 맛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다면 마루를 방문해보자. 9월 30일까지 맛볼 수 있다.

가격 8만9,000원(세금 및 봉사료 포함) 문의 02-6388-5500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 더 아트리움 라운지, ‘애플망고 빙수’

특급 호텔 빙수의 클래식으로 꼽히는 ‘애플망고 빙수’는 이제 여름에 한 번쯤 맛보지 않으면 서운할 정도로 여름 시즌 대표 디저트로 자리 잡았다. 차별화된 다양한 빙수를 선보이는 다른 호텔과 달리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은 애플망고 빙수 하나에 집중해 그 완성도를 높였다. 부드럽게 갈아낸 눈꽃 같은 우유 얼음 위에는 진한 애플망고 시럽과 신선한 애플망고 알갱이가 어우러져 은은한 과일 향기를 자아낸다. 특히 한 입 떠먹는 순간, 입안을 가득 채우는 시원하면서 달콤한 맛은 무더운 여름에만 느낄 수 있는 작은 행복이다. 주변에는 얇게 슬라이스한 신선한 애플망고들이 화려한 비주얼을 더하고, 상큼함과 달콤함으로 진한 만족감을 선사한다. 빙수의 한가운데에는 톡톡 튀는 코코넛 젤리가 숨어 있어 다채로운 식감을 느낄 수 있다. 쫄쫄하면서도 톡톡 터지는 식감과 코코넛 특유의 고소함이 애플망고의 달콤함과 어우러지며 깊은 풍미의 조화를 완성한다. 이 하나로 여유롭고 우아한 여름의 맛을 느껴보고 싶다면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의 애플망고 빙수는 그 기대를 뛰어넘는 특별한 선택이 될 것이다.

가격 11만원 문의 02-3395-6000



더플라자 더 라운지, ‘우도 땅콩 팔빙수’

클래식은 영원하다. 최근 과일을 이용한 이색 빙수가 많지만, 팔과 함께 먹는 전통적 팔빙수의 매력은 여전하다. 더구나 팔빙수는 K-디저트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에게도 만족도가 높다. 더 플라자에서는 2023년부터 꾸준히 ‘우도 땅콩 팔빙수’를 선보이고 있다. 호텔에서 맛보는 팔빙수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 고운 우유 얼음 위에 셰프가 우도산 땅콩을 직접 갈아 만든 수제 아이스크림을 올려 한층 더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여기에 수제 팔양갱과 감말랭이, 인절미 등 토핑을 곁들이면 클래식한 팔빙수의 맛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다. 토핑이 부족할 경우 추가 주문할 수 있으며, 빙수는 한국 전통 식기인 놋그릇과 나무 트레이에 담아 K-디저트의 전통적 느낌을 그대로 살렸다. 그 밖에도 망고 빙수와 올해 첫 출시한 블루베리 빙수는 요거트 아이스크림에 제철 블루베리를 풍성하게 담아 보는 재미를 더한다.

가격 6만5000원 문의 02-2270-3101

웨스틴 조선 서울 라운지 & 바, ‘수박 빙수’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대표 과일로 수박을 빼놓을 수 없다.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는 수박을 활용한 빙수를 선보이고 있다. 매해 여름 꼭 한 번쯤 먹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마니아층을 보유한 웨스틴 조선 서울의 시그너처 디저트다. 수박이 갈증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만큼 웨스틴 조선 서울의 ‘수박 빙수’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해장 디저트이기도 하다. 특히 과육이 묵직한 과일 빙수나 너무 달콤한 빙수가 부담스럽다면 수박 빙수를 추천할 만하다. 달콤한 천연 수박 과즙을 얼음으로 얼려 빈틈없이 소복하게 올리고, 동그랗게 만든 수박 과육을 더해 우유에 예민한 사람도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다. 게다가 수박씨 모양으로 만든 초콜릿을 군데군데 장식해 맛과 비주얼 모두 만족시킨다. 여름밤이면 생각나는 시원한삼페인 한 잔과의 페어링 메뉴로도 훌륭하다.

가격 6만5,000원 문의 02-317-0365



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 파크카페, ‘허니 비, 꿀벌 빙수’

스몰 럭셔리 디저트 중에서도 프리미엄 디저트로 꼽히는, 여름 시즌에만 맛볼 수 있는 호텔 빙수를 보다 합리적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의 레스토랑 파크카페다. 이곳은 호텔의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합리적 가격을 제안해 1년 내내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다. 이곳에서 올여름 새롭게 선보인 ‘허니 비, 꿀벌 빙수’ 역시 가성비를 자랑한다. 부드러운 밀크 플레이크와 튀르키예식 솜사탕 위에 지리산 꿀벌집을 통째로 올려 깊고 진한 천연 꿀맛을 느낄 수 있다. 여기에 바삭한 크루키와 부드러운 바닐라 아이스크림, 수제 우유 캐러멜인 돌세 데 레체, 단팥 토핑까지 더해 마지막 한 입까지 풍부하고 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다.

가격 4만5,000원 문의 02-2090-8000



엠배서더 서울 풀만 더 라운지 & 바, ‘카이막 크림 빙수’

몇 년 전부터 카이막을 곁들여 먹는 디저트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카이막은 우유의 지방을 굳혀 크림처럼 만든 튀르키예 전통 유제품으로,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한다. 천상의 맛이라고 일컫는 만큼 젊은 층에게도 인기가 많다. 카이막은 보통 담백한 빵이나 바삭한 크래커에 곁들여 먹는데, 엠배서더 서울 풀만에서는 빙수에 곁들여 이색적 빙수를 선보였다. 게다가 여름에만 맛볼 수 있는 시즌 한정 메뉴도 아니다. 1년 내내 생각나면 맛볼 수 있다. 카이막 크림 빙수는 곱게 간 우유 얼음 위에 튀르키예식 솜사탕인 피스마니에와 국내산 꿀벌집을 올려 카이막 크림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플레이팅 역시 튀르키예 하면 떠오르는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주문 시 2인이 즐길 수 있도록 빙수와 팔, 카이막과 바게트 등이 한상 차림으로 나와 만족도가 높다. ●

가격 6만9,000원 문의 02-2270-3101





한여름 밤의 칵테일 로맨스

Savor the Flavors of Summer

바쁘게 보낸 하루의 끝자락, 한 잔의 칵테일은 일상에 특별함을 더해준다. 전문 믹솔로지스트가 아니라도 도전해보자. 집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칵테일 레시피를 소개한다.

Editor 지연 *Cooperation*. <잇츠 칵테일>(김봉하 지음, 영진닷컴)



OLD FASHIONED_RUM

위스키와 각설탕, 비터스로 만드는 간단하면서도 다양한 맛과 향을 지닌 올드 패션드는 고전 칵테일의 대명사다. 지금은 다양한 주종으로 파생되었고, 가장 인기 있는 건 럼으로 만든 올드 패션드다.

재료(1잔, 90ml)

록 글라스, 각설탕 2개, 앙고스투라 비터스 2방울, 큰 얼음 1조각, 플로르 데 카냐 12Y 럼 60ml(에이징 럼), 오렌지 껍질 약간

만들기

- 1 글라스에 설탕과 비터스를 넣는다.
- 2 럼 30ml를 넣고 잘 젓는다.
- 3 얼음을 넣고 어느 정도 녹을 때까지 젓는다.
- 4 나머지 럼을 넣은 뒤 잘 저은 다음 오렌지 껍질로 장식한다.

SPANISH GIN&TONIC

진 토닉은 칵테일의 기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 토닉은 영국 스타일. 스페니시 진 토닉은 스페인의 미쉐린 레스토랑 엘블리의 페란 아드리야 셰프가 고안한 방법이다. 림이 넓은 글라스를 통해 향긋한 진의 향, 강렬하고 섬세한 탄산감과 풍미를 더 잘 느낄 수 있다.

재료(1잔, 150ml)

벌룬 글라스, 얼음 적당량, 몽키 47 진 45ml(런던 드라이 진), 라임 ½개 분량의 신선한 라임 주스, 피즈랩 하우스 오브 피즈 토닉워터 90ml(토닉워터), 시나몬 스틱 1개

만들기

- 1 글라스에 얼음을 가득 채우고 온도를 낮추기 위해 충분히 젓는다.
- 2 얼음으로 생긴 물을 따라낸 후 진을 붓고, 라임을 짜 넣는다.
- 3 토닉워터를 70%가량 거칠게 채우고 가볍게 젓는다.
- 4 추가로 토닉워터를 글라스의 8부 정도까지 섬세하게 채운 후 라임과 시나몬 스틱으로 장식한다.





FROZEN MARGARITA

더운 여름에 즐기기에 제격인 칵테일로, 기존 클래식 마가리타에 조각 얼음을 넣고 갈아서 시원하게 마실 수 있다. 아주 차가운 상태에서 마시며 잠시나마 더위와 갈증을 잊게 한다.

재료(1잔, 160ml)

칵테일글라스, 라임 주스 20ml 또는 라임 2조각, 소금(글라스 림에 바르는 용도) 약간, 조각 얼음 적당량, 호세 쿠엘보 실버 30ml(실버 테킬라), 디카이퍼 트리플섹 15ml(오렌지 큐라소), 설탕 2작은술, 라임 껍질(장식용) 약간

만들기

- 1 글라스의 입 닿는 부분에 라임즙을 닦듯이 묻히고 소금을 바른다.
- 2 블렌더에 모든 재료를 넣고 조각 얼음과 함께 간다.
- 3 도중에 설탕과 조각 얼음을 조금 더 추가하며 슬러시 형태로 곱게 간다.
- 4 글라스에 ③을 산처럼 쌓아서 담고 라임으로 장식한다.



PEACH CRUSH

복숭아의 향긋한 맛이 그대로 전해지는 피치 크러시는 국민 칵테일이라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바에서 인기 있는 메뉴다. 크러시드 아이스의 시원한 비주얼 속에 크랜베리 주스의 영롱한 컬러가 시각적 즐거움을 더한다.

재료(1잔, 150ml)

셰이커, 톨 글라스, 조각 얼음 적당량, 레몬 ½개, 피치트리 45ml, 설탕 시럽 20ml, 크랜베리 주스 60ml

만들기

- 1 칵테일을 담을 글라스에 얼음을 절반 정도 채워 차게 만든다.
- 2 셰이커에 레몬을 껍질째 잘라 넣고 으갠다. 레몬의 일부는 장식용으로 조금 잘라 남겨둔다.
- 3 ②에 나머지 재료와 얼음을 넣고 차가워질 때까지 셰이킹한다.
- 4 ①의 글라스에 ③을 여과해 담는다.
- 5 조각 얼음을 보기 좋게 채우고 레몬을 조금 잘라 장식한다.

PALOMA

100% 블루 아가베 테킬라와 신선한 자몽 주스, 그리고 강렬한 탄산수의 조합으로 탄생한 칵테일이다. 향긋하고 달콤한 자몽 소다와 테킬라가 매력적인 풍미를 자아낸다.

재료(1잔, 150ml)

톨 글라스, 라임 주스 10ml 또는 라임 1조각, 소금(글라스 림에 바르는 용도) 약간, 조각 얼음 적당량, 1800 실버 테킬라 45ml(블루 아가베 100% 테킬라), 자몽 소다 90ml

만들기

- 1 글라스의 입 닿는 부분에 라임즙을 닦듯이 묻히고 소금을 바른다.
- 2 얼음을 가득 채우고 테킬라를 붓는다.
- 3 라임 주스 또는 라임 조각을 손으로 찢어 즙을 넣는다.
- 4 자몽 소다를 넣고 가볍게 저은 다음 라임 조각을 통째로 넣어 장식한다. ●

〈잇츠 칵테일〉은

청담동 '믹솔로지'의 오너 믹솔로지스트이자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의 주류 브랜드 FJ KOREA에서 수년간 애드버커시 매니저(Advocacy Manager)로 활동하는 김봉하의 칵테일 레시피를 담은 책. 누구든 좋아하는 칵테일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초보자를 위한 내용부터 홈 바 구성까지 칵테일에 대한 모든 것을 실었다. 수록된 QR코드로 영상을 보며 직접 따라 할 수 있다.



햇살보다 섬세하게,



여름 피부 지키는 기술

기미, 땀띠, 자극...

여름은 피부에 가혹한 계절이다.

정답은 늘 단순하다.

기본을 지키는 정석 관리.

지금 여름 피부에 필요한 건

한 곳 다른 정통 루틴이다.

Writer: 강은진 Photo: 프리픽 Reference: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피부도 더위에 지친다

여름철 강한 자외선과 높은 기온은 피부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장시간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피부 질환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 대표적 여름철 피부 질환은 일광 화상이다.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피부는 붉게 달아오르며 통증과 화끈거림이 동반된다. 심한 경우 물집과 함께 오한, 구역감 등 전신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장기간 반복될 경우 피부 노화는 물론, 색소침착과 피부암의 위험도 높아진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외선이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외출을 피하고, 외출 시에는 노출 부위에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긴 소매 옷, 모자, 선글라스 등 물리적 차단도 필요하다. 가벼운 일광 화상은 냉찜질이나 찬물 샤워로 열을 식히고, 보습제를 사용해 진정시키면 도움이 된다. 물집이 생긴 경

우에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절대 터뜨리지 말고, 증상이 심하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

이 밖에도 높은 습도와 체온으로 무좀 발생이 증가하며, 피지 분비가 활발해 여드름 증상도 악화되기 쉽다. 일상 생활에서 청결과 수분 조절, 자극의 최소화가 예방의 핵심이다.

화려한 제품보다 꾸준한 기본

피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의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출발점은 자외선 차단이다. 외출 15분 전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바르고, 땀을 흘리거나 물놀이를 한 뒤에는 2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야 효과가 유지된다. 용기에 자외선 차단 지수(SPF)와 자외선 A 차단 등급(PA)이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고, 외출 후에는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세안은 하루 두 번, 미온수와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해 부드럽게 하는 것이 좋다. 손을 깨끗이 씻은 후 거품을 충분히 내 얼굴에 자극 없이 닿도록 하고, 물기는 수건으로 가볍게 눌러 닦는다. 세안 직후에는 보습제를 발라 피부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또한 피부 건강을 위해 수분과 영양 섭취도 중요하다. 하루 동안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숙면 역시 피부 재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정한 수면 시간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름철은 피부가 쉽게 무너지는 계절이다. 자외선, 고온 다습한 날씨, 과도한 냉방 속에서도 피부를 지키는 방법은 결국 단순하고 기본적인 습관에 있다. 익숙하고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바로 그 기본이 모든 피부 관리의 시작이자 효과를 끌어내는 전제 조건이다. ☀

여름휴가 건강 가이드북

1. 감염병 정보 확인 해외여행 전에는 방문 지역의 감염병 유행 정보와 예방접종 필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해외감염병 NOW'에서 국가별 질병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이 필요한 경우 출국 최소 2주 전에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상비약과 처방약 준비 지사제, 진통제, 연고, 밴드 등 기본 상비약은 여행 전에 미리 준비한다. 평소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충분한 양을 챙기고, 처방전 사본도 함께 지참하는 것이 좋다. 병원에 갈 경우를 대비해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도 준비한다.

3. 장거리 이동 중 건강관리 장시간 이동 시 수분을 자주 섭취하고, 주기적으로 스트레칭해 혈액순환을 돕는다. 특히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좌석에서 발을 움직이거나 복도를 걷는 것이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시차가 있는 지역으로 여행할 경우 약 복용 시간은 미리 조정한다.

4. 멀미 예방 수칙 멀미가 잦은 경우 출발 30분~1시간 전에 멀미약을 복용하고, 창가 좌석 등 흔들림이 적은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독서나 스마트폰 사용은 자제하고, 창밖 먼 곳을 바라보며 실내를 적절히 환기시킨다. 출발 전에는 가벼운 식사를 한다.

5. 물놀이 안전 수칙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물에 들어가고, 몸무게에 맞는 인증받은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물놀이 전에는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고, 지정된 구역 외 수영은 피한다. 계곡이나 바닷가에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샌들을 착용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Welcome to TWO CHAIRS

우리은행의 역사와 전문성이 만나 탄생한 TWO CHAIRS는 종합 자산 관리 은행을 지향하는
우리은행의 프라이빗 बैं킹 브랜드입니다. 자산 관리 전문가와 세무&부동산 전문가가
고객님의 금융 니즈에 맞는 종합 재무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고객님의 금융 플랜 전반에 최적의 해답을 드리는 평생 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01 자산 관리 전문가 그룹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글로벌 투자전략과 전망에 기반하여 주식, 채권, 달러를 포함한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의 투자목적에 적합한 맞춤형 포트폴리오 상담을 통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안정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최적의 금융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02 세무 전문가 그룹

절세(양도, 소득, 상속) 방안과 지방세, 간접세, 법인세 관련 상담 및 세금 관련 상담 등을 통해 복잡한 세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상속·증여 및 기업 승계 등 세금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로 고객님의 성공을 뒷받침합니다.



03 부동산 전문가 그룹

주택 임대차계약 상담부터 매수와 매도, 보유 부동산의 진단, 가치증진 방안과 투자분석까지 우리은행의 부동산 전문가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풍부한 부동산 투자 정보와 다양한 실무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들이 국내를 넘어 해외부동산 투자의 성공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W E A L T H &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경제의 흐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금융 전문가를 비롯한
국내외 금융 전문가에게 얻은 발 빠른 정보를 통해
투자과 부에 대한 해안을 지닐 수 있습니다.

※ 본 기사에 포함된 정보는 특정 상품, 서비스 제공 및 투자 권유를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어떠한 내용도 투자, 세금, 법률, 여타 전문 상담 또는 특정한 사실과 문제에 관한 자문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각종 수익률과 위험, 전망 등은 과거의 수익률을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스스로 해야 하며, 당행은 투자에 따른 결과를 보장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수익률 환골탈태

현재 국내 주식시장 수익률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저조했던 국내 주식시장 수익률과 비교해볼 때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내 주식시장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을 알아보자.

Writer: 박석현(우리은행 WM솔루션부 Equity Analyst) Photo: 프리픽



올해 상반기 국내 주식시장 강세를 이끈 세 가지 요인

올해 상반기 KOSPI 수익률은 +20.6%(전년 말 대비 6월 13일 기준)로 독일(+18.1%), 홍콩(+19.1%) 등과 함께 글로벌 주식시장 수익률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9.6%로 주요국 주식시장 수익률 최하위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환골탈태^{換骨奪胎}라는 사자성어가 꼭 들어맞는 극적 변화로 볼 수 있다.

상반기 국내 주식시장 수익률 호조를 이끈 요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책 변수가 주식시장에 호의적이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25bp씩 금리인하를 결정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2월과 5월에 각각 25bp씩 금리인하 정책을 이어갔고, 하반기에도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완화적 통화정책과 함께 정부 재정정책 역시 5월 1차 추경 확정에 이어 대선 이후에는 2차 추경 집행이 확실시되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동반되는 정책 혼합^{Policy Mix}을 통해 국내 주식시장 상승을 견인하는 긍정적 정책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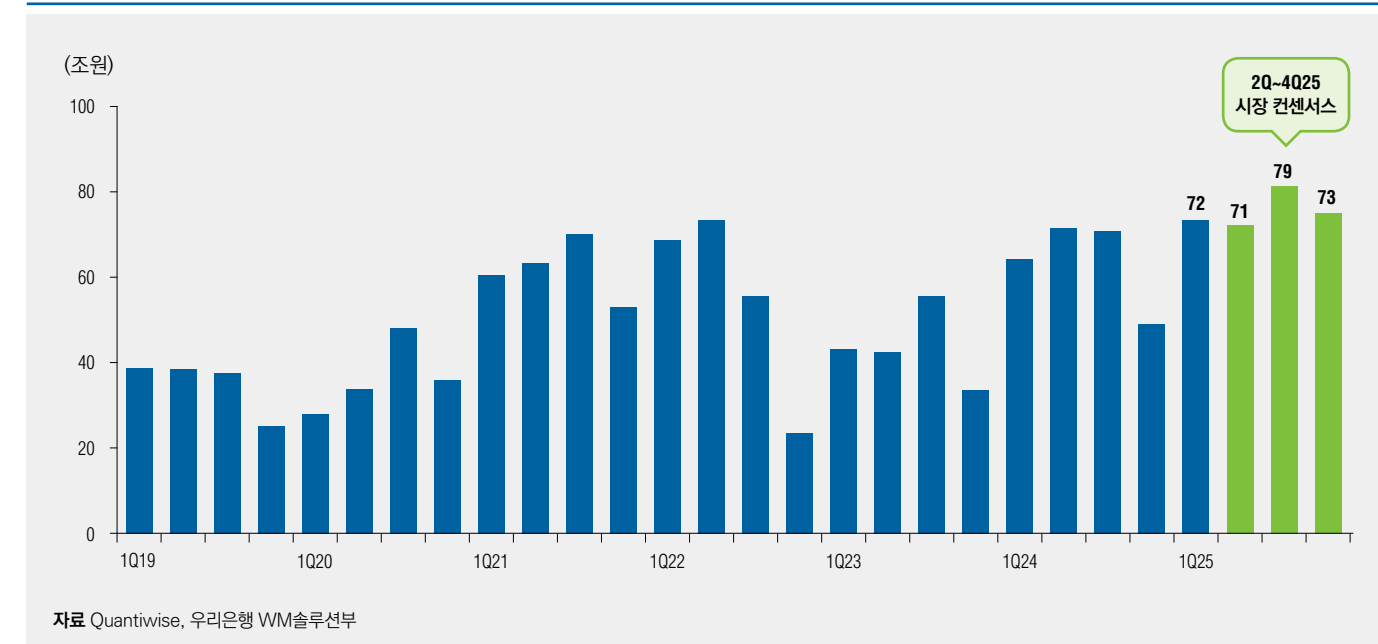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25bp씩 금리인하를 결정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2월과 5월에 각각 25bp씩 금리인하 정책을 이어갔고, 하반기에도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

둘째, 국내 기업이익이 호조를 보였다. KOSPI 올해 1/4분기 영업이익은 71조7,532억원을 기록하며 실적 발표 시즌 직전 시장 예상치를 10.9%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한 2022년 2/4분기 71조8,524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올해 2/4분기 영업이익의 시장 예상치가 70.7조원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7월 초 시작될 2/4분기 실적 발표 시즌 결과에 따라서는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 경신을 바라볼 수 있다.

KOSPI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와 전망



“

상반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국내
주식시장 수익률이 하반기에도 호조를
지속할지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긍정적 시장
환경 형성이 하반기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가
중요한데, 세 가지 요인 모두 도전적 측면에
부딪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

셋째, 저평가 매력 부각 속에서 달러화 약세와 함께 글로벌 유동성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이 본격화됐다. 상반기 KOSPI PER(주가수익 배율, 12개월 선행 기준)은 4월 초 7.85배로 떨어지며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에 근접할 만큼 저평가 매력이 커진 바 있고, 이는 1월 이후 3월을 제외하고 매달 KOSPI가 월간 상승을 기록하는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됐다. 여기에 상반기 중 두드러진 달러화 약세 속에서 4월 말 이후 글로벌 유동성의 비달러화 자산 선호 회복과 함께 외국인 자금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이 본격화될 수 있었던 점이 KOSPI 상승 폭 확대를 견인했다.

KOSPI 3,000p 이상에서 추가 상승을 위한 전제 조건

상반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국내 주식시장 수익률이 하반기에도 호조를 지속할지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긍정적 시장 환경 형성이 하반기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가 중요한데, 세 가지 요인 모두 도전적 측면에 부딪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2차 추경에 따른 재정 집행이 하반기 본격화하겠지만 주가 상승 재료로서의 역할은 소멸할 것이고, 재정 효과에 따른 경제성장 개선 예측은 통화정책 측면에서 한국은행 추가 금리인하 결정을 조심스럽게 만들 수 있다. 이럴 경우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 추가 확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연준 금리인하 정책 재개가 빠른 시간 내 가시화될 필요성이 커진다. 물가 부담에 대한 경



계로 연준 금리인하 재개 시점이 늦춰질수록 상반기 대비 하반기 정책 공백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이는 주식시장 상승 탄력 둔화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상반기 호조가 이어졌던 국내 기업이익 모멘텀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수 있어야 하는데, 미국 상호관세 부과가 기업이익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하다는 점이 변수다. 6월 현재 KOSPI 3/4분기 영업이익은 79.5조원을 기록하며 분기 사상 최대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미국 상호관세 부과가 글로벌 경제성장과 물가에 영향을 미치며 총수요 둔화로 나타날 경우 하반기 국내 기업이익 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KOSPI가 상반기 20% 이상 오르면서 저평가 매력은 일 단락됐다. 6월 13일, 2,894p 기준 KOSPI PER은 9.73배를 기록하며 금융위기 이후 장기 평균에 해당하는 10배(KOSPI 3,000p)에 거의 다다랐다. KOSPI가 PER 역사적 평균 아래서는 악재보다 호재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역사적 평균 이상으로 올라설 경우 호재보다는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간으로 진입하게 된다.

따라서 하반기 이후 KOSPI가 3,000p 이상에서 추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으려면 좀 더 엄격한 요구 조건이 충족돼야 하며,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측면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관찰 포인트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① 시의적절한 연준 금리인하 재개, ② 국내 기업이익 전망 호조 지속, ③ 달러화 약세 및 국내 주식시장 외국인 순매수 기조 유지 등이 하반기 국내 주식시장 수익률 호조 지속을 위한 핵심적 전제 조건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

박석현
우리은행 WM솔루션부
Equity Analyst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상권의 진화

소비트렌드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오프라인 상권도 바뀌어야 그 공간이 살아남을 수 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시장에서 상권의 변화를 읽고 주도하는 것은 소매업을 운영하는 임차인이겠지만, 경쟁력 있는 임차인을 유치하려는 임대인의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Writer: 조규성(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전문가) Photo: 프리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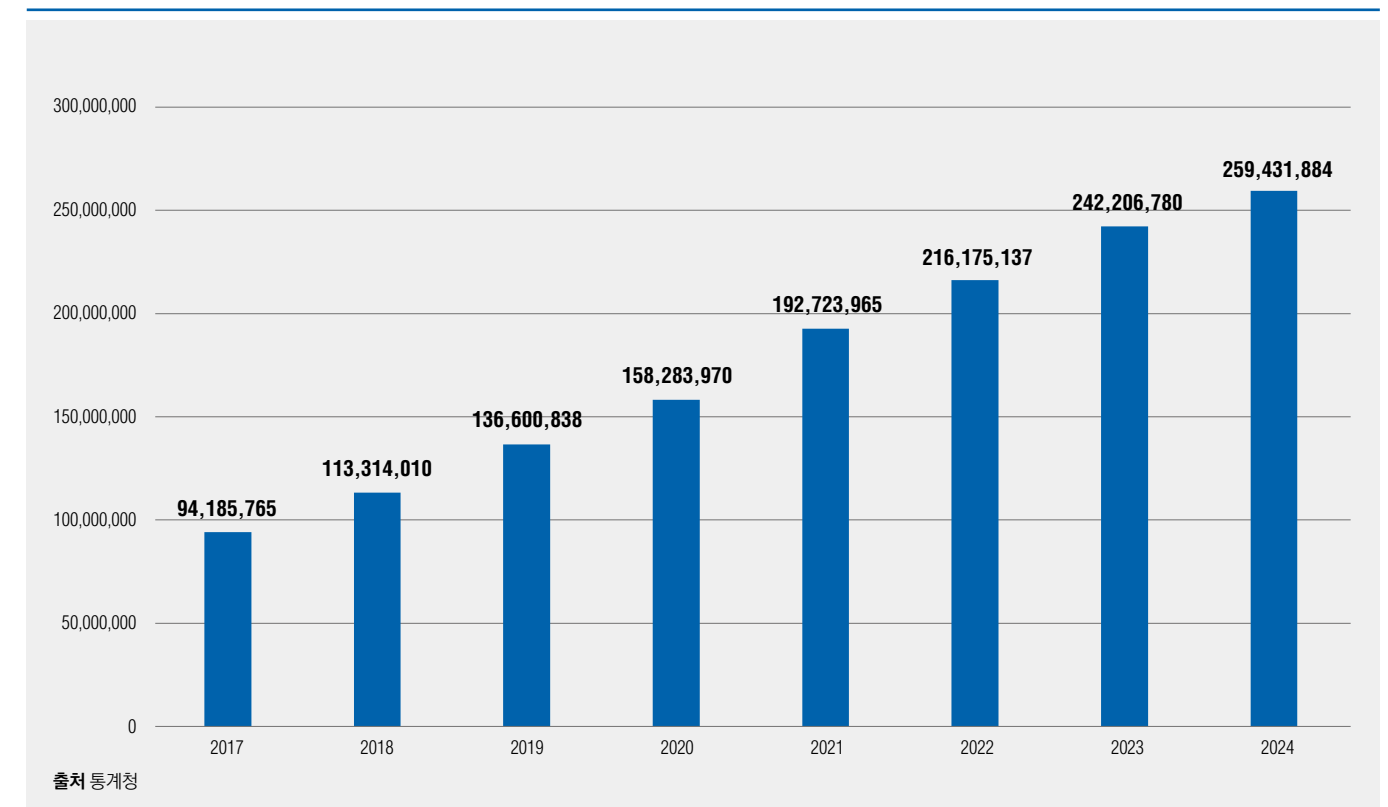
우리가 익히 아는 유명한 상권들은 살아 있는 생물처럼 태어나고 성장하며 쇠퇴를 겪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역경을 헤치고 다시 회복하며 변화를 겪어왔다. 상권이 변화하는 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트렌드가 변하기 때문이다. 이런 트렌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면 상권이 어떻게 변할지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다. 말은 쉽지만 사실 트렌드를 정확히 예측하기도 어렵고, 바뀐 트렌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상권이 트렌드에 맞게 변화하는 데는 사실 다소간의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상업용 부동산시장을 분석할 때 빼놓지 않고 언급되는 것이 소비트렌드의 변화다. 최근 가장 큰 변화를 꼽자면 매년 성장하는 온라인쇼핑의 성장일 것이다. 온라인쇼핑의 비약적 성장은 상가를 임차해 소매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에겐 위협적인 요소다. 우리 가게 손님이 이젠 우리 가게에 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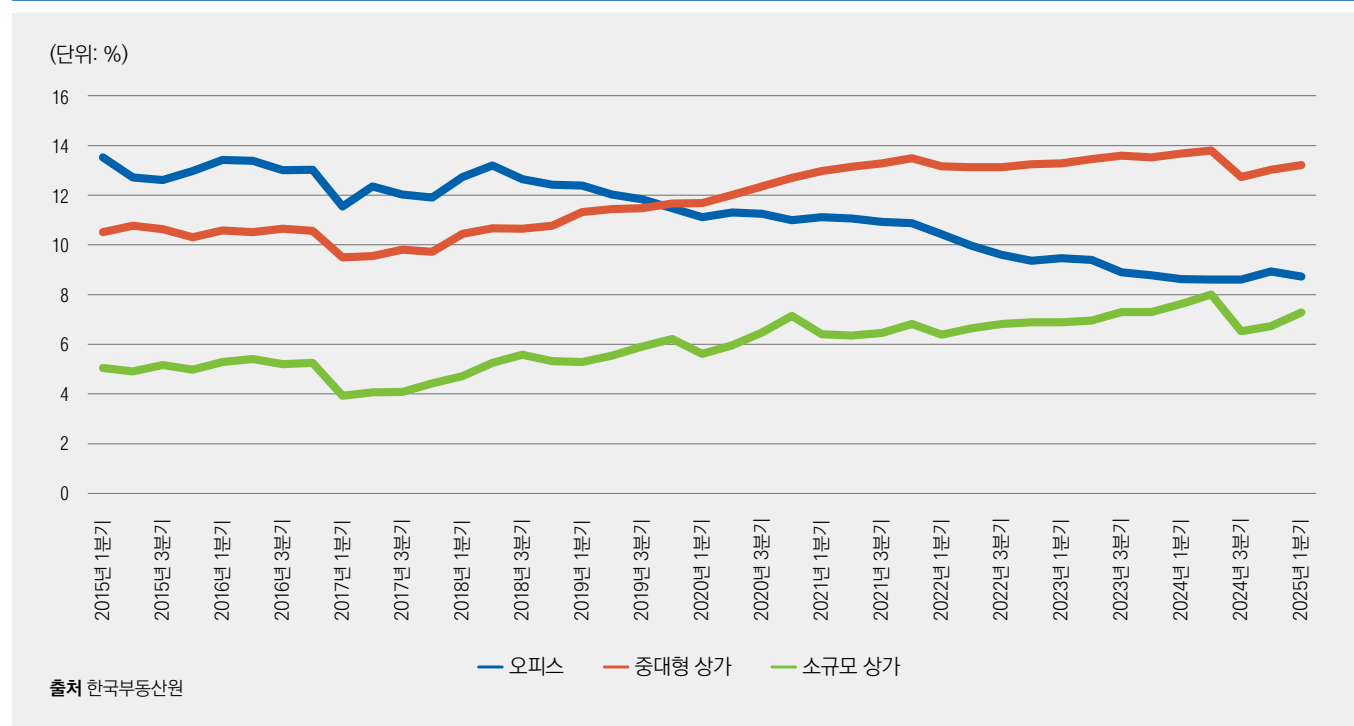
온라인쇼핑의 성장이 상권에 미친 영향

온라인으로 소비트렌드가 바뀌면서 오프라인 상권들은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첫째는 소매업종의 부진이다. 가전은 물론 의류, 잡화 등 소매점은 상당한 부진에 시달리게 됐다. 온라인쇼핑이 처음 등장한 시기에는 신뢰의 문제도 있었지만, 빠르지 않은 배송 시간이 성장을 막는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진화를 거듭한 덕분에 이젠 주문만 하면 당일에도 배송이 완료되는 시스템을 갖춰 큰 기다림 없이 물건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됐다. 거기에 유통마진이 빠져 가격까지 저렴한 편이라 사람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일에 상당히 익숙해진 상황이다. 제조를 한 회사도 매장을 운영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자체 온라인몰 제작과 홍보에 열 올리고 있다. 그나마 직접 방문해야 먹을 수 있던 식음료업종도 이젠 밀키트를 통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양한 맛을 주문하고, 편

연도별 온라인쇼핑몰 거래액 추이



용도별 전국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 추이



리하게 먹을 수 있게 되니 소비자는 더욱 소매점을 이
용할 일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졌다.

둘째, 공실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소매업이 부진
하면서 증가한 공실로 오피스빌딩과 상가의 공실률 격
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업무 공간 수요가 꾸준한 오피스빌딩에 비해 상가의 경우 온라인쇼핑의 타
격을 받아 공실이 증가했다.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19년도 4분기와 2025년 1분기의 전국 공실률을 비
교해보면 그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다. 2019년의 경
우 오피스와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 차이는 불과 0.19%
에 불과하고, 소규모 상가는 오피스에 비해 공실률이
5.26%나 더 낮은 수준이었다. 팬데믹 이후 오피스 공실
률은 점차 낮아진 반면, 상가의 경우 공실률이 점차 높
아져 2025년에는 오피스와 중대형 상가는 4.4%까지
격차가 벌어지고, 소규모 상가와와는 1.4% 수준까지 격
차가 줄어들게 되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온라인 구매
의 편리함에 길들여진 소비자들은 오프라인으로 쉽게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상권의 변화, 물건을 파는 공간에서 경험을 파는 공간으로

온라인쇼핑으로의 고객 이탈은 사실 갑자기 닥친 일은
아니다. 그렇기에 오프라인의 상권들도 그에 맞게 조금
씩 진화해오고 있었다. 과거의 소매점이 단지 물건을
파는 공간 또는 가격에 맞는 수준의 음식을 먹는 공간
이었다면 이젠 경험을 사고 기억을 만드는 공간으로 바
뀌어가고 있다. 감각적 인테리어를 즐기고 SNS에 경험
을 나누며, 단순한 맛이 아닌 문화를 소비한다.

최근 생겨난 대부분의 매장은 특화된 인테리어를 통해
소비자가 방문해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내고 있다.
SNS에 감각적이고 독특한 인테리어 경험을 올리며 온
라인 구매로는 얻을 수 없는 문화에 대한 소비를 이어
가는 것이다. 이 경험은 SNS를 타고 계속 퍼져나가 외
국인 관광객까지도 불러오는 효과를 보이기도 한다. 관
광지 문화에 대한 경험이 중요한 관광객에게는 관광 안
내서 역할도 해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단순히 인테리

어가 좋은 것이 능사가 아니다. 팔고자 하는 제품의 콘
셉트를 부각시키는 요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콘
셉트와 인테리어가 잘 어우러지는 공간은 화제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화제성 있는 콘셉트로 꾸며 방문을
유도하는 대표적 예가 바로 팝업스토어이다. 팝업스토
어는 일정 기간만 운영하는 한시적 매장으로, 특가 또
는 한정판 제품을 팔거나 홍보와 제품 경험을 목적으로
꾸미는 경우가 많기에 대부분 인테리어가 자신만의 콘
셉트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한시적
기간의 특성상 단기간에 방문이 집중되고, 화제를 불러
일으킨다. 성수동 같은 상권의 경우 팝업스토어의 비중
이 높아져 재미있는 공간이 계속해서 창출되고, 이 재
미있는 공간은 또 유동인구를 불러오는 선순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다른 변화의 모습은 이른바 옴니채널의 부상으로 소매
점은 더 이상 판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무리 자세한 설명을 인터넷에서 글과 영상으
로 접해도 직접 체험해보는 것만 못한 경우가 많다. 또
다른 이의 경험은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 그렇기에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경험을 원하고, 이를 체험하게
해줄 공간이 필요한 것이다. 판매는 온라인으로 해도
오프라인에 체험만을 위한 공간을 운영하거나, 온라인
에서만 팔던 의류를 오히려 오프라인으로 들고 나와 직
접 경험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판매 채널이 다양
해지면서 소매점은 제품을 알리고, 신규 소비자를 끌어
오는 채널이 되고, 인지도를 높여 온라인 판매 역시 증
가시키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눈여겨볼 것은 새로 생기는 소매점의 경우 한 가지 아
이템에 집중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잡다하게 많은
아이템을 다루는 소매점은 전문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
다. 하지만 이제 온라인이 그 역할을 대신해주는 비중
이 커지다 보니 이제 소매점은 한 가지 아이템을 전문
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리고 그런 소매점은
SNS에서 인기를 끌며 오랫동안 인기를 유지하는 경우
가 많다. 온라인에서 쉽게 구하지 못할 깊이 있는 아이

템을 취급하는 소매점은 아직도 경쟁력이 있다는 반증
이다.

결국은 콘텐츠의 경쟁, 임차인은 임대인의 콘텐츠

오프라인 상권은 어떻게 하면 유동인구가 상권 내에 더
오래 머무르며 소비하게 하는가를 계속 고민하며 변화
하고 있다. 환경의 변화 속에서 상권이 살아남는 것은
결국 다른 곳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갖는 것이다. 그것
이 차별화된 인테리어일 수도 있고, 한정판 제품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일 수도 있다. 또한 같은 물건을 좀
더 다양한 각도로 경험해보고 구매하게 하는 공간이며,
해당 장소에 와야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일 수도 있다. 따
라서 온라인이 대체할 수 없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고민
이 계속되는 한 상권이 변화할 수는 있어도 아직 쉽게
전멸하진 않을 것이다. 임차인에겐 위에 열거한 것들이
차별적인 콘텐츠이겠지만, 임대인에겐 이런 차별적 노
력을 하는 임차인이 차별화된 콘텐츠일 것이다. 단순히
임대료의 많고 적음만 따질 것이 아니라 내 건물에 들
어오는 임차인이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지, 그 콘
텐츠가 과연 내 건물의 입지와 어울리는지 판단해야 한
다. 당장은 임대료가 약간 더 적더라도 경쟁력 있는 콘
텐츠로 성공할 수 있는 임차인을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임차인의 성공이 곧 내 건물 가치의 상승
으로 이어지고, 약간 임대료는 포기했지만 성공적인 콘
텐츠를 가진 입지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

조규성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전문가



해외 부동산 관련 세금의 모든 것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내 부동산 거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외 부동산 취득 후 보유, 양도하기까지 국내 세법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을 미리 알아두면 절세 혜택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Writer: 양동현(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전문가) Photo: 프리픽



국내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투자처를 해외 부동산으로 돌리거나 자녀의 유학 및 취업으로 해외 거주용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에 있는 부동산은 국내 세법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취득·보유·처분 단계에서 국내 세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도 있다. 지금부터 취득·보유·처분 단계별 세법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1. 해외 부동산 취득 단계

우선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은 없다. 자금 출처가 확실한 본인의 재원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납부할 세금이 없지만,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받아 해외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더라도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2억원 이상의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해 6월 말까지 ‘해외 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이하 ‘해외 부동산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세법 개정으로 2022년 자료 제출분부터 임대하지 않고 보유만 하더라도 해외 부동산 명세서 제출 대상이다.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물건별 취득·운용·처분 가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으며, 미신고 해외 자산 적발 시 취득 자금 출처 소명에 미(거짓)소명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2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해외 부동산 취득 명세

1. 해외부동산 취득 명세				
부동산 소재지	⑥ 국가		⑦ 소재지	
	⑧ 신고수리은행			⑨ 신고수리번호
⑩ 취득일	년 월 일		⑪ 취득 목적	[]주거, []주거 외
⑫ 부동산의 종류	[]주택·아파트, []상가·건물, []토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⑬ 부동산의 규모(면적,㎡)	건물 (), 대지 ()		⑭소유지분	%
⑮ 총취득금액(A)=(B+C)	현지통화:	()	(원화환산: ₩)	
⑯ 국내에서 송금액(B)	현지통화:	()	(원화환산: ₩)	
⑰ 현지조달금액(방법)(C)	현지통화:	()	(원화환산: ₩)	
1-1. 공동취득인 경우				
구분	제출(법)인	공동취득인1	공동취득인2	기타 공동취득인
⑱ 공동취득자 성명(상호)				
⑲ 사업자(주민)등록번호				
⑳ 제출(법)인(본인)과의 관계				
㉑ 소유지분	%	%	%	%

2. 해외 부동산 보유 단계

해외 주택을 취득하고 실제 거주함으로써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신고해야 할 세금은 없지만, 보유분에 대한 해외 부동산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 부동산을 취득해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며, 임대분에 대한 해외 부동산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다면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필요경비로 이 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

해외 주택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국내외 주택 수를 고려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부부 합산 2주택까지는 월세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되고, 3주택부터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함께 신고해야 한다.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국내외 주택 수를 배우자 합산으로 계산하며,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보유 수에 따른 과세요건		
과세요건(주택 수 기준)		
주택 수 ¹⁾	월세	보증금
1주택	비과세 ²⁾	비과세
2주택	과세	
3주택		간주임대료 과세

1) 국내 주택 외에도 국외 주택과 배우자 소유 주택도 합산해 계산
2)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월세 소득이 비과세되지만, 12억원 초과 1주택자와 해외 주택 1주택자는 월세 소득에 대해서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 계산 시 원화 기준으로 외화 환산은 임대료의 경우 계약에 의해 지급일이 정해진 상황에서는 그날의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을 적용하며, 필요경비의 경우 실제 지출한 날의 환율을 적용하면 된다.

2. 해외부동산 보유 명세

부동산 현황	22 국가	23 소재지
24 부동산의 종류	[]주택·아파트, []상가·건물, []토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25 임대여부	☐ 여 ☐ 부	

3. 해외부동산 투자운용(임대) 명세

부동산 현황	26 국가	27 소재지
28 부동산의 종류	[]주택·아파트, []상가·건물, []토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29 층·호수	임차인	
	30 상호(성명)	31 개시일 (입주일)
	32 종료일 (퇴거일)	33 보증금
	34 월세	35 연간 월세 합 계
36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 여 ☐ 부	37 소득 국내반입여부
		☐ 여 ☐ 부

4. 해외부동산 처분 명세

부동산 소재지	38 국가	39 소재지
40 보고은행	41 보고번호	42 처분일
		년 월 일
43 부동산의 종류	[]주택·아파트, []상가·건물, []토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44 부동산의 규모(면적,㎡)	건물 (), 대지 ()	45 처분지분
		%
46 총처분금액	현지통화: ()(원화환산: ₩)	
47 양도소득세 신고여부	☐ 여 ☐ 부	48 처분자금 국내반입여부
		☐ 여 ☐ 부

(처분시) 붙임 서류: 1. 매매계약서 사본 2. 등기부등본 사본 3. 그 밖의 증빙서류

3. 해외 부동산 처분 단계

해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 부동산과 동일하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다음 해 6월 말까지 해외 부동산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대소득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처분과 관련한 세금을 납부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필요경비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만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15년 보유할 경우 30% 공제)는 해외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진 않지만, 국내의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는 해외 주택이 제외되며, 마찬가지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해외 주택은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주택의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주택 수 계산에서 해외 주택은 제외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해외 부동산 취득·보유·처분 단계별 다음 해 6월 말까지 해외 부동산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임대소득 계산 시 국내외 주택 수를 합산하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는 해외 주택 수를 제외하고 계산하게 된다. 이렇듯

해외 부동산 취득·보유·처분 단계별 명세서 제출 의무 사항					
취득가액	자료 제출 의무				
	취득 시	보유 시	투자운용 (임대) 시	처분 시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X	X	X	X	O (처분 명세)
2억원 이상	O (취득 명세)	O (보유 명세)	O [투자운용 (임대) 명세]	O (처분 명세)	O (처분 명세)

해외 부동산 실제 투자 및 취득 시 취득·보유·처분 단계에 따른 국내 세금 신고와 납부 의무, 매년 제출해야 하는 해외 부동산 명세서의 요건 등을 알고 있다면 투자 수익 외 세금적으로도 절세하며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양동현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전문가





For Readers

〈TWO CHAIRS〉에 보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매번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나날이 발전하는 〈TWO CHAIRS〉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TWO CHAIRS〉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설문 조사에 참여해주세요.
〈TWO CHAIRS〉에 대한 만족도와 매거진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독자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측의 QR코드를 촬영해
설문 조사에 접속한 후 양식에 맞게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설문에 응답한 후 제출까지 누르면 완료됩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하신 분 중 두 분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참여 방법 QR코드 촬영 후 양식에 맞게 작성 및 제출
참여 기간 2025년 7월 11일(금)~8월 22일(금)
당첨자 안내 개별 통보

※ 당첨자에게는 선물을 우편으로 일괄 발송해드립니다.
※ 잘못된 개인 정보 입력으로 인해 당첨자에게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상품이 반송될 경우
재발송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손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재고 수량에 따라 상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바로가기

Special Gift



파나소닉 페이스 스티머
EX-XS01(2명)

〈TWO CHAIRS〉를
모바일과 온라인에서도
자유롭게 즐기세요.

TWO CHAIRS 모바일 웹진

스마트폰으로 우측 QR코드를 스캔하면 우리WON뱅킹(App)으로 연결됩니다.
우리WON뱅킹 ➡ 전체메뉴 [생활 혜택] ➡ TWO CHAIRS ➡ TWO CHAIRS 웹진
[TWO CHAIRS웹진] 배너 상단 구독하기를 신청하시면 매월 첫째주,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TWO CHAIRS 온라인 웹진

www.wooribank.com ➡ 전체 메뉴 ➡ TWO CHAIRSPB ➡ TWO CHAIRS 웹진



WON뱅킹 바로가기

Welcome to TWO CHAIRS

TWO CHAIRS 특화센터

TWO CHAIRS W, TWO CHAIRS Exclusive 센터는 우리은행의 고품격 자산관리 전문센터입니다.

TWO CHAIRS W

청담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청담동) 신영빌딩 6층	T. 02-511-4909(내선 455, 510, 512)
도곡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도곡동) 군인공제회관 21층	T. 02-501-1639(내선 513, 530)
센트럴시티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76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1층	T. 02-3482-6586
압구정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416(청담동) 트리니티플레이스빌딩 4층	T. 02-518-6135(내선 311, 312)
여의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여의도 TP타워 19층	T. 02-6373-2200(내선 212, 213)
부산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20(우동) 4층	T. 051-741-3625(내선 213, 214)
송도	인천시 연수구 하모니로177번길 49 형지글로벌패션복합센터 제1동 15층 15호	



TWO CHAIRS W 도곡

TWO CHAIRS Exclusive

본점센터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우리은행 본점 1층	T. 02-2002-3316(내선 3312, 3367)
강남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8(역삼동) GS타워 6층	T. 02-508-3456(내선 310~314)
시그니처센터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1(서초동) GT타워 24층	T. 02-562-7964(내선 405, 406)

TWO CHAIRS 전문 서비스

자기진단, 금융투자, 세무/부동산, 은행/노후설계 등 우리은행 TWO CHAIRS 특화센터와 함께
다양한 금융서비스 혜택을 받아보세요.

자산관리 자문서비스
금융시장 분석과 포트폴리오 제안, 은퇴와
노후설계 솔루션 제공, 듀얼케어
자산관리서비스 등

세무 자문서비스
자산의 보유와 매도(종부세, 양도세),
자산이전(상속·증여세), 기업승계 포함 법인
관련 세무자문 등

부동산 자문서비스
부동산 투자정보 분석, 부동산 매수 및
매도자문, 보유 부동산 진단을 통한 케어
특화서비스 제공 등

“자산관리, 믿고 앉아만 있으면 돼”

오직, 당신에게만 집중하는
전문가의 안정적인 1:1 자산관리를 만나보세요.

자산관리의 A TO Z
TWO CHAIRS

전문가의 안정적인 1:1 자산관리, TWO CHAIRS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고객별 자산현황과 투자성향에 따른
포트폴리오 추천 및 채무, 부동산 분야
전문가 상담 지원

TWO CHAIRS 기본서비스

전용 상담공간, 대여금고 서비스,
시크릿뱅킹 서비스,
해외 유학·이주 상담 지원, TWO CHAIRS 매거진

TWO CHAIRS 특화서비스

호텔, 다이닝,
한우 배송, 가전, 꿀머니 등

※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는 가까운 영업점 상담직원에게 문의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TWO CHAIRS 기본서비스는 우리은행 TC등급 이상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영업점 사정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TWO CHAIRS 특화서비스는 금융거래 현황에 따라 선정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은행 사정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5000, 상담가능시간: 평일 9:00~18: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불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0818(2025.01.31~2026.02.28)